건축사 2014 July

건축사 543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4 07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과 한국건축의 현주소
중년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
특 집 충청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KOREAN ARCHITECTS

건축사 2014 July KOREAN ARCHITECTS 543

글. **김형수**_ Kim, Hyeong-su
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장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과 한국건축의 현주소

Korea Won the Gold Lion at the 14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in 2014 La Biennale di Venezia, and Where is korean Architectural Position?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미국 프로젝트관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세종대 등에서 강의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 대법원 특수감정인,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 서초구 건축심의위원, KOICA 전문위원,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UIA 서울총회 유치 성공에 이어 2014년 대한민국 건축계에 또 하나의 낭보가 들려왔다. 제14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에 시작하여 전 세계 250여개 비엔날레의 모태 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베니스영화제와 더불어 양대 예술제로 손꼽힌다. 미술과 건축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대한민국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1993년 백남준 화백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백남준 화백은 독일관의 참여작가로 미술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건축분야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은 베니스비엔날레에 1995년 한국관을 처음 건립한 후 19년 만에 최고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한국의 건축은 국제적인 지명도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를 준비한 커미셔너와 큐레이터는 기존의 지명도 있는 작가가 아닌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된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주최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주제 및 전시 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적극적인 개혁을 하였던 것도 수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비엔날레의 조민석 커미셔너는 "한국 건축사들의 실천적인 활동이 최초로 국제적인 인정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번 건축전의 총 감독인 렘 콜하스가 제시한 올해의 주제는 '근대성의 흡수 : 1914~2014' 였는데, 한국관은 남북한의 건축이 갖는 특수성을 부각하여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한국관의 주제는 '한반도 오감도'로 분단 이후의 남북한이 밟아간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를 건축적인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전시의 대상은 서울과 평양이다. 1950년대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두 도시가 60여 년 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변화된 모습을 극단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대회의 유치와 유명 건축상의 수상이 우리나라의 건축이 세계 건축의 주류에 편입되었다거나 거기에 걸맞은 저력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의 건축적인 토양이 비옥하고 활력이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서 커나간 건축인들이 베니스비엔날레에서의 수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땅의 건축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하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딪치는 현실은 우수한 학생들이 결국 건축설계의 길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든다.

건축의 길에 들어선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에게도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여유롭게 아름다운 건물을 창작할 수 있는 여유는 고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설계수가는 건축사들

의 삶과 꿈을 옥죄인다. 또한 다양한 건축 규제와 건축을 문화가 아닌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으로 인해 작품다운 작품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국 건축의 현실은 잇따른 국제 행사에서의 훌륭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의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한국 건축사의 저력을 믿지 못하는 사회적인 풍토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기념비적인 대형 건물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외국 건축회사들의 독무대가 되었고,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외국 하청회사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천신공항 등 많은 건축물들이 외국 회사의 디자인에 의존한다. 외국계 회사를 선호하는 건축주의 문화적인 사대주의를 한국의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나 몇몇 대형 건축물들 이외에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일상화된 건축의 디자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유럽의 작은 도시, 작은 골목에 위치한 아름답고 독특한 수준 높은 건물들을 마주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건물들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에도 건축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건축의 질을 건물의 연면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건물의 문화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건축주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의 건축도 시간을 갖고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세계 건축의 주류에 편입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작은 성과에 만족하여서 스스로의 실력을 높여나가는 데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6번이나 수상할 만큼 그 건축적인 기반이 튼튼하며 국제적인 위상도 높다. 한국 건축이 근래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주의 깊게 볼 성과를 내고 있으나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특정 건축 행사에서의 수상이 아닌 세계 건축계가 한국 건축디자인의 저력을 실제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세계 건축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_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글. 김성환_ Kim, Sung-whan
건축디자이너

땅이 가지는 의미

Topograpy of Terror
(Topographie des Terrors)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최근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 또한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나름의 언어로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다. 한국만큼 아픈 과거를 지닌 독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스처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또 기억해나가려 하고 있다.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Topography of Terror, Topographie des Terrors)〉은 나치 시절의 기록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설계공모부터 건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완공된 그곳의 의미를 짚어본다.

■ **걷어내며 걷는 도시, 베를린 그리고 〈Topographie des Terrors〉**

베를린은 지난 역사가 만들어낸 수많은 켜가 도시 공간 안에 묻혀 있다.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근현대역사의 수많은 흐름과 흔적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다. 〈Topographie des Terrors〉는 그 역사가 남겨 놓은 현재의 베를린과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30년대 이후 나치 후반기에 조직적으로 구성된 독일 정치경찰(Gestapo)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당시 제국 보안본부(Das Reichssicherheitshauptamt, RSHA)가 있던 곳으로, 현재 포츠다머 플랏츠(Potsdamer Platz)와 가까우면서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Marin-Gropius-Bau)가 바로 옆에 위치한 곳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업지역으로 사용되던 곳을 1987년 당시 베를린 건립 75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까지 세 번의 공모전을 통하여 완공되었다. 베를린에서 수많은 박물관 및 전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곳은 현재 "테러의 땅, 정범의 장소"로 일반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 **피터 줌터(Peter Zumthor)의 생각과 좌절**

피터 줌터(Peter Zumthor)는 1993년 당시 첫 번째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니멀한 건축적 어휘를 콘크리트 및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과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 안에서 빛과 그림자가 연속되는 켜(Layer)의 개념을 제안,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설계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초과된 것을 알고 자신이 제안한 비용에 맞춰 완공할 수 있는 회사를 찾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수 년 이상 베를린 당국과 공사비용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이 길고 긴 줄다리기는 15년이란 시간이 흘러 2004년 공모전의 코디네이터이자 독일 역사학자인 라인하르트 뤼럽(Reinhard Ruerup)이 명쾌한 한 줄로 마무리 지었고, 그는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물러나야만 했다.

"연방 당국이 수 년 전 신축 완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입찰된 가격 이상으로 더 이상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Die vom Bund vor einigen Jahren bewilligten Mittel werden für die Vorbereitung der Ersteneinrichtung des Neubaus nicht mehr ausgezahlt." - Reinhard Ruerup, 2004

이 발언의 저변에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미 위에 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투입이 될 경우, 그 본질의 의미를 뒤흔들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강하



2008년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대학에서 건축 및 도시설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며 Atelier Brueckner, Hgmerz Museumsgestalter Architekten에서 2년 동안 실습을 한 후 현재는 Rheinfluegel Severin에서 실무를 쌓고 있다.

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특정 도시 안에서 장소성이 갖는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독일인의 전형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재해석된 현실과 장소성**

이후 2005년 새로운 공모전에 제출된 309점의 설계안 중에서 23개의 본선 진출작이 선별되고, 심사를 통해 베를린 출신의 우르슐라 빌름스(Ursula Wilms)와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하인레 뷔셔(Heinle Wischer)가 공동 당선된다. 정방형의 2층, 연면적 3,500㎡ 규모의 이 당선안은 유리 파사드로 외부를 구성하고 있다. 철저한 기능 중심의 공간에서 구성된 동선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정방형 구조의 건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이 공모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공사비용은 2,000만유로(당시 환율기준 1유로≒1,500원), 공사기간은 2년이었다. 이 수치는 베를린 당국이 제시한 1,500만유로의 시공비용과 최소 500만유로/최대 900만유로의 실내공사비용의 상한선 안에서 충족되는 것이었다. 베를린 당국이 총 공사비용의 50%를 담당함으로써 쟁점은 일단락되었다. 2007년 11월 공사가 시작되어 종전기념 65주년이 되던 2010년 5월 8일 완공되었다. 과거 제국 보안본부가 서있던 자리에 남아있던 지하실 공간은 800㎡의 유리천장으로 덮인 전시공간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새롭게 자리 잡은 정방형의 2층 건물은 25,000권의 자료를 담고 있는 도서관, 전시실 2개관,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로 구성되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10년 〈Topographie des Terrors〉에서 처음 전시된 것은, 당시 제국 보안본부에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종사했던 7,000여명의 개인 신상정보였다. 노출콘크리트 공간에 전시된 이들의 정보는, 과거 제국 보안본부에 속해 있던 지하실 공간에서 희생 당한 15,000여명의 정치인 및 일반인의 모습이 전시되는 것과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가져온다. 특별한 구성이나 장치 없이 단순한 구조와 공간구성에서 전시기획이 크게 달라졌고, 이 전시구성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전시기획을 담당한 안드레아스 나흐아마(Andreas Nachama)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나치즘이 근대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쉽게 잊는다. Man vergiss leicht dass der Nationalsozialismus eine junge Bewegung war" – 독일잡지 Spiegel 2010. 5. 5일자

그는 이런 주장을 통해 과거가 후대에게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지, 또 역사의 한 장면을 담아내기 위한 건축과 장소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30년간 고민했던 자신들의 신중함을 피력하였다.





글. **이지현**_ Lee, Ji-hyun
건축디자이너

건축에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_ 전통유산의 현대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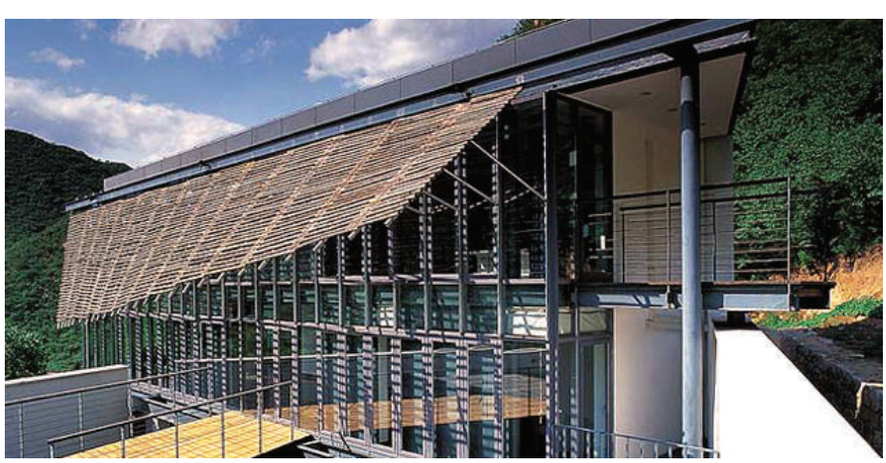
Relation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Architecture ; a Modern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Legacies

건축을 흔히 "관계의 예술"이라고 한다. 건물과 주변 공간과의 관계 또는 건물 안에서 친밀공간과 공용공간의 관계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개념을 전통과 현대라는 시공간의 연결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과거 유산과 전통을 수용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축적 시도는 글로벌스탠더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적 전통의 의미가 퇴색하는 오늘날 더 간절한 듯하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외국 자본과 첨단 기술의 급격한 도입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건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의 세 작품은 자국의 전통유산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일단의 경향으로 건축에서 과거(전통)가 어떻게 현재에 접목할 것인지 그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준다.

홍콩에 본사를 둔 로코 디자인(Rocco Design)의 〈변형된 코트야드 하우스 Distorted Courtyard House〉는 동양과 서양, 현대와 전통문화가 병합된다. 중국 건축의 전통적인 건축적 "유형 Typology"인 중정(中庭)이라는 개념을 현대적 사용자 그리고 지형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형한 흥미로운 예다.
만리장성 인근 베이징에 위치한 이 집은 전통적 마당 집의 "변형 또는 일탈된" 버전으로, 작가 로코 임(Rocco Yim)은 두 가지 의미로 전통으로부터의 "변형/일탈"을 설명한다. 첫째로는 사이트와 뷰(View) 방향의 일치를 준수하는 전통적 구성배치에서 벗어난 평면이며, 두 번째는 현대적 Holiday Residence 답게 외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 시공을 초월하듯 전통적인 대나무로 만들어진 지붕 형태의 "변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구현한 현대적 공간 개념은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는 데에서 연속성을 발견한다.



카이스트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전체적인 공간 및 사회문제 등에 뜻을 두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밀라노에서 건축/도시계획을 전공하였다. 지금은 international corporate firm HOK에서 주로 중국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디자인/설계 일을 하고 있다.



Distorted Courtyard House

전통과의 공존에 따른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양저우, 상하이의 북서쪽에 위치한 대나무 찻집(Tea House)이다. 이는 HWCD의 파트너인 중국 건축사 썬 웨이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전통적인 정원의 원리를 수용하여 자연 환경에 녹아들 듯한 중국 정원의 현대식 버전을 창조하고자 한 것이다. 수직으로 배열된 대나무는 때에 따라 벽이 되기도 하고 회랑이 되기도 하면서 "깊이" 있는 시각 효과를 연출한다. 회랑을 이루면서 대나무를 따라 세분화된 공간들이 호수에 비대칭적으로 놓여 있는 방식은 안쪽에 정자들이 배치된 양저우의 전통적인 조경공간 구성과 꼭 닮아 있다.
대나무로 이루어진 마당은 건물과 빈 공간의 단절 및 연결을 반복하면서 내부풍경을 물이 담아내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건물 형태는 오히려 빈 공간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단단한 재료인 벽돌과 대나무로 한 것도 전통과의 공존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현대건축 논의에서 활발히 떠오르던 파라메트릭 설계(Parametric Design)를 전통적인 건축언어에 도입하고자 한 시도가 있다. 이는 상해에 본사를 둔 Archi Union의 Philip F. Yuan 작품으로 청두(成都)의 중국 국제무형문화유산공원에 위치한 Lanxi Curtilage 클럽하우스다. 레스토랑, 안뜰과 전용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제조 방법의 텍토닉(Tectonic)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공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스케일의 중정을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전통적 중국 정원의 구성 방식을 따랐다. 건물 지붕의 실루엣은 산과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전통적인 경사지붕 문화를 암시한다. 마감재료로 중국 중정 집의 진한 청색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현대건축에 전통유산을 담으려 했다. 물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듯한 벽의 패턴은 파라메트릭 설계기술을 도입하여 얻어진 결과로써 이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중국(동양) 문화의 유산으로 보인다.

건축은 문화, 예술의 여느 영역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비약적인 세계화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전통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화 시도는 그들의 장구한 문화유산을 생각할 때 당연한 추세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독특한 전통문화 유산이 현대건축에 잘 융화되어 지나치게 표준화(획일화) 되어가는 건축계에 다양성을 부여할 것이다.



Lanxi Curtilage House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 ④

Special Series of Architecture Magazine: Regional Architecture ④

충청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Chungcheongnam-do Regional Architecture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여 보기로 한다. 그 네 번째로 충청지역의 문화와 건축을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 대담일시 : 2014년 6월 27일
· 대담장소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세미나실
· 지역총괄기획 : 이승용/ 목원대학교 교수

김형수 편집국장 : 이렇게 대전에 와서 충청지역의 대학 교수님 및 건축사분들과 충청건축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청지역은 세종시로 정부 기구들이 이전하면서 인구의 유입이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지역적인 위상 또한 날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정치적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담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이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해왔지만 대한민국이 지역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이고 또한 교통망과 통신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도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충청지역의 대담에서도 너무 차별화되는 정체성 정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충청지역의 건축적 환경과 특성을 편하게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지역건축의 특성과 건축에서의 실현과정

–김형수 편집국장



이승용 : 오늘 서로 나누고자 하는 큰 주제는 충청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주제 같지만 우리가 늘 숨 쉬고 있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이 그 답을 구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충청만의 건축을 고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 무언가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의 건축사들이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놓고 모이다 보니 충청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에 국한하여 지역을 생각하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건축학회의 경우도 대 · 세 · 충(대전, 세종, 충남)이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기회를 빌어 충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천안, 서해안까지 생각을 확대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갔으면 좋겠으며, 대화를 통해 주제의 답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최재인 건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 : 충청지역은 교통과 문화의 중심이며 행정복합도시의 배후로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건축적 어휘가 있으며, 여러 건축적 다양성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경상도 및 전라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문화적 · 역사적 특징이 약하며, 본심



대담자(가나다 순)

- **김대인** 건축사 / ㈜에이앤티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김형수**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장
- **신동안** 건축사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 **이기석** 교수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이경환** 건축사 / ㈜디엔비건축사사무소
- **이승용**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정진주** 교수 /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 **최현규** 건축사 / M.A.C.K 건축사사무소
- **최재인** 건축사 /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홍원기** 건축사 / 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을 잘 드러내지 않는 충청도적인 기질이 건축에서도 화려하거나 강력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조심스러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도는 은근과 끈기가 있는 성품을 지녔기에 건축적 표현이 무디고 투박해도 나름대로 충청도의 건축적 고민을 잘 표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도 양반이라는 표현처럼 점잖고 결코 남들과 비교해서 유별나게 튀거나 화려하지 않으며 실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또한 파격적이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조형을 찾으려고 공간을 왜곡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은 첨단 과학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대전 월드컵경기장 지붕을 전동으로 개폐되도록 하였으며, 한밭수목원에 세워진 무빙 쉘터 및 으능정이거리의 LED 스카이 로드 등은 대전광역시가 갖고 있는 과학의 정체성을 건축에 접목한 새로운 시도라고 봅니다. 만약 대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대전의 건축사사무소에서만 설계하고 감리한다면 '이 지역은 이렇다'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지만,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는 서울지역 대형 건축사사무소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대전 지역은 독창적인 정체성보다 다양한 건축적 어휘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승용 : 충청의 기질과 충청, 특히 대전을 예로 들어 건축의 특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북에서 활동하시는 신동안 건축사님께서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지요?

신동안 : 충북지역은 한반도의 허리부에 위치한 유일한 내륙지방입니다. 이곳에는 한강을 이루는 한강 수계지역, 금강을 이루는 금강 수계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하천 주변의 충적 지대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제공하였고, 지리적 위치상 삼국시대의 세력을 확장하는 요충지가 되어 삼국의 북방과 남방문화가 혼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중원문화권으로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건축은 불사건축, 유교건축, 관영건축, 주거건축, 누정건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건축에서 가장 명확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가 높고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충북북부지역의 주거건축은 폐쇄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낮은 평지로 이루어진 남부지역의 주거건축은 느슨하면서 개방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불리울 만큼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아 "달도 머물러 간다"는 영동의 월류정을 포함하여 누정건축이 많이 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역도 여러 지역이 그러하였듯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과거의 뚜렷한 기후, 문화, 풍경에 대한 지역성을 잃은 채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영동 월류정



이기석 :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청지역의 지리적, 인문학적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에 관해서는 신동안 건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천안 ·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리적, 자연 · 환경적 배경 먼저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이며 경부고속도로 상 서울 기점으로부터 약 83.6km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도시입니다. 또한 지역 내 경부고속철도(KTX),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 국도1호선 등 국토의 기간 간선망이 모두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서로는 장항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입니다.



천안아산역KTX역사

이렇듯 천안 · 아산지역은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 팽창 제한으로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지역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분교 및 수도권 거주학생들을 겨냥해 설립된 여러 대학에서 우수인력 또한 양성되고 있고, 반도체와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단지가 매우 발달한 것도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천안의 동부와 남부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규 발전의 축은 북서부의 평탄한 지형 쪽 즉, 아산 · 평택 쪽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천안 원도심 쇠퇴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아산신도시개발, 고속철도(KTX) 역사, 천안시청 이전 등으로 천안 서측지역의 비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배경 및 역사 · 문화적 자원을 말씀 드리면, 최근 20년간 수도권 분산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과 경부고속철도(KTX)역사 입지에 따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천안, 아산, 평택, 안성 등 아산만권 4개시 가운데서도 천안시의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충청남도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 억제정책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천안 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지방산업단지,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체 종사자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도 · 농통합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상 문제가 있는데, 도시공간구조가 신도시권과 구도시권의 2개 도시권으로 구성되어 이분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안~신시가지~온양~신창을 연결하는 연담도시권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독립기념관



온양민속박물관

이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로 우선 떠오는 것은 천안독립기념관, 유관순기념관, 아산 현충사 등이 있는데, 장소적인 의미는 있겠으나 건축물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는 미흡합니다. 오히려 이타미 준 선생의 온양박물관이 충청지역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흔하고 친숙한 재료인 벽돌을 이용한 외부마감과 과장되지 않은 온화한 형태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건축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축물을 통해 우리지역 건축 정체성의 작은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천안 · 아산지역을 대표하는 현대건축물로는 네덜란드 건축사 벤 판 베르켈이 설계한 천안갤러리아백화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이라 타 지역 손님이 방문하면 소개하는 견학코스인데, 충청권의 지역적 맥락을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어느 도시에 세워져도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적 해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지역 주변의 고건축물들을 찾게 되는데, 예산 수덕사, 추사 김정희 고택, 맹사성고택, 외암리 민속마을 등이 그 예입니다. 언제 찾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검소함과 절제미의 교훈을 주는 좋은 건축물들입니다.



천안갤러리아

이승용 : 앞서 이야기를 들으니 충청권 지역건축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네요. 특히 요즘같이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충청만의 건축을 고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 무언가를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여유의 건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건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성품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그 땅의 기를 담고 있을 것이며, 결국 우리가 설계할 때 이야기하는 대지의 특성이나 기후, 사용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충청도하면 그리 척박한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비슷한 듯한데, 충남과 충북은 자연환경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지 충청권 내에서도 여러 모습들과 특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로 규정짓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충청지역의 건축을 논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건축은 성품과는 달리 전혀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필지에 맞추어 건축주가 요구하는 최대의 용적을 넣

기 위하여 계획하다보면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성품을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지역건축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의 것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쉽게 이것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유를 보여주는 건축, 삶의 질이 높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축으로 우리 지역의 성품을 보여주는 과제가 있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정체성 논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개념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최현규 : 충청건축은 '무색무취'한 듯이 보이는데요, 역사 · 지리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충청권 건축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백제의 고도인 웅진성(공주)과 사비성(부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전무하다시피 하긴 하지만,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거나 백제 건축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일본의 고건축을 볼 때 상당한 수준의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고 세련되었을 백제의 건축이 잊혀지고, 복원하기 힘들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만 지역의 정서 속에 이러한 문화적 자생력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충청의 건축이 이렇다 할 차별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16~17세기 들어 기호학파가 성하고, 노론과 소론사이의 대립, 예송논쟁의 중심지역이 충청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의 지리적 특성은 영호남 또 한강 이북과 달리, 외세의 침략이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덜 받았고 적당하게 평야도 가지고 있어 지리환경이 양호했던 한편, 한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와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중앙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여러 대로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충청도에 다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서 생활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충청지역은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양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강 이남지역은 충청도를 거쳐 한양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충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누군가는 충청인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심성이 삼국시대 이래로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고 하는 이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인의 건축에는 그런 경계심으로 인한 긴장감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느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충청인의 심성이 유교적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양반문화와 지리적 안정감에서 오는 느긋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지역의 지리적 요건은 거시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이나 자연 기후적 조건이 안정적이었으나, 미시적으로는 넓은 평야나 낮은 산으로 구성되어 은둔하기 쉽지 않고,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덜미를 잡히기 쉽고, 그런 면에서 예학은 충청인이 연구하기에 딱 좋은 학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김장생, 송시열, 윤증과 같은 이들이 충청을 중심으로 예학을 논했지요. 〈논어〉에 보면 "예란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따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중을 묻는 것 역시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중보다 여러 대인관계가 가진 명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으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실천해야 하나 틀리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심성이 충청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청의 건축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 지역의 건축과 비교할 때,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며, 산이 아닌 평지에 많이 지어져, 수직적이기보다 수평적인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지역의 건축이 그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삶을 유지하기에 안정적이고, 지리적 · 공간적 갈등요인이 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경사면에 지어진 건축처럼 공간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면도 있으나 윤증고택과 같이 예학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주택의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공간적 질서로 잘 해석한 좋은 예라고 봅니다. 또, 돈암서원이나 계룡산 갑사, 서산 개심사 같은 경우는 백제로부터 이어지는 한국건축의 질박한 모양새가 잘 나타나 대교약졸한 소박미가 느껴지는 지역의 대표 건축물이라 생각합니다.



윤증고택



개심사 심검당



이경환 : 충청지역의 지리 및 역사적 특성을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대담을 준비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자료를 통하여 조사를 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특성에 몇 가지 첨가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덕 연구단지, 오창 과학단지가 개발됨으로써 중부권의 새로운 신산업지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60~70년대 관공서 건축을 중심으로 현대건축의 태동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천을 덮은 홍명상가와 주거단지개발, 본격적인 도시산업화, 한밭운동장(공간건축/1979), 중구청(구 시립도서관), 대전역사(이상순/1960), 시민회관(문화동) 등이 지어졌으며, 또 이때 대흥동성당(공영토건/1963), 정동성당(1982년 철거), 대동성당, 유천동성당(박만


대흥동 성당


대전엑스포

식/1973)등 종교건축이 활발하게 태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90년대는 서울올림픽(1988), 대전엑스포(1993)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건축양식의 세계화를 가져왔고요, 교보 대전빌딩(Cesar Pellis 기본안/1985), 대전대학교 학생회관(이재성+유창열/1986), 한빛탑(한재원+인터디자인/1993), LG화학 중앙연구소(김태수+창조건축/1997) 등이 있습니다.


대전 교보빌딩


엑스포 한빛탑

반면 근 · 현대화를 지나오며 건축의 지역성과 역사성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 · 역사적인 특성이 없는 건축과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 부동산이 된 건축물, 그리고 생활터전으로부터 멀어진 원도심의 슬럼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지역은 수용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색깔을 표현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지역 건축은 문화와 풍습, 역사적 배경이 주는 지역성의 이해를 통하여 건축이 생활에 주는 영향을 인식하고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적 노력, 그것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도시 이벤트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최현규 건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역사를 기반으로 특히 백제 등에 근거한 것을 찾아가기 위해 남아있는 좋은 것이 없다는 것


백제재현단지

입니다. 백제재현단지도 상상을 바탕으로 한 것 같고요.

최재인 : 맞습니다. 백제 역사박물관 설계를 금성건축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는데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제는 유물이 많이 없어서 유물이 적은 박물관을 위해 전시 방법도 IT 기술을 접목하여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를 찾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학계가 주도하고 건축사들이 협조하면, 그리고 관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인 : 만들어 간다고 하시니 월드컵이 생각이 나네요. 2002년 월드컵 8강을 대전에서 치룬 후 주변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 디자인입니다. 축구공이 가로등에 주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이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역성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생각해 보니 특별히 생각이 나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앞에 이경환 건축사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간적으로 진행되었던 건축의 모습이 그 지역건축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찾아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독일 베토벤 문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지역의 정체성인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지역의 문화를 찾아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대전월드컵경기장

충청권 현대건축을 살펴보면 별다른 특징 없이 현대화에 따른 도시발전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때는 모방건축이 주류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보수적인 건축 재료의 사용, 일률적인 입면 표출, 안정적인 사고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월드컵 가로등과 같이요.
한편 충청과 달리 근대 시기에 발전하게 된 대전의 경우 철도부설과 함께 계획적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산내 쪽을 잇는 남북축으로 계획되었다가, 충남도청이 세워지면서 현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도심에는 도청을 중심으로 관공서와 공공업무시설, 극장 등 상업

시설이 세워지면서 대전의 현대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이후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실험적인 건축물 등 대전 건축문화의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둔산지구, 서남부권 형성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위주의 도시발전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일으켜 사회 · 문화적으로 신 · 구도심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대전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기반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원기 :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남 전반에 있어 모두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흐름에 맞춰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든 유사한 형태, 재료, 색채가 전국적으로 표준화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료를 보더라도 제주도에서나 어울리는 화산석(현무암) 등이 이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료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의 자재생산업체로 하여금 개발되고 사용되면 더욱 좋겠지요.

외국에 나가면 역사적 건물들이 관광지의 주요 테마입니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모두 관광코스로 이것들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충청권은 도농 복합도시가 대부분이었고 서해안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역사적 유산의 주요 관광벨트로 구성되었는데, 첨단산업단지,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 공업단지가 세워지고 충청남도 청사가 충남의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도시 및 충남 전체의 모습이 확연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전체가 도시화로 변하는 추세는 지역주민에게 좋은 현상일 것이나 예부터 충청은 충절의 고향, 양반의 고향 등 선비와 독립투사 등이 많이 배출된 지역인데, 이러한 역사성이 점차 묻혀가는 추세가 우려됩니다. 각 지역 간에도 조금씩 달랐던 방언이 이제는 도시화와 함께 줄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함께 신도시가 발전하고 구도심이 쇠락하는 인구 이동현상이 각 지자체의 중요한 행정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건축적 도시계획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이 지역의 각 대학이 연합설계를 추진하는 등 대학에서의 관심은 이미 시작 되었으나 행정적으로나 주민의 협조가 부족하여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건축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사적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건축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진주 :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은 온화하거나 별 색깔이 없어 건축도 온화하거나 무색무취하다, 그래서 건축의 정체성을 말하기가 솔직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서해안까지 연결된 충남권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북지역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각 국의 각축장으로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국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었죠. 그로 인한 수많은 전쟁의 영향으로 충북지역 주민의 성향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결코 온화하지 않고 차라리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북지역 건축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른 아이덴터티를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건축 및 교육건축 전공자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북의 청주시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청주시 원도심에 그 선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국보 제31호 용두사지 철당간에 있습니다. 이 철당간은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무려 약 1,05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철당간은 현재 21칸의 철통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래에서 3번째 철통을 보면 청주시에는 지금의 국립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양각되어 있어 '청주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는 첫 번째 주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용두사지 철당간과 양각된 글자

현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청주시는 한국교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사범대학교(현 서원대학교) 3개의 학교에서 교사를 배출해내고 있고, '충북지역 전체 인구수에 비해 대학교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지역은 예전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충북의 중심 도시였던 청주시의 이러한 배경은 충북 전역에 은근히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건축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보다 관심이 높았다고 할 수 있겠고, 아니, 그래서 더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초 · 중 · 고 학교건축의 경우, 20여 년 전부터 모두 공개현상설계를 통해 건축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설계비나 공사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학교건축 수준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평면과 기능을 충실히 살린 충북 오송고등학교

이러한 공개현상설계는 대학교에서도 매우 빨리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최초로 현상공모(교육시설 중에서는 전국 최초 국제공개현상설계)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를 통하여 세워진 것으로서, 충북 건축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충북 도내 건축인들과 서울지역의 건축인들이 경쟁하는 계기를 마련한 서울건축(김종성)의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권 전체는 아니더라도, 충북의 학교건축은 분명히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래야 한다는 지역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충북 건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육건축의 차별성 및 우수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충북 건축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충남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찾아 지금이라도 대전, 충남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용 : 과거를 기반으로 충청만의 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진주 교수님이 얘기한 지역별 특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이것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건축을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면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건축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반면 충청지역은 수용의 문화라고 이경환 건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소위 충청의 양반 기질과 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대전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네요. 이러한 수용과 다양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나 내포신도시에 세워지는 건축물에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해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던 내용 중에 모방이나 유행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용과 다양? 억측이겠지요.(웃음)
이렇게 충청권 지역건축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있다면 건축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중앙정부청사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전과 서해안 개발 등 '지역개발 이슈에 따른 지역건축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개발과 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및 서해안 개발은 충청권에서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이전은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지역건축사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며, 또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청사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전과 서해안 개발 등 지역개발 이슈에 따른 지역건축사의 역할

–김형수 편집국장

이경환 : 세종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전략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으로,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 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하였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도시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개발방향입니다.

최현규 : 네 맞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환상형 구조의 도시로 도시의 중심을 비워 그 중심공간(중심녹지)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탈중심화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통해 10개의 안을 선정하고, 이의 장단점을 취합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여러 실험적인 시도들이 가미되어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도시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조감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개념 국제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데이비드 하비의 탈근대적 발상이 초기 도시의 틀을 짜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초기 이념이 현실 속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적 영향, 부동산의 문제, 공무원의 이주 문제, 도시교통의 문제, 밀도의 문제, 주변지역의 난개발 등, 완성되기까지 여러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세종시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종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앞서 언급한 탈중심화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탈중심화란 거대권력을 지양하고, 미시적 생명력이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전체의 힘이 하나의 힘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 즉 동등한 힘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앙권력이 세종시를 만들어가고 있기는 하나, 기존 조직이 가능한 손상되지 말아야 하며, 손상되더라도 치유되어 다시 재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세종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세종시 건설단계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이나 지역건축의 활


세종시 개발계획평면도

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전체적인 건축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메이저 건축사사무소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프로젝트까지 관여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건축사들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중심화의 이념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구성하는 조직-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직들을 재구성해나가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힘들고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건축사들은 지역민들과 호흡을 맞추어 도시행정에 지역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중앙정부는 건축적 디자인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원주민과 거주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작은 조직들, 힘없는 지역건축사들도 세종시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능동적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종시 도시디자인에 담긴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신동안 : 최현규 건축사님의 말씀처럼 세종시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 이전과 함께 세종시가 구심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서 충북지역 또한 산업기반 혁신을 통한 균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처음 그려 놓았던 계획도시의 청사진과는 달리 건설되고 있는 것이 현재 세종시의 모습입니다.
2014년 연말 15만 인구를 예상하고 있고, 향후 50~80만 인구목표를 가지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현재 중심행정지구를 비롯해 첫마을을 기점으로 순차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그동안의 개발과정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다시금 되돌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건축사들의 역할'에 관한 얘기인데요, 세계 초인류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경우 많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계획 개발된 것은 앞서 두 분 건축사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건축계의 목소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선, 색채, 규모 등 상세계획내용 수립 시 건축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는 역사와 문화도시 공주, 교육도시 청주 그리고 첨단과학도시 대전 등을 지리 및 지역적 기반으로 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적 · 문화적 기반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지역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의 논리로 영세한 규모의 지역건축사들을 배척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타 시 · 도가 그러하듯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진주 : 신동안 건축사님께서 충청권 전반적인 것에 걸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와 충청뿐만 아니라 충북과 관계되는 내용에 관하여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세종시 건설에 따른 국토발전축 구상 중 충북의 입장에서 주목되는 발전축은 기존 경부축, 호남축의 통합 교차점(오송, 청주공항)을 포함하고 있는 중부동서축입니다. 향후 서해안 · 새만금-세종시 · 오송-청주 · 청주공항-진천 · 음성-충주 · 제천-원주-강원권-동해안을 연결하는 중부동서축은 국토계획의 중요한 수평적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그 중심에 선 충청권은 세종시의 미래와 연계되고, 충북의 미래는 동서축의 성공 여부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토개발계획인 세종시 건설이나 중부동서축 발전축 구상에서의 활발한 개발이 예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역의 모든 건축사들에게 그것으로 인해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개발계획선상에서 충북지역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건축사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건축사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일정 규모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한 규모의 지역건축사들의 배척은 적극적인 제도 수립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석 :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조성되면서 충청권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주변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충남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확대해서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안의 건축사사무소 중 일부는 작년 초반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은 서해안 개발의 기대감에 따라 당진, 서산 쪽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이전한 것과 비슷한 현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건축사의 역할은 일거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어장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의 지역 즉 공동화 현상 등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기존 지역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세종시의 경우 관공서 및 공공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들은 서울지역 건축사사무소에서 거의 다 설계가 되어 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건축사사무소들은 협력관계로 참여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관업무 및 실시설계 등의 업무를 지역 사무소에서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역건축사분들과 지역대학의 교수님들이 더욱 더 지역의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먼저 고민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설계 초기단계에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거리 부족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일이 없을 땐 오히려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각종 지역봉사활동, 지역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새로운 모색을 위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설계강의 나오시는 모 겸임교수님은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꾸준히 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를 찾아 목조건축, 흙건축, 친환경건축, 풍수지리에 명리학까지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대중을 위한 건축교육 봉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건축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인식도 같이 높아져야 지역의 건축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대학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초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승용 : 말씀을 듣다보니 세종시 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건축사의 역할은 이러한 개발에서 꼭 계획 등에서만 고민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권은 앞에 얘기하신 것과 같이 많은 건축들이 수도권에서 계획되고, 하물며 시공까지 독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건축사와 시공 능력이 풍부한 업체가 하면 더 좋은 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지만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건축사의 역할과 참여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여야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생각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건축'을 고민해 봅니다. 사실 도시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일상의 건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들은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트렌드에 따라 계획되고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체불명의 건축들이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아쉬운 것은 평범한 건축은 마치 디자인이 되지 않은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서구의 도시나 마을을 가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고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 공원의 구성물 하나하나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삶의 공간을 사랑하고 가꾸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역건축사의 역할은 진정한 충청의 도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지역의 건축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즉 진정한 지역의 건축이 곧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일상의 건축을 고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건축이 충청 건축의 정체성을 잠재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지역건축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 : 전반적으로 이승용 교수님과 생각이 비슷하고요, 지역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정책의 큰 그림 안에 실질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건축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얘기한 일상의 건축과 같은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둘째는 지역개발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비평적 견지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얘기된 지역성과도 일치하겠지요. 그리고 셋째, 거시적으로는 충청권의 지역환경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성은 외부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환경의 특징에서 발산되는 것이라 지역건축사가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건축 프로젝트에 심어지는 대지환경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심도 있게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의 건축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우리들을 위하여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대인 : 세종시와 내포신도시가 충청권에 자리 잡으면서 긍정적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권은 세종시, 내포신도시, 충청권 철도망구축 등의 개발로 충청지역 균형발전과 건축부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전을 통하여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로 도시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어 타 도시의 도시개발에 있어 미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내포신도시 조감도

그러나 이러한 도시규모의 급속한 확장과 인구유입으로 인해 지역의 사회, 문화적 가치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의 도시, 역사, 문화적 맥락과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을 통해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자체의 움직임과 진정성을 가진 건축사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사들은 시대의 흐름, 지역특성에 관한 건축적 지식, 도시재생과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원기 : 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세종시의 행정도시와 충청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서해안 개발의 전제에서 충청권은 많은 인구이동이 발생하였고, 각 지자체는 인구 유입에 따른 신도시 개발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건축사도 그 수요와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역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조언을 듣고 함께하여 지역의 문화 및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재인 :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의 대형업체와의 컨소시엄입니다. 즉 충청권 자체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

니고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건축사사무소도 대형화되고 전문화해서 서울의 업체와 실력이나 능력에서 동등한 여건을 갖추면 더 많은 일들을 우리 충청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는 우수한 건축학과 졸업생들을 키워내고 기업은 채용을 많이 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것이 절실하며, 이렇게 지역에서 키워낸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패러다임 변화(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에 따른 충청권 원도심의 자산과 바람직한 재생 방향

–김형수 편집국장

이승용 :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기석 교수님이 생각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석 : 저는 우리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이하 충건연)의 활동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소재 건축 및 도시계획학과 교수님들과 충남지역 건축사분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산하 연구단체로서, 매년 주제를 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원도심 재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충남도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지역대학 학생들과 교수님, 지역 건축사님들이 각 대학 학생들의 설계 멘토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010년 11월 충건연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제가 천안 명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2011년 5월에는 천안 명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한 · 일 도시건축 워크샵이 일본 메이지대 토시야 야마모토 교수(주제: 마을 만들기의 실천)와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셨던 배경동 박사(주제: 도시 재정비의 실상)을 모시고 천안 원도심에 있는 교회 강당에서 특강과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12월 충건연 심포지엄에서는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주제: 기성 시가지 정비에서의 도시재생방향) 특강 및 천안 명동 원도심재생과 관련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연합설계안 발표(공주대, 남서울대, 선문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가 있었고, 천안 시청로비에서 작품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11월 충건연 심포지엄에서는 당진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델코 컨설팅 최민성 박사(주제: 구상권 개발방식) 특강 및 당진 원도심 재생을 위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연합설계 작품 발표 및 전시(공주대, 선문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가 당진시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는 당진시장님과 건축과장님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지를 받아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공주 원도심 재생을 주제로 지역대학 (공주대, 남서울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학생들이 설계작업을 진행하여 공주박물관에서 발표 행사를 가졌고, 고마예술센터에서 설계작품 전시를 하였습니다.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워크샵 및 전시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지역대학 학생들의 연합설계 진행을 통하여 충남도내 각 도시의 원도심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충청권 원도심의 자산은 각 도시마다 특색이 다르므로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기존 도심이 갖고 있던 역사, 문화적 자원부터 재래시장, 좁은 골목길, 낡은 건축물, 낡은 벽돌 한 장 등도 모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연구한 바 있었던 천안 명동패션거리를 예로 들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와 편리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요소로는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원도심인 명동 패션거리에는 개성식당이라고 충건연 회의를 자주 하던 식당이 있는데, 주인아주머니 음식솜씨가 아주 좋은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알아서 준비해 주시니 메뉴 선택의 고민이 필요 없는 곳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몰라서 안 찾아오고, 나이 지긋한 단골손님들만 꾸준히 찾아옵니다.
원도심 내 이런 숨은 명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부러 충건연 심포지엄 진행을 위한 준비 회의를 할 때

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에서 자주 회의를 하였답니다.(웃음)

이승용 : 사실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원도심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너무 자랑을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스스로 밝히시네요. (웃음)
공모전을 보면 항상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장소성이고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를 하다보면 건축계획 관련 규모 분석도 있지만 그 무언가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장소나 기억 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것들이 모두 설계의 근거 및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원도심의 건축물이나 공간들은 정말 중요한 건축적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모든 도시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그 자체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모두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신도시로 이주하고 또 이곳으로 자본이 집중되어 원도심을 지키고 있기에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형마트 등에 의해 재래시장이 침식 당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도심을 지킬 것인가,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정말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치에 관한 공유입니다. 사실 모두들 원도심의 자산적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에 비하여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그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을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족한 것? 아마 이것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편리한 교통과 주차공간, 깨끗한 시설과 거리 등, 한편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신도시라고 해서 꼭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있고, 거리의 많은 쓰레기, 그리고 건물을 뒤덮고 있는 간판들 모두 신도시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결국 신도시나 원도심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도시에 모이는 이유는 아마 아직은 깨끗한 건물 및 시설일 것입니다. 원도심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조금만 노력하면 원도심을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소호라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리 잡으면서 다시 살아난 구도시라고 봅니다. 작은 건축들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면서, 또 거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생에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흥동 문화거리가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뉴욕 맨해튼 소호

최현규 : 말씀 나누는 것을 듣다 보니 어릴 적 대전의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저 같은 경우 대전에서 태어나 학업과 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서울에 있었던 것을 빼면 대부분의 삶을 대전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 일제시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과 대전역을 잇는 중앙통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라기보다는 계획도시의 면모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역 북측의 소제동 등 원도심 주변지역의 일부는 난개발 되듯 개발되었으면서도 골목길의 형태가 많이 살아 있어 자연적으로 조성된 마을의 형태로 운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중앙통 주변으로는 중앙시장,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거리와 같이 둔산 신도시에서는 느끼기 힘든 원도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좀 멀리 걸으면, 한밭운동장도 있고, 예전 동화극장과 같은 동시상영관도 기억합니다.


대흥동 문화거리와 스카이로드

도시재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도시민이 가진 기억의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같은 사업은 오염되고 취약한 도시 구성요소를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기는 하였으나, 도시민들의 기억 속에 있는 대전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함께 즐기던 천변 포장마차와 같은 자연스런 도시구성 요소도 나름 의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중앙극장이나 아카데미극장과 같은 극장, 에펠 제과점, 사리원 면옥, 대흥동 성당, 육중한 한국산업은행, 충남도청사, 선화동이나 대흥동 뒷골목의 아기자기한 상가건물들, 한밭운동장, 보문산 케이블카 등이 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전 시민들은 다른 더 좋은 기억들이 있을 테고요.....


구 충남도청사

신도시에 있는 우리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의 기억이 앞으로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면 미래의 이곳은 지금의 원도심과 같은 원도심이 될까요?

이승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도심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과거와 상관없는 새로운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기억들이 축적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새로운 건축과 긴밀히 연결되고 재조직되어 만들어지는 도시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전 구도심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둔산신도시와는 다른 시민들의 애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도의 소도시도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공간 구조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곳에 살고 있는 구성민들을 연구하고, 그 구성민들의 필요에 맞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초로 다시 새로운 판을 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주도의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시란 도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아름다운 도시를 가지고 싶다면 도시민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가질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개도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재원을 들여 도시를 가꾸어 놓더라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개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건축에 관련된 교육공간이나 시민강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안 : 원도심을 재생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시민의식이 고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꽤 의미있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도시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주택수요로 저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이었지만 1980년대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25층 이상의 대규모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산업 및 건설 경기까지 좌지우지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신도시에 대한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그에 따른 원도심 슬럼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도시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많아진 게 사실이며, 이는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다시금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현대도시는 Reconstruction(재건축)과 Redevelopment(재개발)이라는 전면적 개발방식에서 Urban Regeneration(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노후, 쇠락해서 공동화된 도심에 지역적 아이덴티티 즉, 그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가미한 친환경적, 산업 · 경제적 그리고 사회 · 문화적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아이덴티티 즉 지역성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85만 통합청주시가 발족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 몇 가지의 주요 관점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 · 농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외곽개발을 억제하고 도시는 도시스럽게, 농촌은 좀 더 농촌스럽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즉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되는 계획개발이 되어야 하겠으며, 셋째는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계획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주의 경우 읍성을 재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우리고유의 음식문화인 한식이나 삼겹살 등을 콘텐츠화하여 타운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것, 그리고 약전골목, 농방골목 등 근대적인 역사성을 수반하는 지역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주 : 지역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충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청주에 40여 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단지가 등장하였습니다만, 그간 대도시가 없었던 충북지역의 인구 및 경제규모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고층 아파트단지를 수용하였고, 이후 지금까지도 충북 전역에서 고층 건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변이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충북지역 도시들의 입지와 형태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식이 도민들의 DNA와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건축사나 교수들이 무분별한 도시의 과대 팽창과 수직적 적층보다 충북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아이덴티티를 도시의 구조와 건축에 고집스럽게 반영하고 유지하려고 했었던 건축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까지도 반영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여러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교통 및 물류의 요충지에 위치하면서 지방 거점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시대적 가치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지역별 도시의 독특한 사회문화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려한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채 충청권 각 지역의 우수한 자산으로 지역의 심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지역의 개발 및 재생을 위한 차별적인 노력보다는 대도시 지향형의 행정적 우선정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화된 도시 운영 및 관리 체계는 충청권 지역의 도시문화구조와 역사적 자산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법으로 도시 형성에 가장 중요한 활동 주체인 지역의 주민,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기존에 형성된 도심의 보전 및 노후화된 환경의 재생을 효율적으로 개발 ·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재생 수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도심과 구도시를 재생해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청주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BK21; 주민과 함께 지역거주환경의 보존과 재생–청주공방 창간호

BK21사업(팀장:김태영 교수) 연구를 오랜 기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 · 행정 · 전문가 파트너쉽 구축', '주민참여와 지역만들기', '보전과 재생프로그램', '노후화 정량평가와 관리시스템' 4가지 영역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중 · 소도시의 도시개발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획일적인 신개발 정책 위주의 개발보다 기존 지역거주환경의 보전, 정비, 유지관리 및 재개발의 형태 및 재생 등에 관한 방식과 수법을 제시해 지역의 도시문화 창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원기 : 앞서 지역성과 함께 도농의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도시에 집중하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패러다임은 그만큼 농촌의 붕괴로 이어져 도시계획적으로는 도 · 농의 문제이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는 무차별적인 신도시개발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은 국토가 가장 많이 변화한 지역 중 하나인데 대도시들이 새로 조성되고 공업단지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 자연히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고르고 다시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은 과거 도시계획적 건축법에 의해 개개의 건축물이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의 지구단위 규모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과 도시환경에 맞추려 하면 각 개인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은 원도심의 문제를 현재의 도시계획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은 현재의 도시환경에도 맞춰야 하지만 원도심에 맞는 관련법을 재정하고, 도시계획을 세워 주민의 협조와 함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인 : 원도심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경우는 2006년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지만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고 정책적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많은 부분이 수정 · 보완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원도심은 근대건축물이 건축되면서 성장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대건축물의 발자취를 통해서 원도심의 문화에 어떻게 하면 어우러질 수 있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특색있고 역사적인 곳으로 재생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은 지양하고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고려한 소규모 단위의 개발 등을 통한 현실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흥동의 문화의 거리와 가로수 길 그리고 인동 인쇄, 한방거리 등 대전시민의 삶과 향수, 추억이 깃든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재인 : 올 10월이면 대전 문화동 시민회관자리에 대전 예총 산하 8개 관련협회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운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게 시 정책을 추진한 것은 다른 도시의 구도심 공동화 대책과 차별화 되었으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에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은 골조 공사 중이고, 전통기능 보유자들의 터전인 "전통 나래관"은 이미 준공이 되었으며, 중구 으능정이 거리의 "스카이로드"는 이미 대전의 명물이 되어 젊은 층에게 좋은 만남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로드


효문화진흥원

또한 안영동 뿌리공원에 세워질 "효문화진흥원"은 전국 유일한 효 테마공원의 중심 건물로서 대전시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이란 시대상을 상징하는 종합 예술이고, 그 시대 기술력의 결과인데 특히 공공성을 갖는 건축물은 기념성과 상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를 달리하며 변할 수 있지만 설계자의 좋은 철학과 시공자의 정성을 다한 품질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시대흐름에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보존됩니다. 대전은 유럽처럼 오래된 건축물로 관광도시가 될 수 없지만,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로 도시정체성을 만들어 가다보면 대전만의 특성이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시에는 많은 환경적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축 관계자들은 건축물 디자인과 건축시공 품질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있는 건축물을 비롯한 모든 구성물들은 시대적으로 이미 그 자체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에 부응하는 건축의 가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경환 : 전반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도시패러다임이 개발논리에서 재생의 논리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원도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즉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 · 경제기반의 집단이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낡았지만 의미 있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전의 한밭교육박물관, 창작센터, 대전갤러리 등은 인프라에 기능을 새로 부여한 적절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공간과 상업공



창작센터

간의 거점을 연결하여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은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통된 계획방향을 설정하여 공공기관, 주민 및 사업자 등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며, 경관 및 가로등 정비, 가로 및 보도정비사업, 축제 및 이벤트 사업 등의 시스템을 선행적으로 구축하여 열악한 물리적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여 개발과 재생의 균형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로 영국 맨체스터는 도시재생을 위해 '맨체스터 파트너쉽'(공공부문, 민간부문, 주민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뉴 이스트 맨체스터'라는 도시재생회사, '비컨즈'라는 주민조직이 같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파트너쉽은 사회 불균형을 개선하고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청소년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도시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미래 충청권 건축의 모습을 위한 행보

–김형수 편집국장

이승용 : 미래라고 하면 '밝다' 또는 '어둡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밝은 면은 우리 지역의 많은 건축사들이 정체성에 관해 계속해서 의구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하고 있어 전체의 생각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 대전건축가협회 회장님(최재인 건축사)이 계시고, 학회 회원도 있고,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사들도 계시니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마당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두운 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경제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금전적인 것을 고려한 경제논리는 우리의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경제논리! 지역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가치로 본다면,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본다면, 이것은 후대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사가 지향하고픈 건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축주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것에 여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그 가치에 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당사자가 되면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건축사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리고 건축사들도 건축주를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것을 개선하여 어두운 면을 밝은 면으로 전환시켜야 겠습니다.
또 우리의 건축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각종 규제일 것입니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충청의 것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이러한 지침을 만들 때 지역건축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중앙에서도 지자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제의 개편이 요구됩니다.
충청건축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미 이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에서 어두운 것도 모두 밝은 면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최재인 : 네, 맞습니다. 더구나 건축의 미래는 자본과 행정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충청권은 서해안 시대에 발맞추어 경제력이 신장될 것이고,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권 건축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최현규 : 근래에 들어와 '건축의 지역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는 회의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현재에도 지어지는 많은 건축물들이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관점은 자칫 시민들을 정서적으로 건조하게 만들고, 획일적인 삶으로 만들어 다양한 삶의 체계를 훼손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건축을 여전히 형태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형태이고, 주요한 많은 건축물들은 모두 특정 대형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고, 한 단계 비싼 고급 건축물들은 외국의 유명 건축사들의 손에 설계되니, 그 안에 지역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건축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역건축의 문제를 우리는 사람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마을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공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는 작업, 도시가 관이나 대기업과 같은 조직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합의를 하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도시나 건축물들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그들만의 건축이 되고, 그들만의 도시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달라 자연환경이 다르고 사는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형태의 건축이 되고, 똑같은 조직의 도시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도시는 서로 달랐던 것은 아닐까요? 문제는 그것을 그 공간에 사는 사람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 탕정 트라팰리스

그런 면에서 여러 개발상황에 노출된 충청권지역의 건축이 부동산 개발이나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보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호 소통을 해주는 역할이 건축사들의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충정건축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기석 :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을 보니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웃음) 충청권 건축의 미래는 신도시 개발로 건축화될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고, 이렇게 모여 한 목소리를 낸다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건축에서 충청의 건축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기념비적, 이기적 건축이 아닌 배려의 건축(공공성)과 일상의 건축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안함을 주는 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권 대부분의 도시는 도 · 농복합도시의 형태로 도시공간구조가 혼성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탕정 트라팰리스를 밤에 보면 강남의 어느 주상복합건물군 앞에 와 있는 듯 한 착각을 하게 되지만, 다시 주변을 돌아보면 논이고 밭입니다. 또한 각종 산업단지와 농지가 혼재되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가 이 지역의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이 타 지역에 비해 더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와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가 오히려 더 특색을 잃게 만드는 지리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가 장점이면서 한편으로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청지역의 미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지역의 정신과 문화, 지역의 재료, 지역의 산업과 연관지어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큰 그림도 좋지만 전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작은 부분으로서 앞서 얘기했던 일상의 건축에서 답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답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대인 : 이기석 교수님 의견에서 일상의 건축을 통하여 충청의 건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풍습, 역사적 배경에 특색 있고 현대적인 건축을 접목하여 도시의 재생과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점에 대하여 규범이나 토론 등이 부족하여 건축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무분별한 건축물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정립하고 참고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건축사들과 교수님들이 지역건축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공동의 지향점을 정립하고 충청지역의 발전과 건축지표 그리고 규범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석 :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기념비적, 이기적 건축은 충청의 건축이라기보다는 김대인 건축사님의 의견대로 그 시대 건축의 미래 지표로서 표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충청지역의 건축을 만들어 가는 기본 틀이며,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의 건축에서도 정체성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원기 : 충청권은 산과 들이 많이 존재하고, 바다가 있는 지역이고 역사적 유산과 관광 인프라도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잘 관리하면서, 신도시의 개발은 개발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도시의 형태를 충실히 갖추도록 하는 데 단기간에 모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채워가는 충청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건축은 주거수요가 많아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는 수요예측의 통계를 갖고 공급의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남겨져 있는 개발대상부지나 개발예정지를 당분간은 비워두어 후세에 좋은 도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동안 : 전반적으로 충청 전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충북에 국한해서 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나라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중부권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으며, 충북은 현재 신수도권 중심에 위치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슬러건 아래 오송의 바이오밸리와 증평의 솔라밸리, 청주의 항공정비복합단지로 최첨단 융복합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에서도 여러 기술이 응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복합부분과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기술이 핵심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미 관련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건축은 에너지 관련기술과 생태적 기법이 디자인 못지않은 핵심 요소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맞춰 에너지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기후에 맞는 패시브 디자인을 살린 건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조감도

정진주 : 충북에서 구상한 미래 비전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을 권역별 벨트로 묶어 특화 또는 상생 발전시키고 건축도 이와 발맞추어 가자는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한 신동안 건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구체적이고 폭넓은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너무 거창하고 막연해서 그런 질문에 부합하는 대답이 될지 걱정도 들지만, 저는 충청권 건축, 아니 우리 건축의 미래에 대해 조금은 소프트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의견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학교건축 및 교육건축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모 건축사사무소 임원이 고등학교현상설계 계획의 자문을 요청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3층과 4층에 '표현의 무대'라는 공간이 있어서 무슨 공간이냐고 물었더니, "모르세요? 요즘 학교 설계 트렌드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후 긴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트렌드'는 동향, 추세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말한 학교설계 트렌드는 '카피'로 들려왔고,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른 학교들에 나타났다고 학교 수준이나 지역, 각 학교에 처해진 개별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대화는 학교건축뿐만이 아닌 모든 건축과 그 활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권 건축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미래를 구상할 때는 반드시 현재의 처해진 상황을 성찰하는 자세가 먼저 요구됩니다.
우리 충청권 지역에도 전국을 동시에 비슷한 건물과 도시로 카피(?)해 가면서, 요즘 시대의 건축은 이렇게 지어야 하고, 그것이 트렌드라고 하고, 시대적 ·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건축과 도시의 발전적 방향까지도 제시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신 각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공부하고 충실히 반영하고, 그 바탕 위에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구상이 반영된 건축 활동을 실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충실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승용 :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충청지역의 경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충청의 건축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북은 방향을 잘 설정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 : 최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의 중심이 충청권 건축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의 충청권 건축이 새롭게 생성되고 재생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정책 아래에서 근현대에 실행되었던 건축의 글로벌화를 답습할 우려도 있습니다.
개발정책과 비평적 견지로 균형있는 권역발전을 이루어가고, 거주민과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건축의 특성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모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충청지역의 건축에 대한 고민들이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건축사의 역할을 건축사 개개인이 인지하고 수행한다면, 타 지역보다 좋은 여건에서 충청권 지역의 건축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승용 : 이상 충청권 건축의 정체성과 지역건축사의 역할, 그리고 미래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로 진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것을 토대로 지역의 건축인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논의를 통하여 충청지역건축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청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란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신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며

김형수 :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도의 건축적 환경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담의 내용이 매우 많으나 가감 없이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홍원기 Hong, Won-gi / 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2008 충남건축문화제 시행위원회 위원장,
2009 · 2010 충남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 부원장,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충남건축사회 이사
천안지역건축사회 부회장 역임, 현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이기석 Lee, Ki-seok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로재, ㈜창조건축, ㈜김영준도시건축
㈜KDA그룹에서 실무, 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사)대한건축학회 대전 · 세종 · 충남지회 평의원, 현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 이사
2013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이승용 Lee, Seung-yong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삼우설계에서 실무, 한국건축가협회 초대작가
현 대한건축학회 대전 · 세종 · 충남지회 부회장
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정진주 Jung, Jin-ju / 청주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교수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현 청주대 인재개발원장, 현 교육부 교과교실연구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협의회 중앙위원
현 충북교육청 설계심의위원회 위원, 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이사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정책 ·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민마루고, 고운고, 소담고, 새롬중 기본계획



최현규 Choi, Hyun-kyu / M.A.C.K 건축사사무소 대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장려상 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국제공모 초청건축사
2007 대전 도시건축연구원 디자인 캠프 튜터
2008 대전 서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자문계획가
2011 대전건축문화제 추진위원
우송대학교, 한밭대학교, 목원대학교 건축과 외래교수(전)

※이외 참석자의 약력은 이어지는 회원작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회원작품.

오송 종합사회복지관 & 도서관

Osong Social Welfare Center & Library



설계자 | 오선교_KIRA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이사, 한국CM협회 이사, 미래도시연구원 원장, 충청도지방 교육재정계획심의원회 의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설계자 | 신동안_KIRA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 국립산악박물관, 오송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보정종합복지센터, 군산종합비지니스센터 등이 있다.



설계자 | 정용현_KIRA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정림건축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현재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도서관, 청주시 서부도서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사, KBS 청주방송총국,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혈액원, 충주대학교 산학협동플라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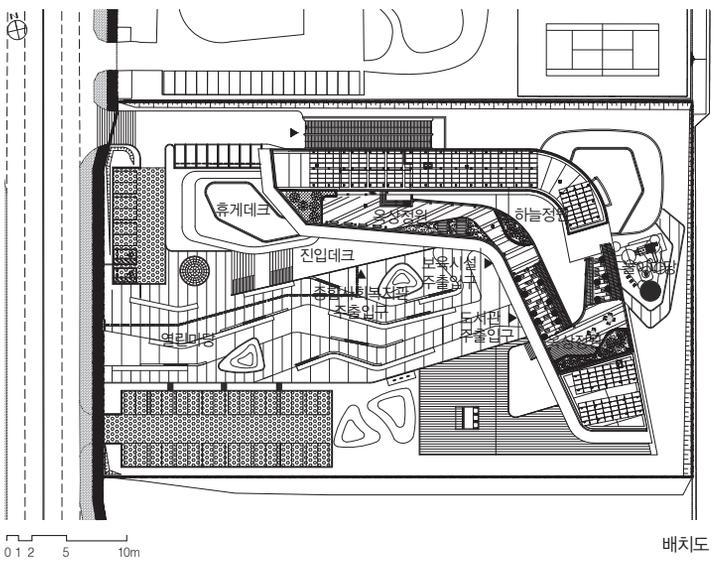
- 설계팀 : 송웅룡, 장동훈, 신영진, 서충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구조팀
  - 조경분야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조경팀
  - 기계 · 전기 · 소방설비분야 : ㈜미래이앤지

건축주 | 청원군청
감리자 | ㈜청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대원, 대화건설㈜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77번지
주요용도 | 노유자시설(복지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Site Area) | 9,881.4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776.6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8.22%
용적률(Floor Area Ratio) | 72.67%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접합강판, 외단열 건식시스템, THK24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8 ~ 2011. 1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12 ~ 2013. 06
사진(Photographer) | 이선욱(Lee, Seon-wook)

Client | Cheongwon-gun
Architect | Oh, Seon-kyo / Shin, Dong-an / Jeong, Yong-hyeon
Project team | Song, Woong-ryong / Chang, Dong-hoon / Shin, Young-jin / Seo, Chung-hwan
General Contractor | Daewon, Daehwa Construction
Location | 677, Yeonje-ri, Osong-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Seon Architecture & Engineering Group
HVAC Engineer | Mirea Engineering
Civil Engineer | Shin Ha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Clad Metal, Outside Insulation System, Pair Glass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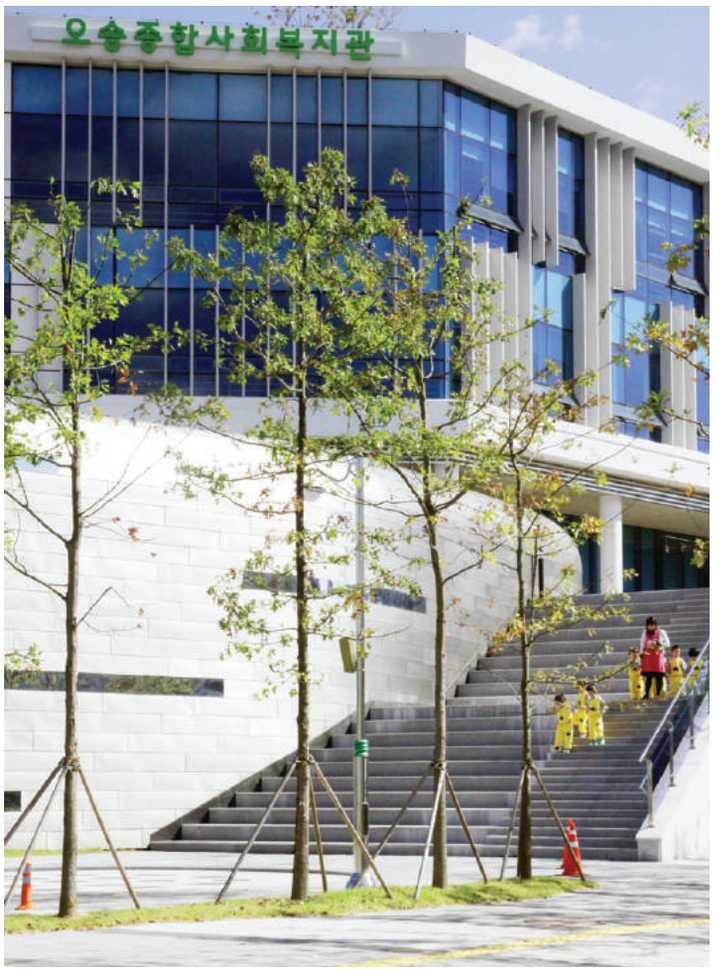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다양한 문화적 공간과 친환경적 자연을 결합한 오송을 대표하는 Culture Hub을 제안한다.

오송 종합사회복지관 및 도서관은 발전하는 오송의 문화허브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교육, 문화 콤플렉스가 될 것이며, 엄마의 품안처럼 포근한 공간, 이웃과 어우러지는 넓은 마당, 지역주민 교류의 장,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감성디자인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정이 넘치는 오송에 새로운 Culture Hub가 된다.

사업부지 주변현황(보건환경연구원)을 고려한 시설배치로 지역주민의 열린마당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향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로 양호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며, 유사한 성격의 기능을 하나로 연계시켜 관리 및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오송주민의 열린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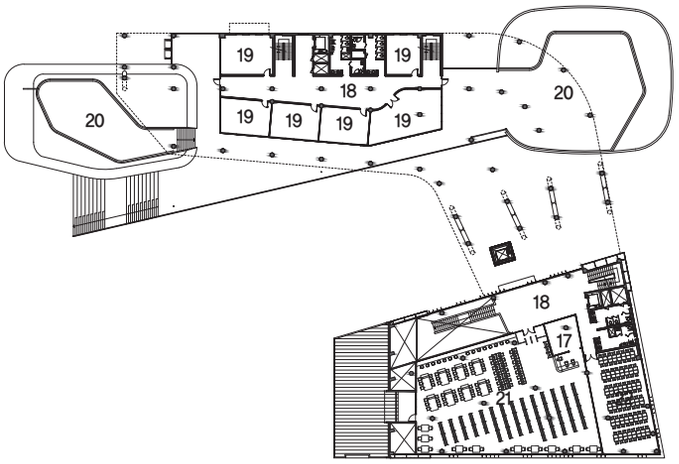



오송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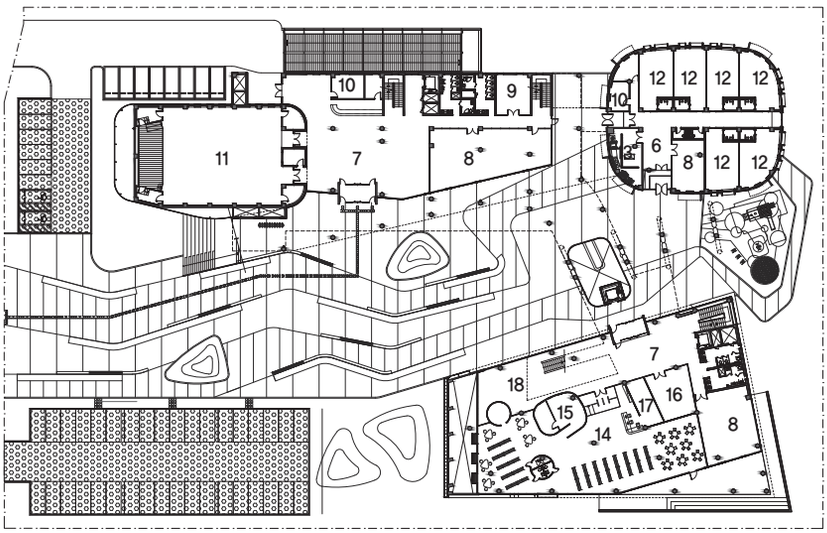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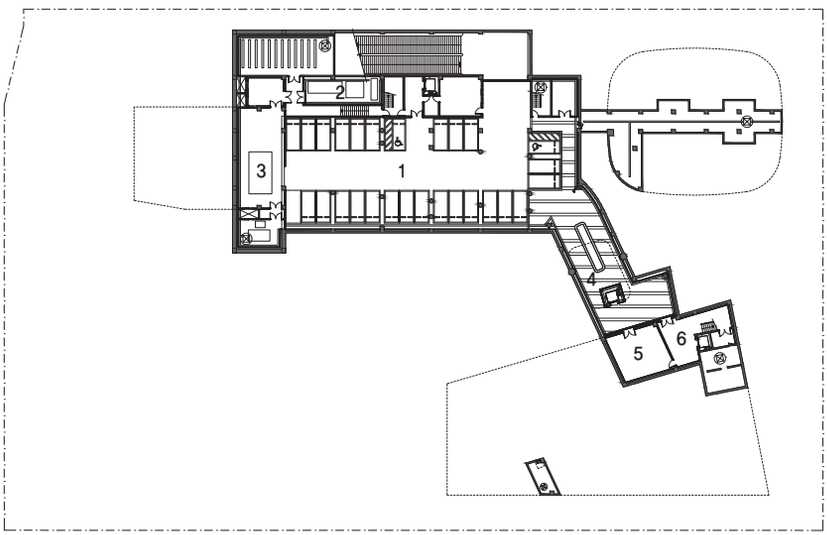
1. 지하주차장
2. 기계실
3. 전기실
4. 선큰
5. 보존서고
6. 홀
7. 로비
8. 사무실
9. 회의실
10. 의무실
11. 다목적강당
12. 보육실
13. 주방
14. 어린이열람실
15. 모자열람실
16. 평생학습실
17. 도서정리실
18. 휴게홀
19. 교양교실
20. 휴게데크
21. 일반열람실
22. 자율열람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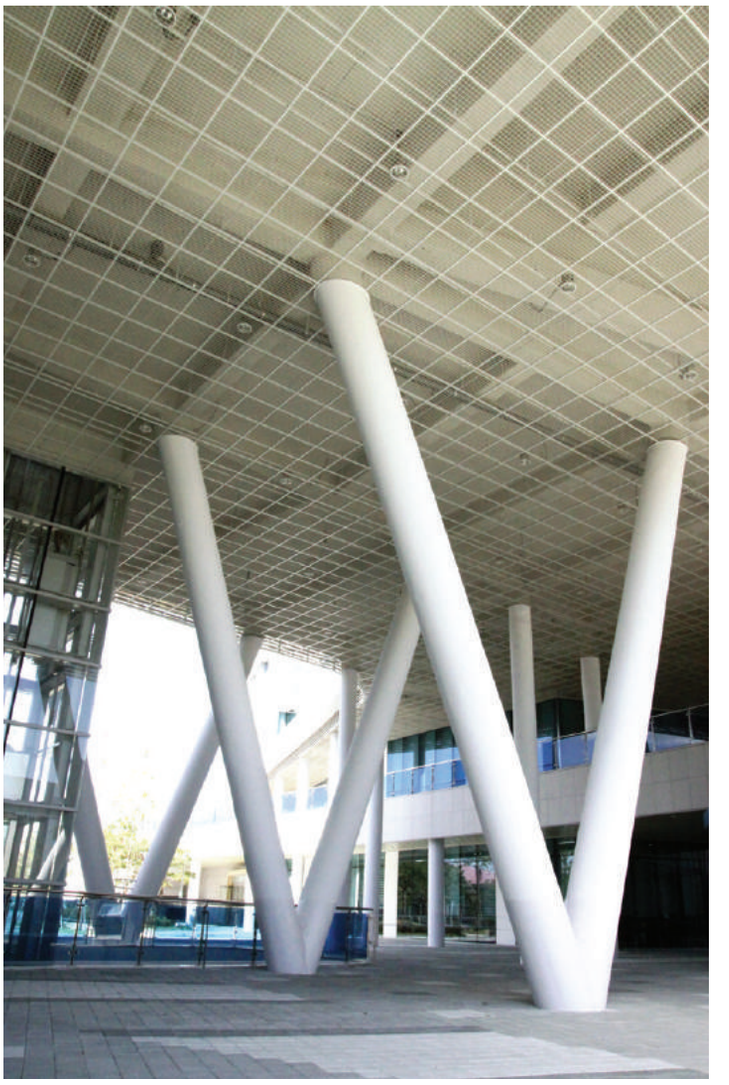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2 5 10m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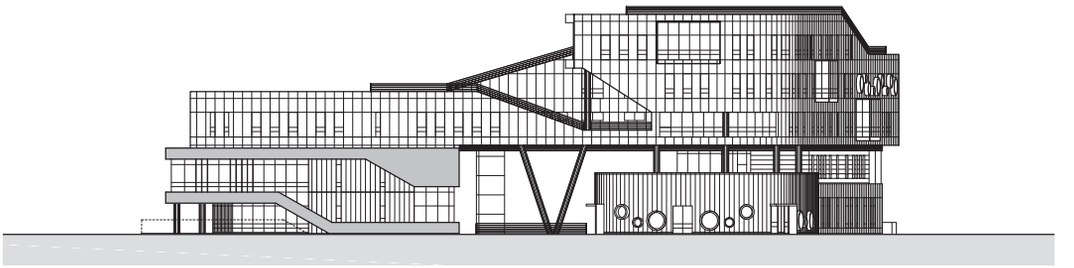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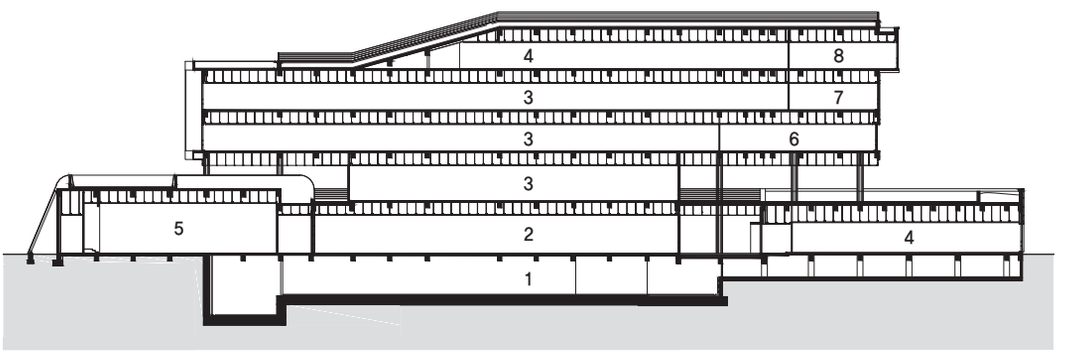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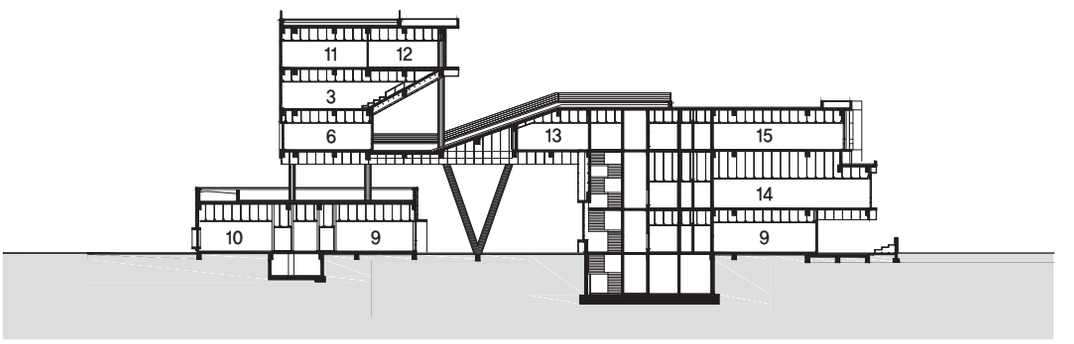


동측면도



단면도1

1. 지하주차장
2. 로비
3. 휴게홀
4. 홀 및 복도
5. 다목적강당
6. 체력단련실
7. 청소년실
8. 프로그램실
9. 사무실
10. 보육실
11. 복도
12. 전산교육실
13. 휴게실
14. 자율열람실
15. 문화교실



0 1 2 5 10m

단면도2

회원작품.

청주목련원(청주화장장)

Cheongju-Mongnyeonwon



설계자 | 권오준_KIRA | ㈜신성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김중업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신성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다. 주요 작품으로는 청주시화장장(목련원), 충북대학교병원 영안실 및 주차빌딩, 단양관광종합타운, 충북대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등이 있다.

• 설계팀 : 정현석, 김용철, 김용석, 조주명, 한상현, 박운섭, 강성미, 류미정, 안병익, 송석호, 김지호, 류호명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장은구조기술사사무소

– 설비분야 : ㈜한일 엠 · 이 · 씨

– 토목분야 : ㈜통일측량

건축주 | 청주시

감리자 | ㈜신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케이씨씨건설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 4번지외 8필지

주요용도 | 장례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78,00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5,278.0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77%

용적률(Floor Area Ratio) | 10.55%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 : 화강석버너구이, 화강석거친절석마감, 동판가공마감

내부 : 화강석물갈기, 수성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4. 07 ~ 2004. 1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5. 05 ~ 2008. 01

Client | Cheongju-si

Architect | Gwon, Oh-jun

Project team | Jeong, Hyeon-seok / Kim, Yong-cheol / Kim, Yong-seok / Jo, Ju-myeong
Han, Sang-hyeon / Park, Un-seop / Gang, Seong-mi / Ryu, Mi-jeong
Ahn, Byeong-ik / Song, Seok-ho / Kim, Ji-ho / Ryu, Ho-myeong

General Contractor | Shinsung Architect & Engineers Associate Co.,Ltd

Location | San 4-2, Woro-dong,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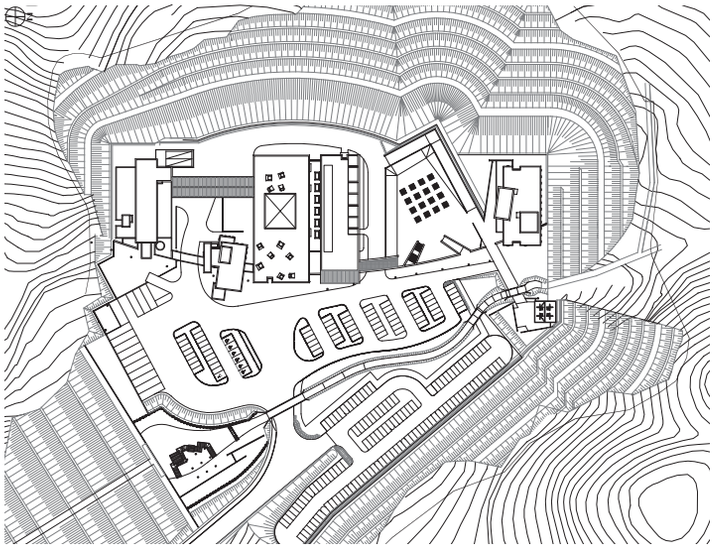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Jangeun Structure Engineers Co.,Ltd

HVAC Engineer | HANIL MECH. ELEC. Consultants

Civil Engineer | Tongil Survey Co.,Ltd

Finishing Materials | EXT : Granite Burner Treatment Stone, Rough Granite, Copperplate
INT : Granite Rubbing Stone, Emulsion Paint





0 5 10 20 40m

배치도



진입로에서 바로본 목련원

청주목련원은 기존 화장장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계획하였으며, 청주의 상징적인 상당산성을 형상화하여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사람의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산(生) 자를 위한 밝고 역동적인 형태와 죽은(死) 자를 위한 정숙하고 엄숙한 형태로 연출하였다. 또한 전면의 유선형 벽과 수공간 설치로 생(生)과 사(死)공간의 영역성을 강조하였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각 시설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마당개념을 도입(장제광장, 유족대기 옥외정원, 중정, 추모공원 등)하고, 기존 수계를 굽이치며 흐르도록 이실개천을 건물의 전면에 위치토록 함으로써 배산임수의 명당을 형성하였다. 또한 장례식장과 관리동, 화장장, 옥외휴식공원(옥외분향소), 납골당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장례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자연을 존중하는 환경 친화적 접근으로 경사지형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하여 입체적 공간성을 갖도록 구성하고, 각 시설의 다수 이용자 동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지 레벨을 적극 이용하였다.

엄숙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형태로 실내공간을 계획하였으며, 화장장 내부의 수공간 및 자연채광용 천창은 자연채광과 조망 제공으로 쾌적성을 제고하고 고인에 대한 회상 및 추모객의 마음 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형을 활용하고 지역의 상징인 상당산성을 모티브로 한 입면 구성으로 인지도와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적합한 공간 분할 및 변화와 볼륨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자연스러운 곡선벽의 사용으로 분산된 기능들을 통합하여 강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건물 전면의 벽은 화강석 거친석쌓기로 청주시의 상당산성을 형상화하였고, 장례식장동은 동판마감을 하여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외피계획을 하였으며, 주변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재료(노출콘크리트, 목재그릴 등)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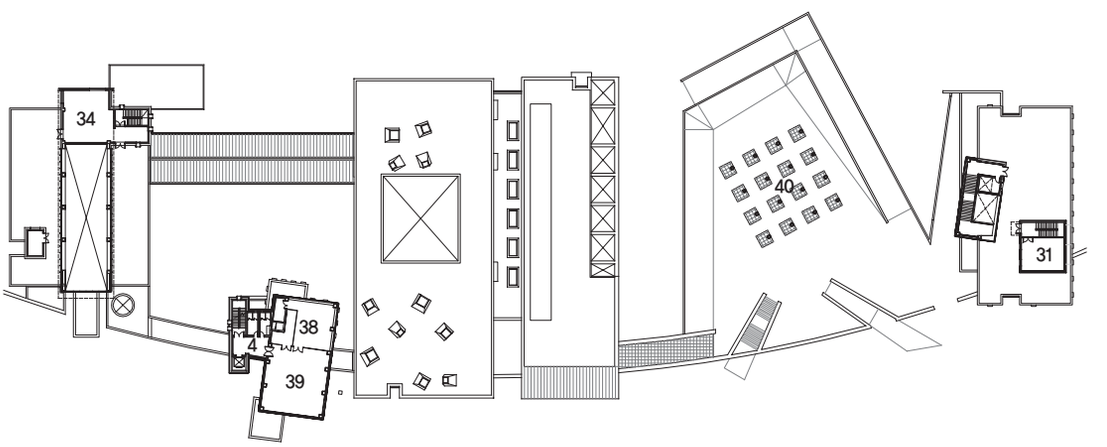

청주목련원 야경


동판을 활용한 화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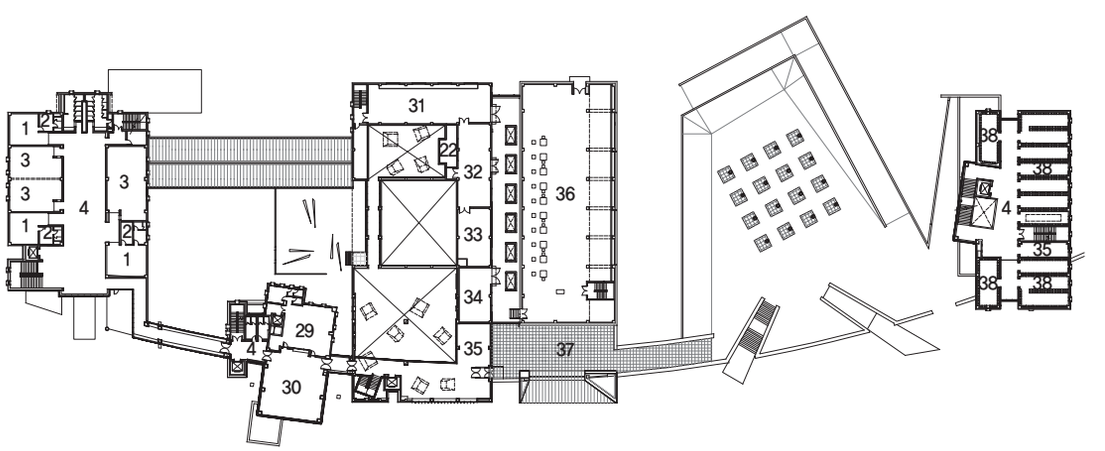

목련원의 실개천


옥외휴식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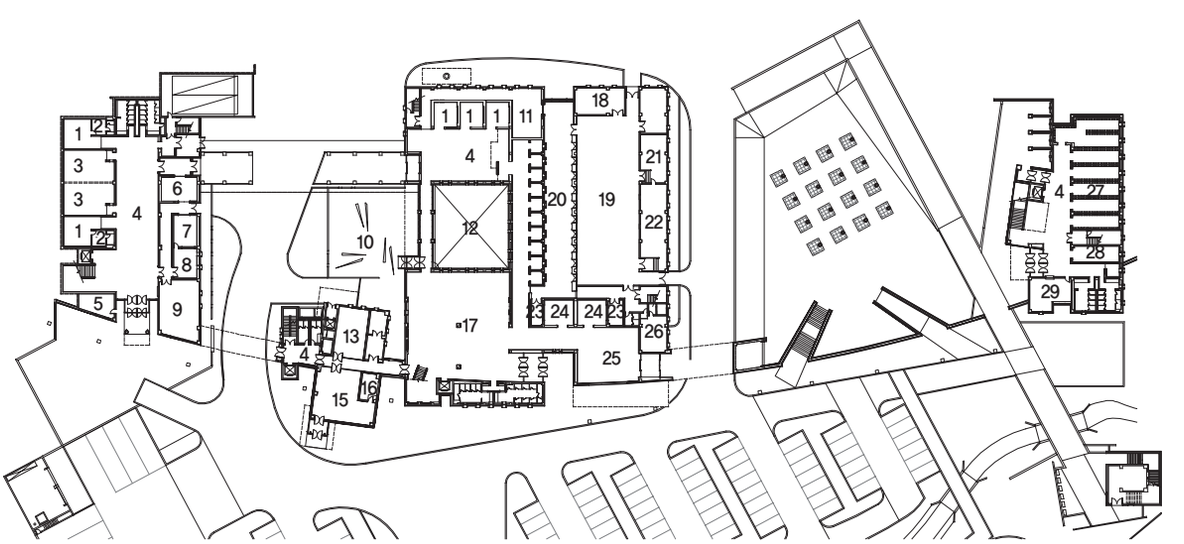
1. 분향실 2. 접견실 3. 접객실 4. 홀 5. 기사대기실 6. 안치실 7. 입관실 8. 참관실 9. 관리실
10. 야외전시장 11. 대차 보관장소 12. 중정(수공간) 13. 매점 14. 하역장 15. 접수실 16. 숙직실 17. 대기 모니터실 18. 잔재처리실
19. 작업실 20. 로전실 21. 제어실 22. 중앙감시실 23. 수골실 24. 수골전실 25. 수골대기홀 26. 화부휴게실 27. 납골실
28. 사이버추모실 29. 주방 30. 식당 31. 기계실 및 공조실 32. 전기실 33. 발전기실 34. 공조실 35. 휴게실
36. 화장로기계실 37. 옥외휴게 및 전시실 38. 사무실 39. 다목적회의실 40. 옥외휴식공원(옥외분향소)



3층 및 옥탑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화장장 대기홀의 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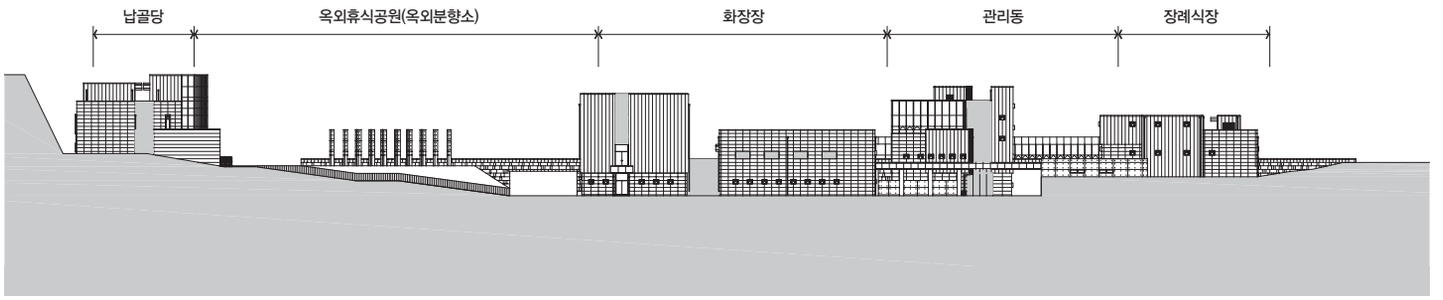

납골당 홀의 커튼월


화장장 대기홀의 모습


엄숙한 분위기의 납골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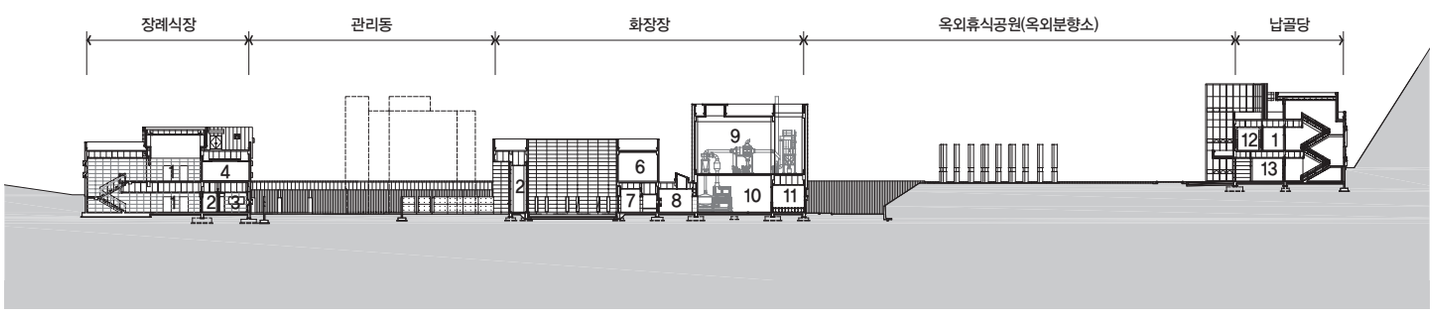

상당산성을 형상화한 외벽


야외전시장



서측면도

1. 홀
2. 복도
3. 참관실
4. 분향실
5. 중정
6. 전기실
7. 관망홀
8. 로전실
9. 화장로기계실
10. 작업실
11. 감시실
12. 납골실
13. 방풍실



0 2 5 10 20m

횡단면도

회원작품.

대전 전통나래관(대전역세권 내 문화시설)

NARAE Deajeon Tradional Exhibit Hall



설계자 | 최재인 KIRA |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하였다. ㈜대림산업 설계부에서 실무를 시작해서 현재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목원대학교, 우송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건축가회 회장 및 대전광역시 건축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종로세무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성암체육관, 아동복지관, 대전 동물원, 노은농수산시장, 대전변호사회관 등이 있다.

- 설계팀 : 오세묵, 한대훈, 이용진, 정현정
- 전문기술협력
  – 구조, 전기설비, 기계설비분야 :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대전광역시
감리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진
시공사 | 광동건설, 우성건설산업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9–34번지 외 16필지
주요용도 | 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384㎡
건축면적(Building Area) | 687.77㎡
연면적(Gross Floor Area) | 3,367.6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6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3.78%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 로이복층유리, 징크판넬, 테라코타판넬, 화강석물갈기
내부마감 : 황토몰탈마감, 친환경페인트, 화강석물갈기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7 ~ 2012.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7 ~ 2013. 12
사진(Photographer) | 채수옥(Chai, S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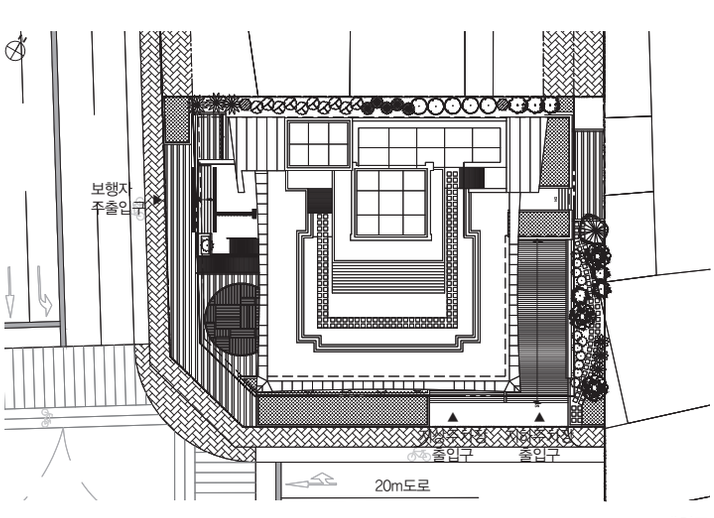
Client | Daejeon Metropolitan City Hall
Architect | Choi, Jea-in
Project team | Oh, Se-muk / Han, Dea-hoon / Lee, Yong-jin / Jeong, Hyun-jung
General Contractor | Kwang Dong Construction, Woosung Construction Industry
Location | 299-34, Soje-dong, Dong-gu, Daejeon,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Shin-Hwa Engineering & Architects
HVAC Engineer | Shin-Hwa Engineering & Architects
Electrical Engineer | Shin-Hwa Engineering & Architects
Civil Engineer | Shin-Hwa Engineering & Architects
Finishing Materials | THK24 Low-E Glass, Zinc Panel,
Terra-cotta Panel, Red Clay Mortar

전통나래관은 대전역세권개발계획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역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공간으로서 전시, 체험, 공연, 판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의 간극을 즐거움으로 채워주고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낙후와 개발"이라는 명제 아래 초기설계부터 준공까지 세 가지 테마인 청사초롱, 풍경, 도자기를 가지고 기능과 디자인을 풀어갔다. 세 가지 전통요소는 "빛", "소리", "장인의 혼"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전통나래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주변 환경 속에서 본연의 방향을 잃지 않길 기원한다.

"빛처럼 퍼지는 문화"
대전역세권 상업지구에 면하여 도시의 아이콘으로서 청사초롱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구현하였다. 단순 명료한 사각형 매스에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낮에는 맑고 투명한 형태적 아이콘이 되고 밤에는 내부의 도자기가 환하게 보임으로써 지역명소(장소적 아이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 삶, 문화가 어우러지는 향연"
배후에 흐르는 대동천과 향후 만들어질 수변공원을 고려하여 "사람", "자연", "문화"가 서로 반응하는 문화미디어로서 절제된 디자인에 기능을 담았다. 수변공원에서 스크린 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 외벽을 테라코타로 마감하였으며, 지상 4층에는 전시관 이용객과 무형문화 전수생들이 수변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테라스를 계획하였다.

"장인의 혼을 담아 전통을 잇는 그릇"
저층부에 배치한 도자기 매스는 장인의 혼이 깃든 전시물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전시기능을 담당한다. 투명한 유리면 넘어 보이는 청사초롱의 불꽃으로서 그리고 장인의 혼이 깃든 전통 도자기로서 전통나래관의 상징적 아이콘임과 동시에 또 다른 도시의 전시물로 디자인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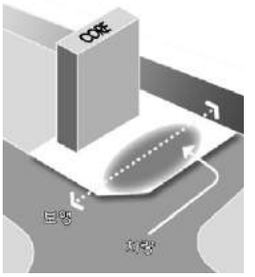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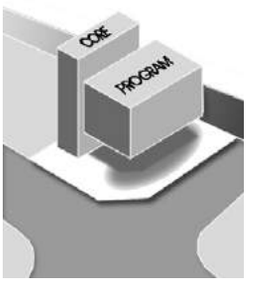
Arrangemen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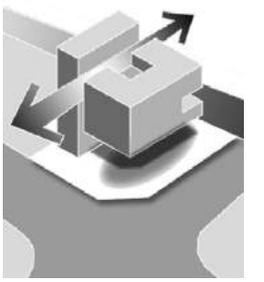
Analysis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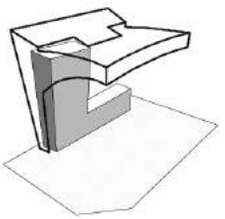
Core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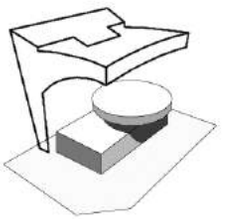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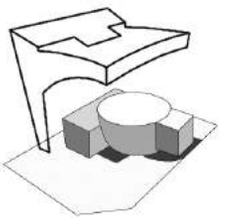
Program Mass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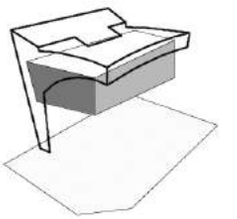

Create Places

Zoning Program


Core/Care Facilities


Lobby/Exhibition Facilities


Mulitipurpose Thea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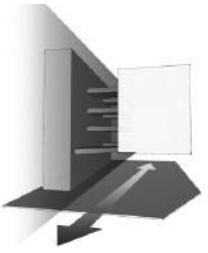

Transfer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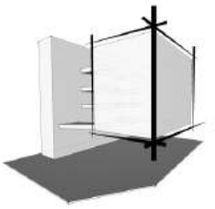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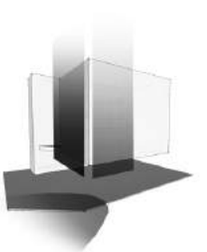
Arrangemen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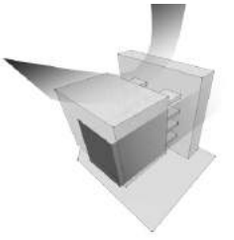
Communication



Icon



Communicators(Ur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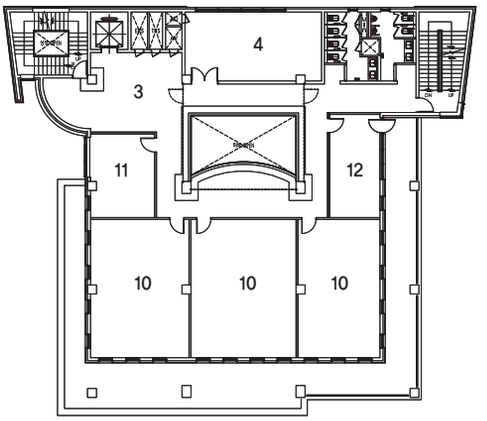
Communicators(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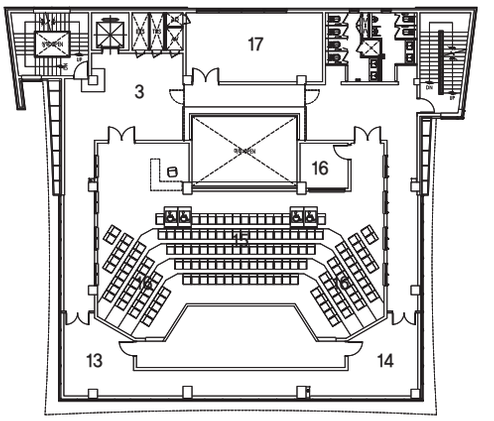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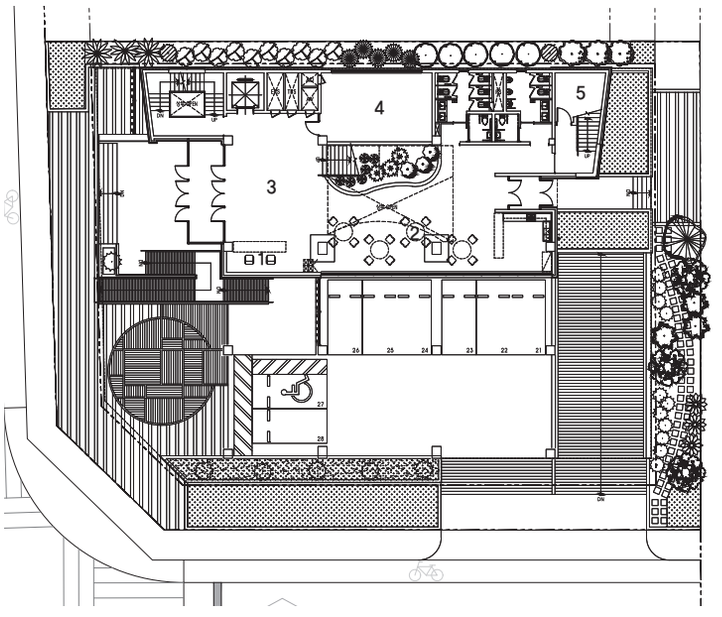
1. 안내데스크 2. 카페 3. 홀 4. 사무실 5. 폐기물보관실 6. 판매장 7. 전시실 8. 통신실 9. 창고
10. 전수교육실 11. 물품창고 12. 휴게실 13. 준비실 14. 비품실 15. 다목적강당 16. 조정실 17.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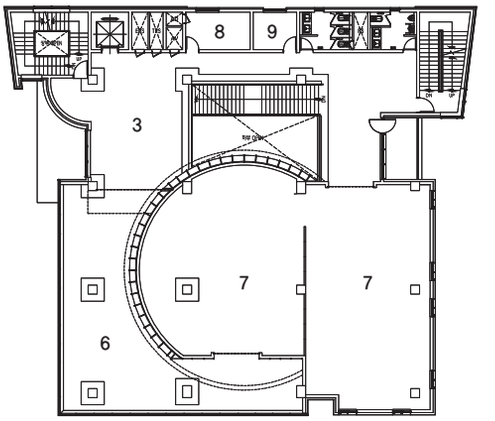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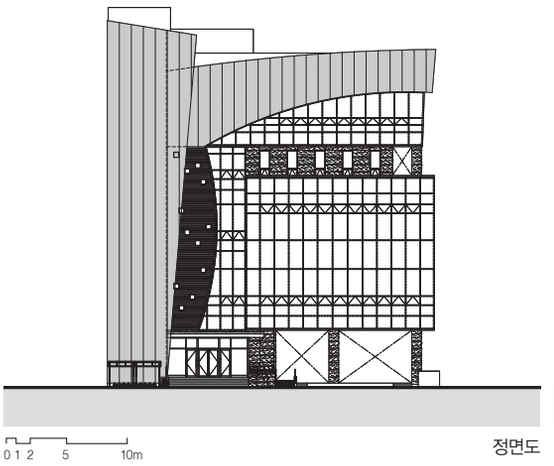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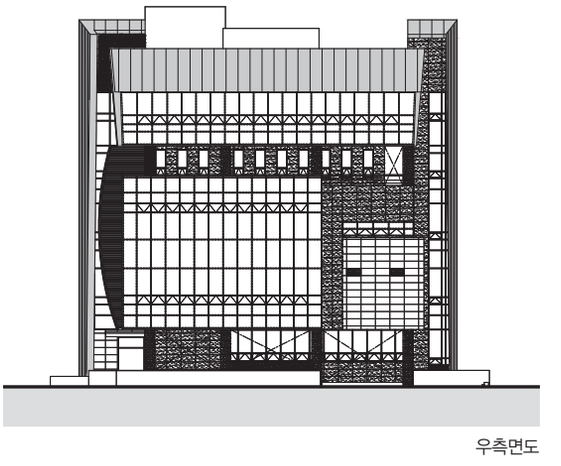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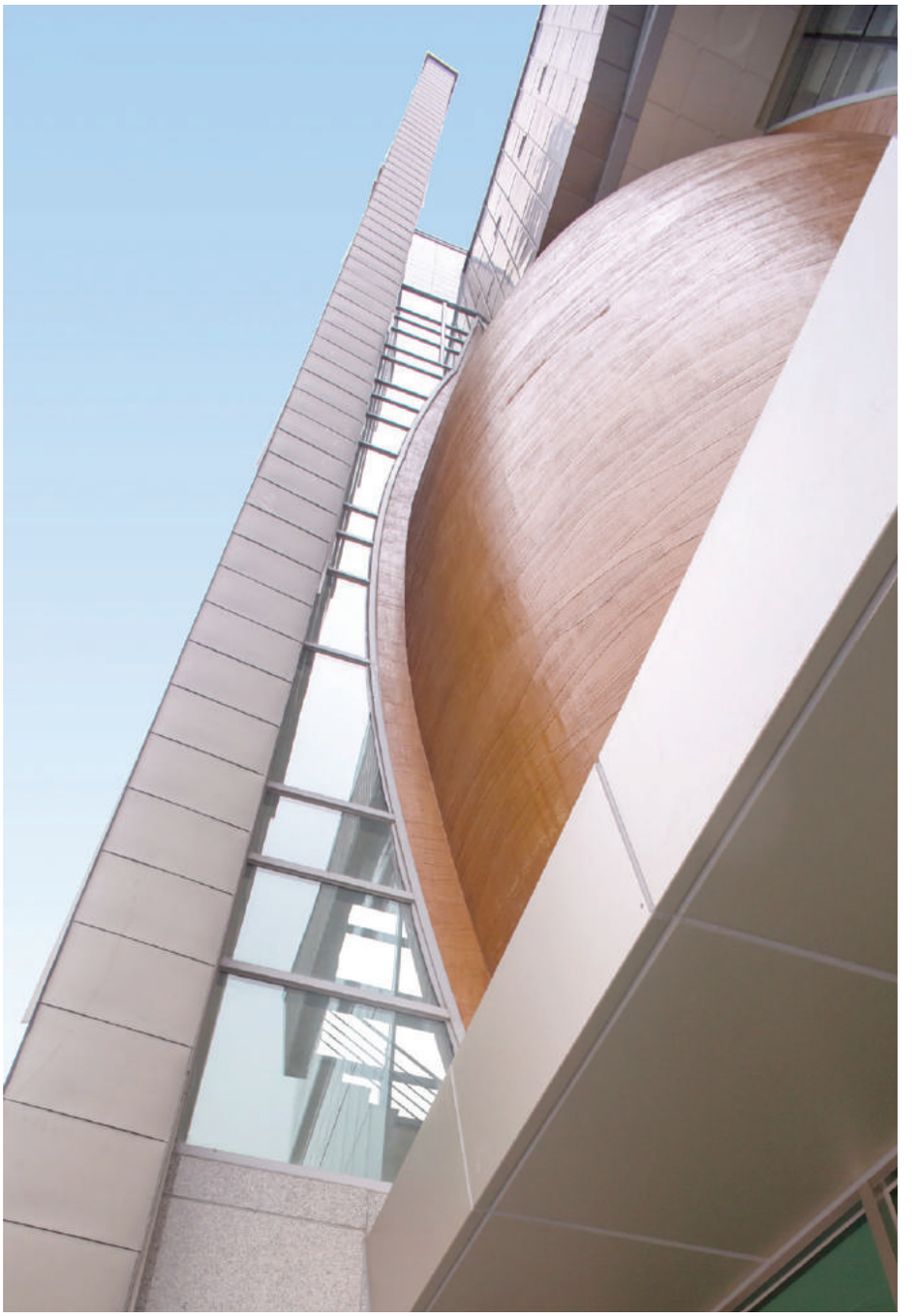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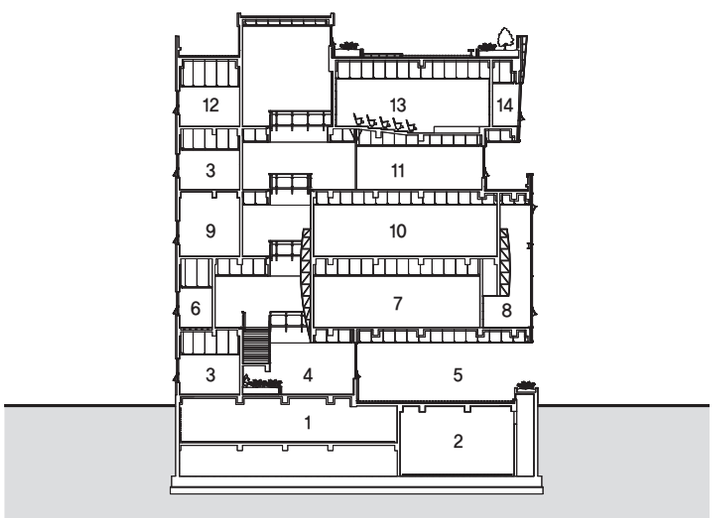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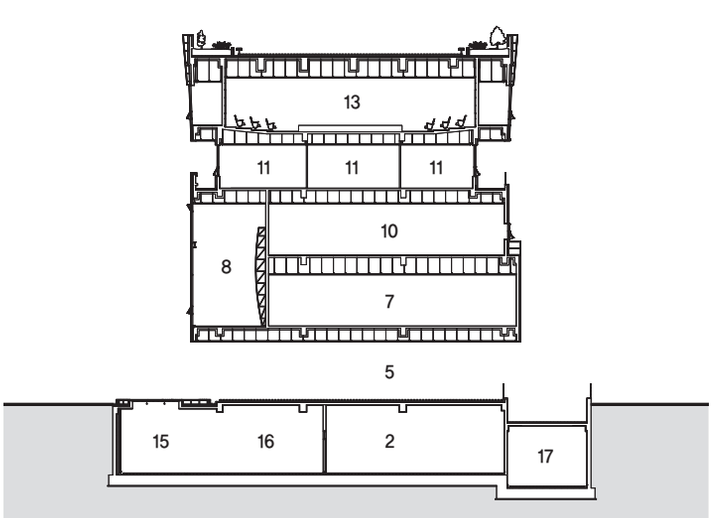




1. 주차장 2. 기계실 3. 사무실 4. 카페 5. 지상주차장 6. 통신실 7. 전시실 8. 판매장 9. 수장고 10. 다목적체험실
11. 전수교육실 12. 회의실 13. 다목적강당 14. 준비실 15. 장비반입구 16. 전기실 17. 저수조



종단면도



횡단면도

0 1 2 5 10m

회원작품.

충남대학교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

Chungnam University Green Growth Energy Center



설계자 | 조도연_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다.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및 대한건축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건축가협회 2012 국제건축가 100인 및 제30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대표작가로 선정됐다. 수상경력으로는 2012 한국교육시설학회 제1회 교육시설 초대작가전 올해의 작품상과 2011 사단법인 한국FM학회 BTL설계분야 대상(이호중학교) 등이 있다.



설계자 | 이경환_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아주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지부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신청사,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등이 있다.

- 설계팀 : 조보광, 권현철, 조영선, 김성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동양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전기설비분야 : ㈜수양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우정토목측량설계공사

건축주 | 충남대학교

시공사 | ㈜화룡종합건설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충북대학교 대덕캠퍼스 내)

주요용도 | 학교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500,674.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201.32㎡

연면적(Gross Floor Area) | 9,066.1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15%(법정 30%이하)

용적률(Floor Area Ratio) | 0.48%(법정 120%이하)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5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화강석, 금속판넬, 티타늄아연강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8 ~ 2010.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3 ~ 2013. 08

Client | Chungnam University

Architect | Cho, Do-yeun / LEE, Gyeung-hwan

Project team | Cho, Bo-kwang / Park, Jung-min / Lee, Yoo-bok / Cho, Young-sun / Kim, Sung-jin

General Contractor | Hwaryong Construction

Location | 220, Gung-dong, Yuseong-gu, Daejeon, Korea

Structure | SRC

Structure Engineer | Dongyang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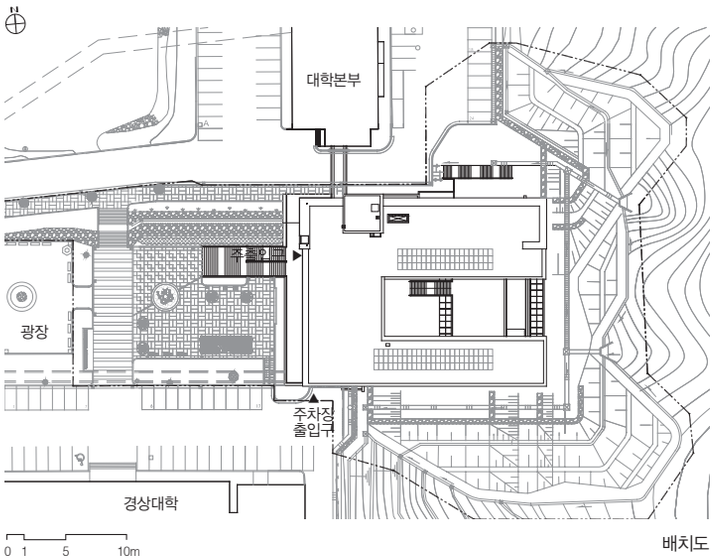
HVAC & Electrical Engineer | Suyang ENG.

Electrical Engineer | Sukwoo Engineering Co., Ltd.

Civil Engineer | Woojung Civil ENG.

Finishing Materials | Grinate, Metal panel, Titanium zinc panel





배치도



선경

계획대지는 충남대학교의 정문으로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정북방향의 메인축 선상에 접해 있으며, 대학본부와 경상대학 사이에 위치해 있다. 서측은 캠퍼스로 열려 있고, 동측으로는 궁동근린공원으로 자연녹지와 접해 있다. 충남대학교 캠퍼스는 그리드패턴에 기초하는 가로체계에 따라 시설들이 ㅁ자형, ㄱ자형, ㅡ자형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4~5층의 낮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과 연계에 대한 요구

충남대학교 녹색성장연구센터는 대학본부의 일부 기능(입시관리본부, 재정총괄본부, 산학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 교육개발원)과 각종 세미나가 가능한 지원시설, 녹색성장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사용자 환경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닝계획 및 연구센터 내부의 부서 간 연계와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적 검토가 필요하였다.

또한 대학본부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인해 기존 대학본부와의 시설간 연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했다.

기존 캠퍼스 체계와 어우러지는 배치 계획

그리드 체계를 기반으로 한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질서(가로체계)에 부합하는 ㄷ자형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가 기존 시설(대학본부, 경상대학)과 조화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메인축 선상의 캠퍼스 경관을 완성하고 스카이라인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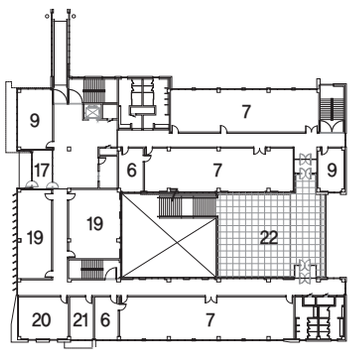
자연과의 조화와 입체적 동선

중정공간과 진입공간에 대지와 인접한 자연을 보존하며 캠퍼스 내 녹지와 연계하는 입체적 외부 녹지공간을 계획하였다. 자연을 시설 내부로 유입하여 공간별로 사용자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입체 동선으로 활용되어 사용자의 시설 이용 목적(부서별)에 따른 외부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각 부서별 독립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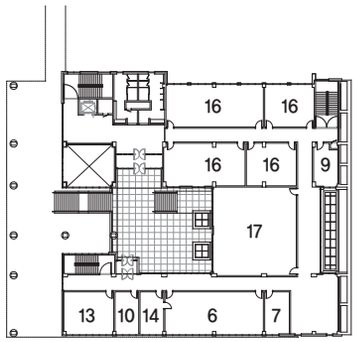


전면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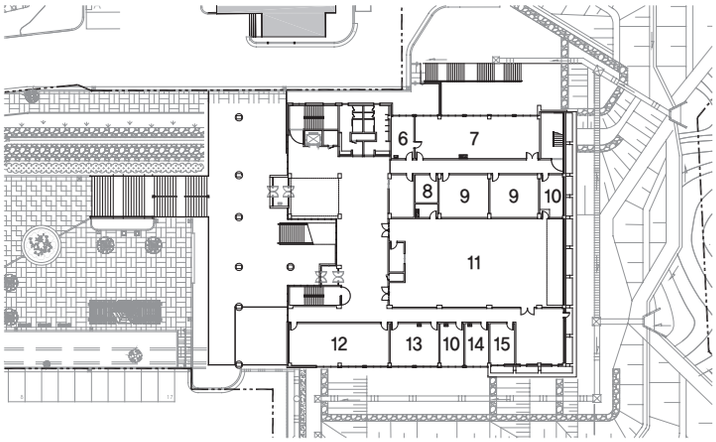
1. 주차장
2. 발전기실
3. 전기실
4. 기계실
5. 물탱크실
6. 행정실장실
7. 행정실
8. 정보통신실
9. 자료실
10. 본부장실
11. 준비실
12. 강당
13. 회의실
14. 부본부장실
15. 입시전문위원실
16. 교육실
17. 휴게실
18. 유학생상담실
19. 세미나실
20. 단장실
21. 부단장실
22. 녹색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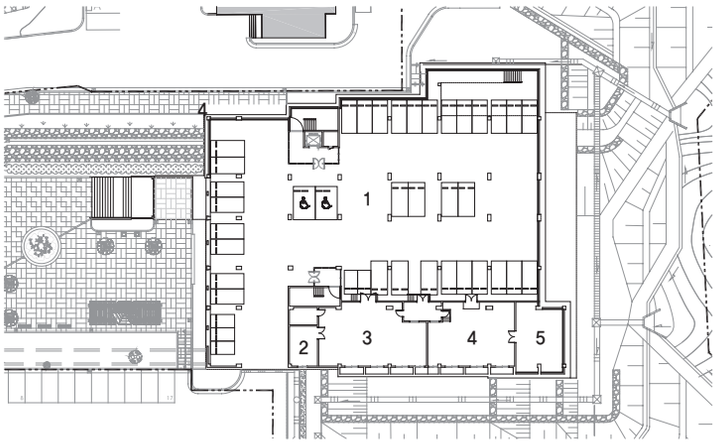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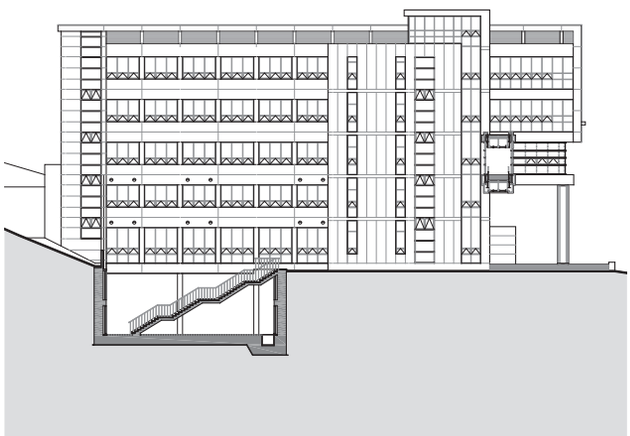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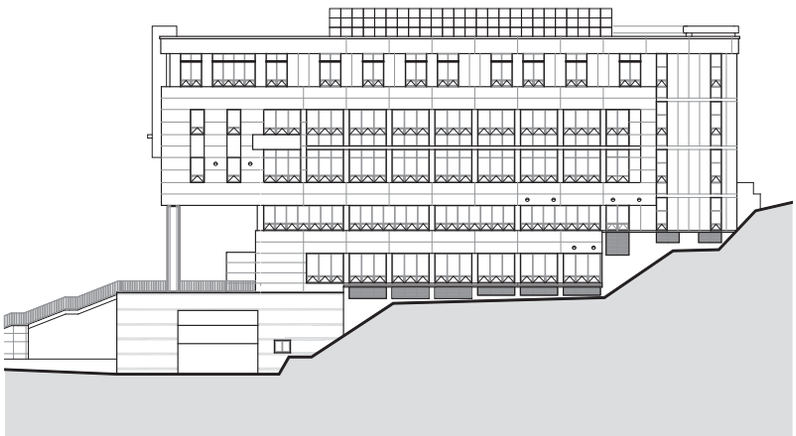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0 1 5 10m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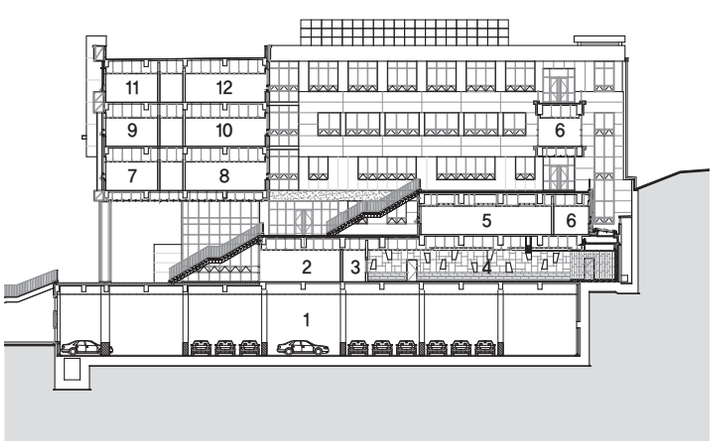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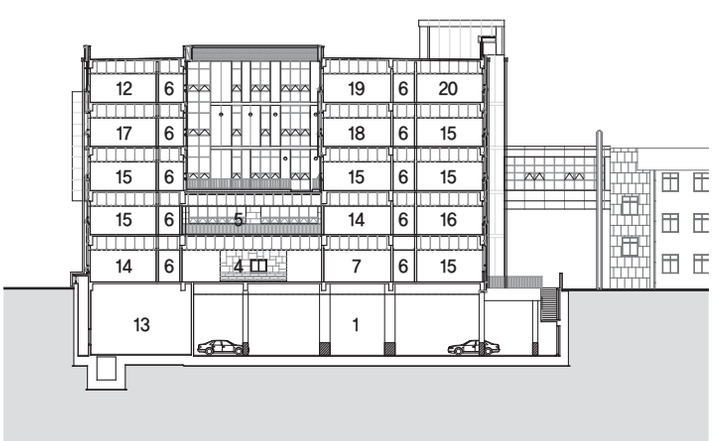


1. 주차장 2. 전시실 3. 조정실 4. 강당 5. 회의실 6. 복도 7. 자료실 8. 세미나실 9. 매체제작실 10. 팀학습실
11. 센터장실 12. 연구소장실 13. 기계실 14. 부본부장실 15. 행정실 16. 교육실 17. 행동분석실 18. 연구원실 19. 전임연구원실 20. 연구실



0 1 5 10m

종단면도



횡단면도

회원작품.

대전 동구국민체육센터

Daejeon Dong-gu National Sports Center



설계자 | 김대인_KIRA | ㈜에이앤티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충남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건축사사무소 광장을 운영하였고 현재 ㈜에이앤티플러스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충남대학교 건축학과에 출강을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태안 동문리아파트,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청동 다목적회관, 막현리 매현마을 체험관, 도안신도시 바네스데코 / 이레리치빌딩 등이 있다.

- 설계팀 : 최춘규, 김선택, 박석규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SH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 : ㈜건국엔지니어링
  - 전기 : 태영이엔지(주)
  - 소방 : 세이프테크

건축주 | 대전동구청

감리자 | ㈜선진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CH씨에치건설㈜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09번지

주요용도 | 운동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260.4㎡

건축면적(Building Area) | 1,620.3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8.03%

용적률(Floor Area Ratio) | 49.88%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주요마감재 | 고밀도목재패널, 알루미늄복합판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0 ~ 2013. 0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4 ~ 2014. 03

사진(Photographer) | 임지현(Im, Ji-hyun)

Client | Daejeon Dong-gu District

Architect | Kim, Dae-in

Project team | Choi, Chun-kyu / Kim, Sun-taek / Park, Seok-kyu

General Contractor | CH Construction

Location | 709, Gayang-dong, Dong-gu, Daejeon, Korea

Structure | R.C / 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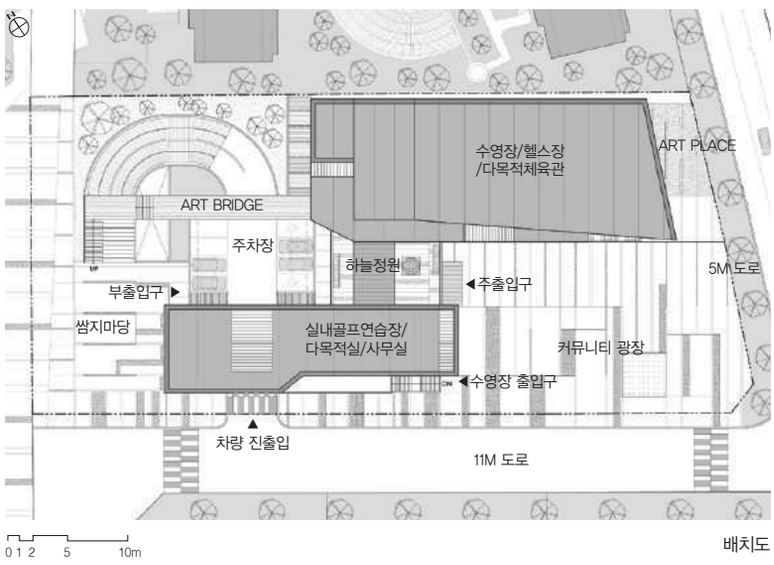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Yun, Sang-ho(SH Structure)

HVAC & Eletrical Engineer | Geonkuk + Taeyou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High-Density Compressed Wood Panel

Aluminum Composite Panel





배치도



전경

Sustainable Trinity

동구 지역주민의 건강과 문화, 체육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삼위일체 통합의 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도시적 스케일을 고려한 Identity 확보

도시맥락에 순응하고 인지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교류와 도시공간의 소통을 유도하였다. 도시흐름 유입과 공간적 위계성을 갖도록 매스를 분리하였다.

지역사회 소통과 교류를 위한 열린공간

도시와 인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 계획(커뮤니티광장, 쌈지마당)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교류를 위한 열린공간을 제시하여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으로 지역활성화의 시발점이 되게 하였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공간

외부에서 커뮤니티데크로의 동선에 입체감 있는 친환경요소를 삽입하여 도시와의 커뮤니티를 구현하였고, 다이나믹한 공간 및 입면에 흐름(frow)과 비상(fly)이라는 identity를 부여해 미래 지향적 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구현하였다.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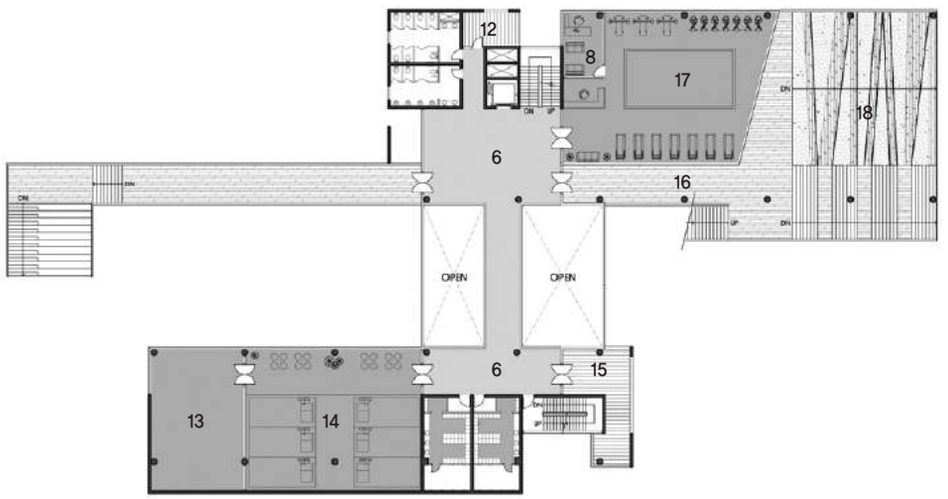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모든 층에서 피난이 가능하도록 체육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피난동선을 확보하였다. 체육시설 영역과 서비스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이용자 및 관리자의 동선을 분리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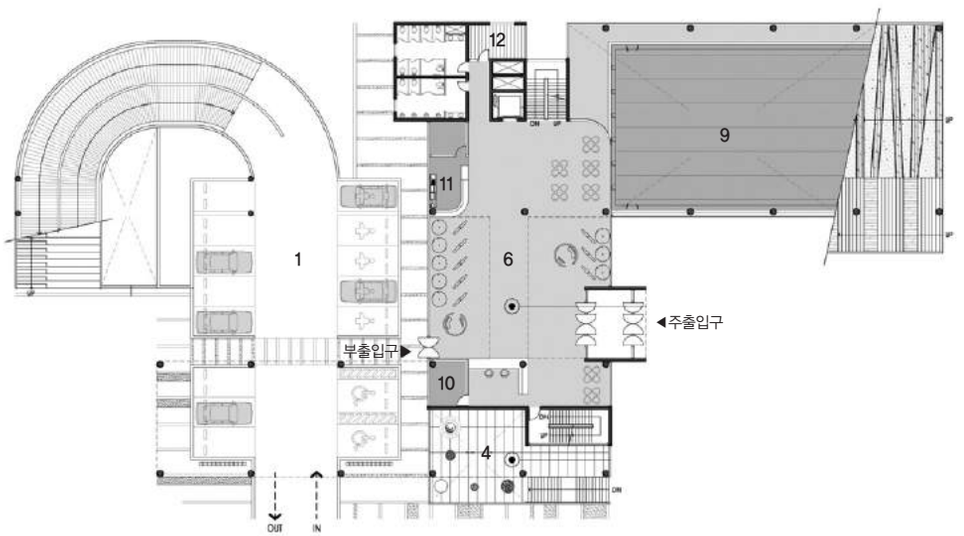
도로에서 바라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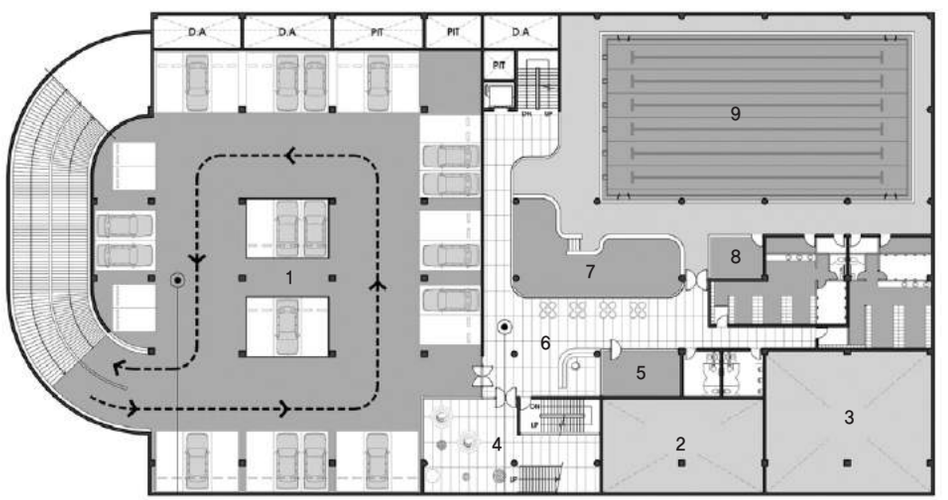
1. 주차장
2. 기계실/전기실
3. 물탱크실
4. 선큰
5. 스포츠샵
6. 홀
7. 유아룸
8. 강사실
9. 수영장
10. 관리실
11. 카페
12. 데크
13. 다목적실
14. 실내 골프연습장
15. 휴게데크
16. 커뮤니티데크
17. 헬스장
18. ART PLAC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1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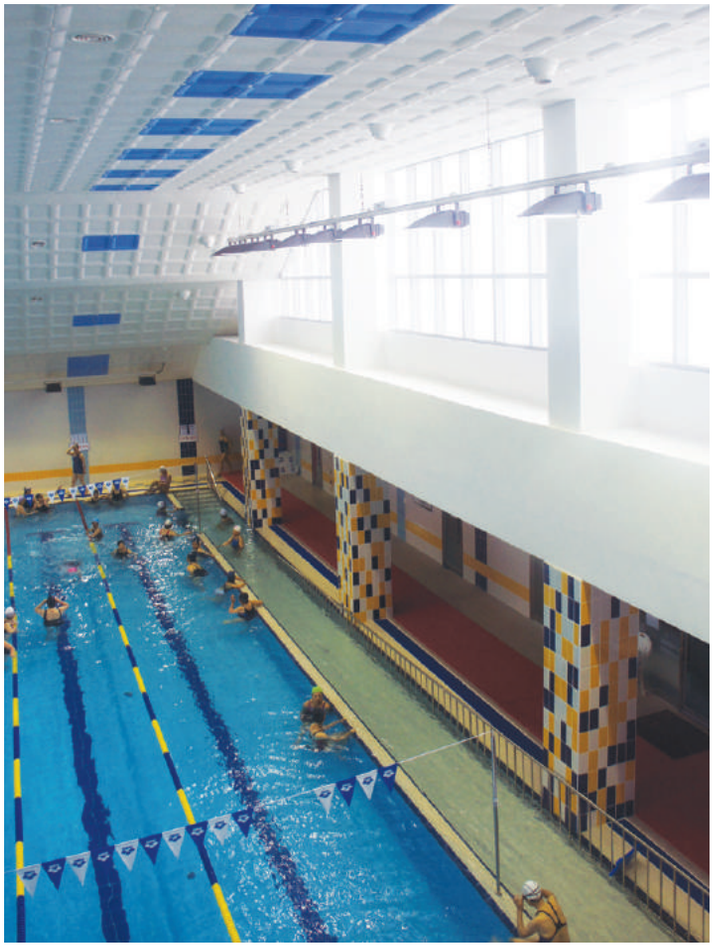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커뮤니티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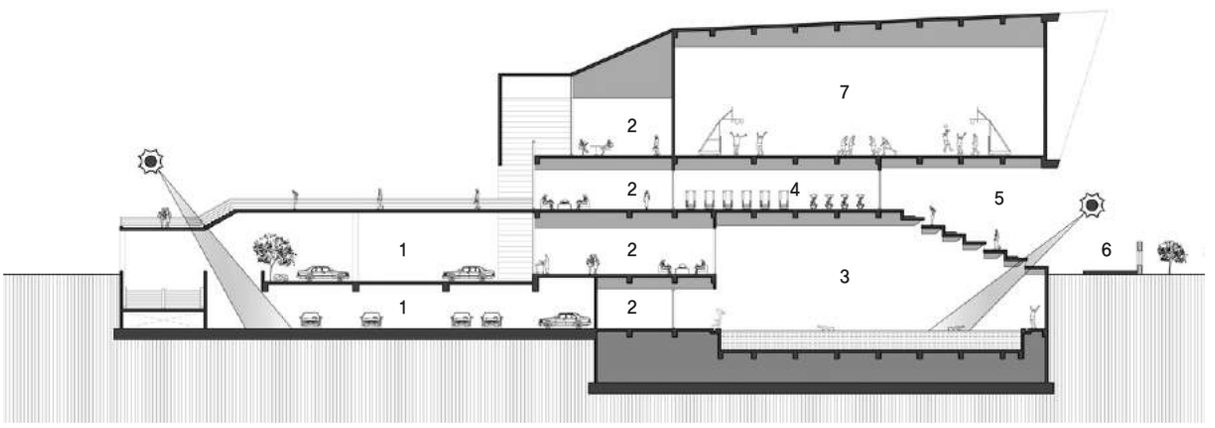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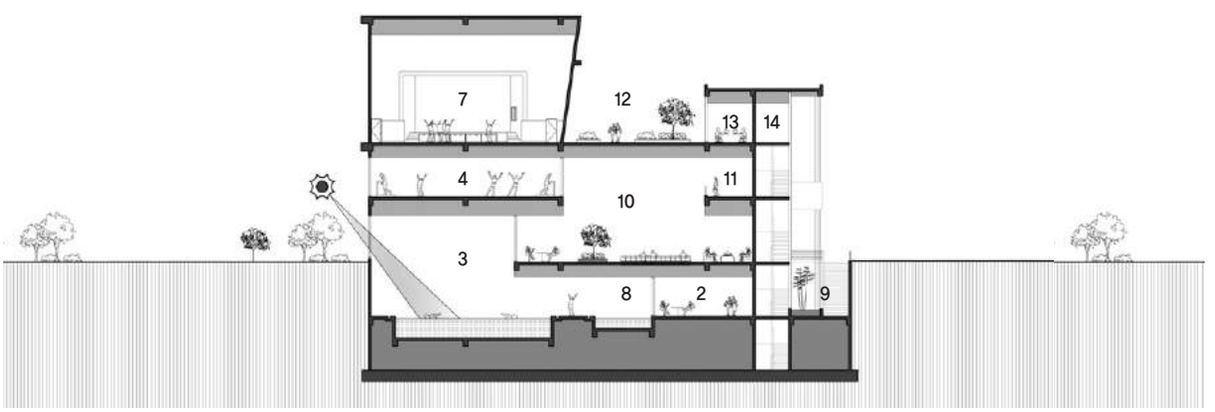




1. 지하주차장 2. 홀 3. 수영장 4. 헬스장 5. 아트플레이스 6. 소공연장 7. 다목적 체육관 8. 유아룸
9. 선큰 10. 로비 11. 아트리움 12. 하늘정원 13. 사무실 14. 계단실



횡단면도



0 1 2 5 10m

종단면도

회원작품.

스위스 캐슬
Swiss Castle



설계자 | 강계숙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국립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 석사를 취득했다. 희림건축, 에이텍건축, 가와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및 충남 도시 · 건축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대표이사다. 주요 작품으로는 천안 충무로 교회, 천안 문메디컬 센터, 아산 탕정면 행정복합시설, 내포 주민복합 지원센터, 서산시 보건소, 충남보건환경 연구원, Z호텔 등이 있다.

- 설계팀 : 정갑열, 박주한, 김광영, 조아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스트구조
  - 기계설비분야 : ㈜대림엠이씨
  - 전기분야 : ㈜대림엠이씨
  - 인테리어분야 : 선진인테리어
  - 토목분야 : 태창이엔지

건축주 | 개인
감리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시공사 | ㈜케이씨건설

대지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53번지
주요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644.1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45.7925㎡
연면적(Gross Floor Area) | 5,720.722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9.2117%
용적률(Floor Area Ratio) | 711.7750%
규모(Building Scope) | 지하3층 ~ 지상1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화강석 물갈기,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3 ~ 2011.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12 ~ 20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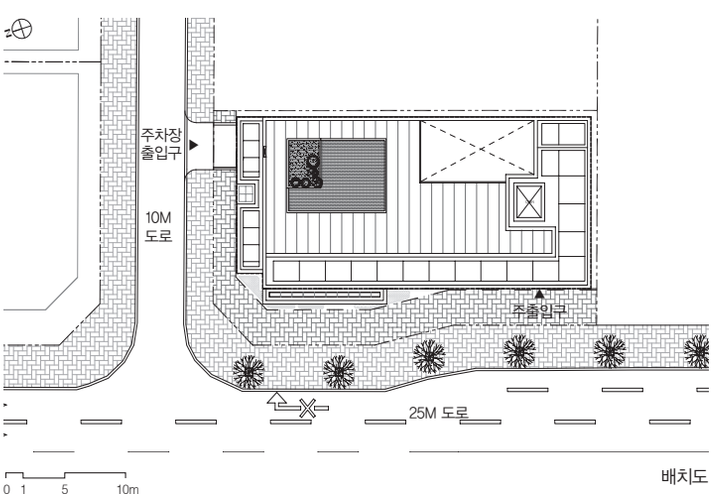
Client | Individual
Architect | Kang, Gye-suk
Project team | Jung, Gab-yeol / Park, Joo-han / Kim, Gwang-young / Jo, A-ra
General Contractor | KC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1453, Seongjeong-dong, Seobuk-gu, Cheonan,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EST & Consulting Engineers.,Ltd.
HVAC Engineer | Daelim MEC.,Ltd.
Electrical Engineer | Daelim MEC.,Ltd.
Interior | Sunjin Interior
Civil Engineer | Taechang ENG
Finishing | Granite Rubbing, Color Glass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도시 천안. 서북구 북부2지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조성된 상업지역이다. 본 대지는 낮과 밤의 얼굴이 다른 장소성을 갖는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연결되는 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적인 수익성, 주거공간의 쾌적함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시형 주거시설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도시축에 따라 배치하여 주도로면에 입구를 가지고, 차량동선은 부도로에서 진출입하여 보행자와 동선을 분리하였다.
지형의 경사에 순응한 1층은 바닥의 레벨 변화로 내부공간이 역동적이며, 다양한 분위기 연출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상부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역 특성상 독신주거의 수요가 많음을 고려하여 Built-In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스템을 적용하여 살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계획하고, 5가지 타입의 단위세대 구성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하였다.

신도시의 정면성을 고려하고 주거공간의 기능을 위한 창과 벽면의 비례를 하나의 패턴으로 입면을 계획하고, 외부의 마감재는 화강석과 샌드스톤으로 검정과 회색을 대비시켜 도시 안의 상업과 주거기능의 분할을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돌출된 건물의 매스는 내부공간의 다양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입면의 볼륨감을 주어 건물을 보는 장소마다 다르게 보이도록 하였다.
옥상부의 구조물은 매스의 비례감을 완성하면서 건물에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거주자에게는 옥상의 파고라가 되어 휴식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였다.

주변은 지금도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시의 삶을 담고 그 안에서 여유로운 삶을 나누는 도심 속 스위스 캐슬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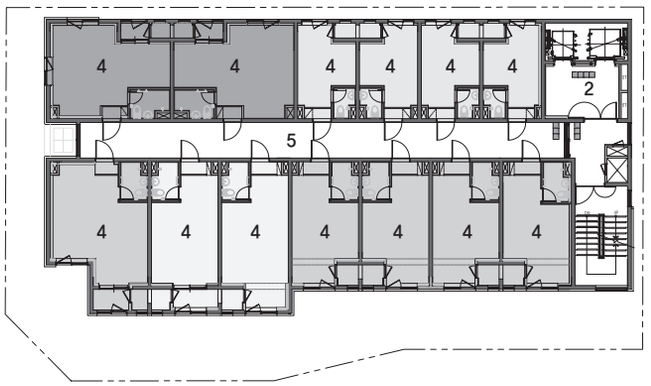
배치도


에이퓨러스 2F
월빙청통맛사지
Café DROPTOP
DROP IN A TOP PLACE
Café DROP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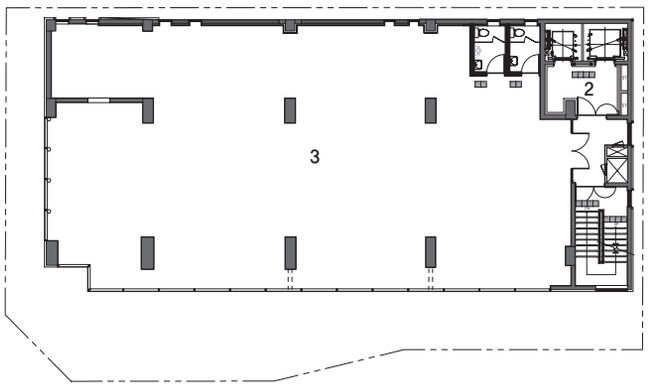


외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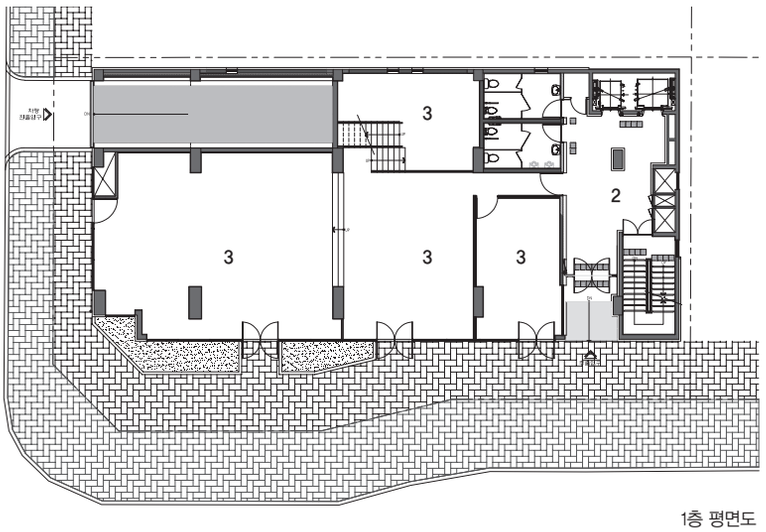
1. 주차장
2. 홀
3. 근린생활시설
4. 도시형생활주택
5.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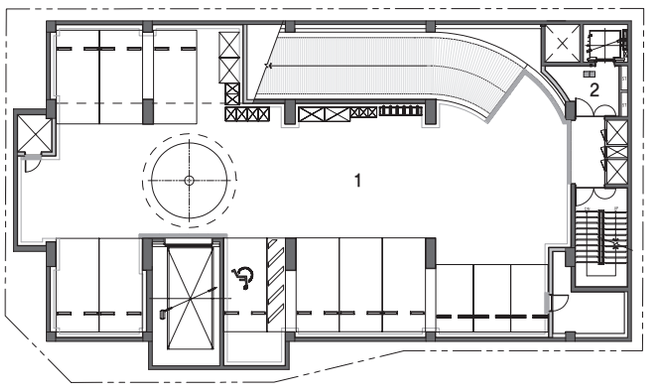
3~12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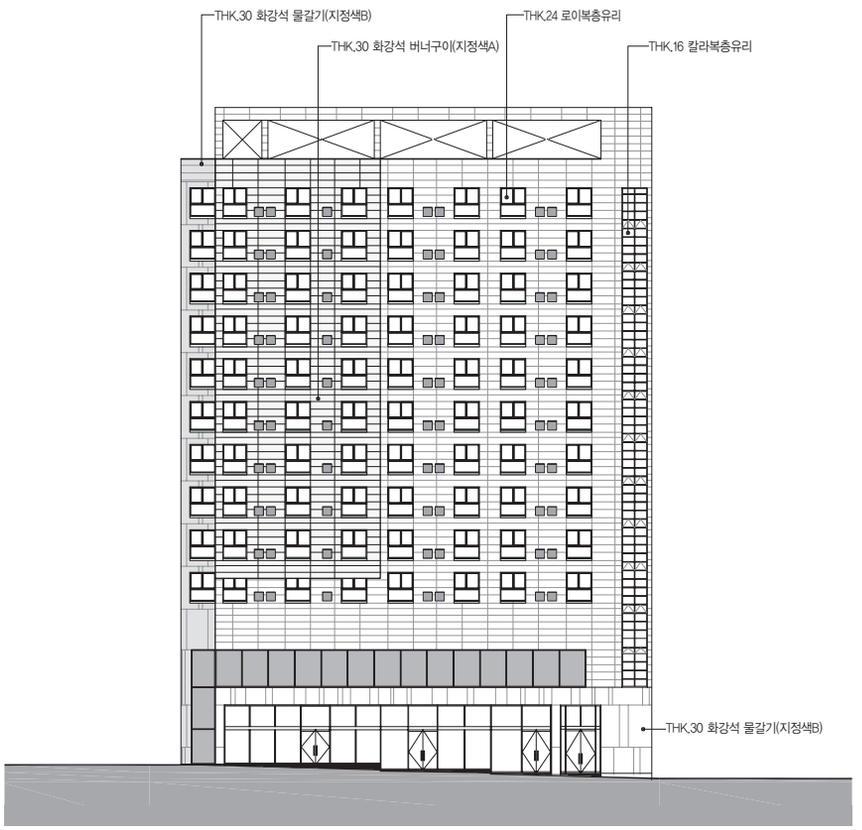


도시형생활주택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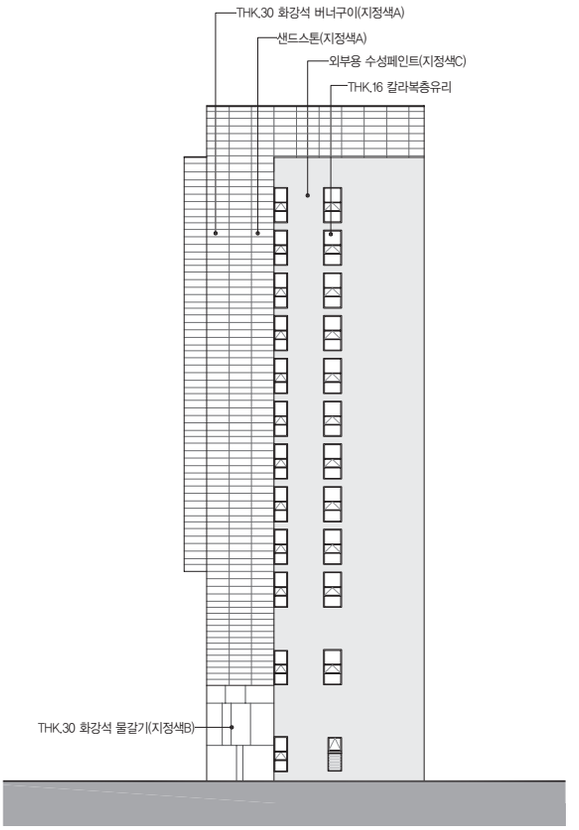
가로와 접한 저층부 상업시설





0 1 5 10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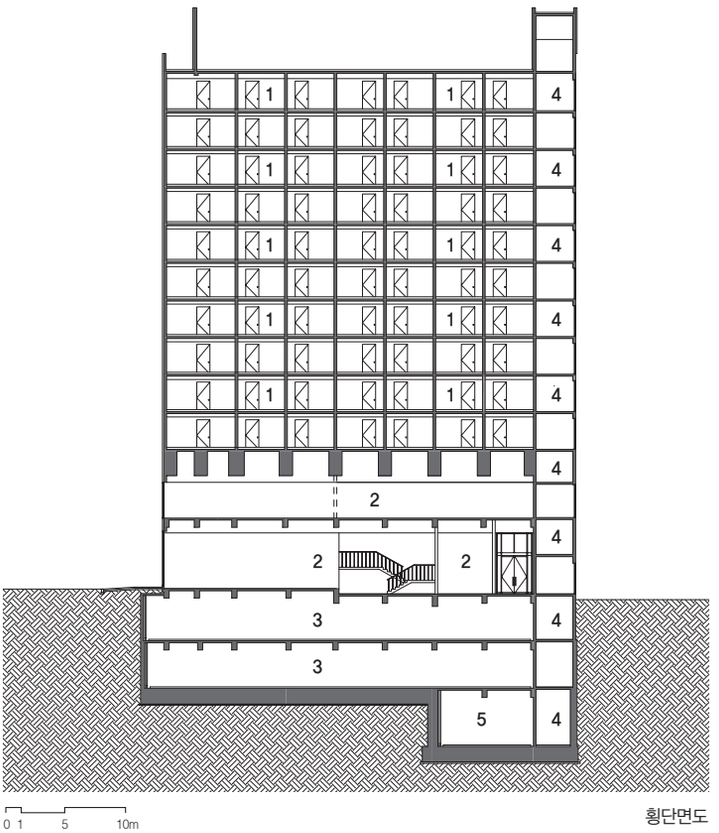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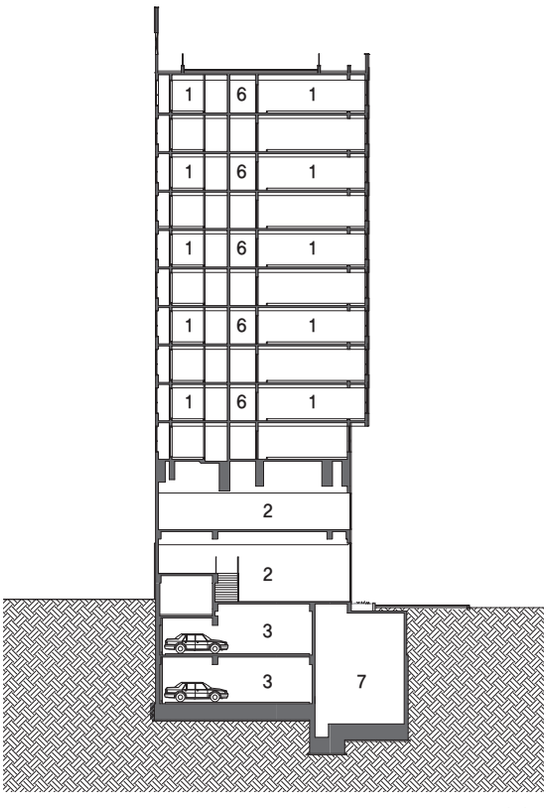
1층 카페



1. 도시형생활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지하주차장
4. 계단실
5. 물탱크실
6. 복도
7. CAR LIFT



횡단면도



종단면도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건축

Construction of Houses in the Development Restricted Area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넘어설 정도로 기존 토지 소유자의 기대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 생활편익 · 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 다. 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가 용어상 언뜻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지의 지목이 공무상 '임야'로 되어 있고, 기존의 주택부지 중 1㎡가 해당 신청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위 1㎡의 토지 부분과 별도로 추가 신축하려는 주택의 부지로 예정한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항소심 법원은 ① 건축물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② 설사 기존의 주택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1㎡의 토지 부분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기존의 주택과 별도로 추가 신축하려는 주택의 부지로 예정한 부분이 서로 겹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신청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였으나(대전고법 2013. 11. 7. 선고 2013누1032 판결 참조), 대법원은 ① 부분 판단은 부적절하지만 ②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참조).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 법령의 문언내용을 살펴볼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만이 해당되며 현황이 대(垈)인 토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참조).

또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4조 제1항),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24조 제3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① 문언상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 당시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생활환경 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던 토지 부분에 신축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주택 일부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그 토지 부분에는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만을 의미하고,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 전부를 의미하거나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참조).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중 일부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이 위치하였던 해당 부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그 부분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 외의 토지부분에 주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9호(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가 신설 · 시행되어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포함하여 주민의 주거 · 생활편익 · 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재. 건축과 미술(2/6)

글. **전영백**_ Chun, Young-paik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정교수

건축을 위한 미술의 제안 : 현대 작가(Contemporary Artist) 6人의 '건축적' 미술작업

2.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

요즘에는 한 작가를 어느 한 분야로 국한시킬 수 없다는 말이 익숙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70년대만 해도 쉽지 않은 얘기였다. 또 미술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건축과 같이 근접 영역에서 전문가로 교육받고 미술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 : 1943~1978)(도1)은 본래 건축학도였다. 그는 1962년부터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에서 6년 동안 수학했다.

그의 '주특기'는 '건물 자르기(building cuts)'다. 1970년대에 더 이상 쓰지 않는 실제 건물을 파격적으로 자르고 과감하게 구멍을 뚫은 연작들로 잘 알려져 있다. 건물의 마루, 벽, 그리고 천정을 뚫어 일종의 '조각적 환경'을 만든 작업들이다. 작가 자신은 이러한 장소-특정적 변형을 'Anarchitecture'라 명명했는데, 이 말은 'anarchy(무정부/무질서)'와 'architecture'의 조합이다. 생전에 그의 작업은 변형된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 과정을 기록한 동영상과 다큐멘터리 사진까지 함께 전시되곤 했다.


도1)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 (1943년~1978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 이래 영국(런던) 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해외출판(Blackwell, Routledge 등)에 주력해 왔다. 『세잔의 사과』(문광부선정 우수학술도서)와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 등 10권의 저서와 17편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HoMA 관장, 동아시아 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마타 클락은 건축 영역에서 자르는 실행을 통해 '짓기(building)'가 아니라 '짓지 않기(un-building)'라는 반(反)건축 운동의 선구자다. 이렇듯 그의 '파괴의 미학'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생활공간에 배어있는 습관적 공간 인식을 깨닫고 건축과 우리 자신의 근본 관계를 환기하게 된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물리적, 신체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임을 실감하게 한다. 그의 작업은 건축에 투사된 심리, 그리고 공간에 깃든 정신과 기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준다.

예정된 소멸, 계획된 부재 : 작품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1978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한 마타 클락의 사후 30년을 기념하여 2007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도 2) 이미 오래 전 실행되었던 그의 작업들이었지만, 전시의 리뷰는 뜨거웠다. 이미 36년이 지났건만, 짧고 굵게 살다간 이 작가가 미니멀리즘 이후 세대 건축사 및 미술가들에게 준 영향은 지대하다.[1]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우리에게 남겨 준 것은 작업의 실체라기보다 그 작업의 자취 내지 증거들이다. 그의 건축 조형, 설치 작업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가가 애초부터 남기지 않을 것을 의도했던 연유에서다.





도2) (왼쪽) 2007년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에서 열린 전시 팜플렛 / (오른쪽) 2007년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전시 전경

전시의 부제는 "Gordon Matta-Clark : You Are the Measure"였는데, 그의 10년 동안의 작업을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조각 오브제, 드로잉, 영화, 사진, 다큐멘터리 자료 등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2년 동안 LA현대미술관(LAMOCA)을 거쳐 시카고 현대미술관을 순회하였고, 광주 비엔날레(2008)까지 참여하였다.(광주에는 총 36점의 작품이 왔는데 설치물보다 드로잉이나 사진, 영상 위주로 전시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는 그의 회고전은 어쩌면 적절한 때에 열린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뉴욕 타임지에서 언급되었듯, 자신의 동시대 작가들과 건축사들에게 '예언자적 영감'이 되어준 그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대를 앞서갔기에 최근에서야 그의 작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미술사에는 작품이 남아있지 않기에 더 유명한 작가가 간혹 있다. 지난 호에 실은 리차드 세라(Ricard Serra)의 〈기울어진 호 *Tilted Arc*〉(1981)와, 그보다 훨씬 젊은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의 〈집 *House*〉(1993)(도 3)이 그렇다. 이전 시대와 달리, 현대에는 개념미술이 주도적이기에, 다시 말해 작품이라는 '물증'보다 그 창작의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드의 〈집〉은 런던 동부(East London) 지역, 거주하



도3) 레이첼 화이트리드, 〈집 House〉, 1993, 그로브 가 193번지, 런던, 영국(193 Grove Road, London, UK)

1) 마타 클락의 의미는 도리어 사후에 더 부각돼 왔다. 2006년 보스턴에서 미술관계 최대 국제학회인 CAA가 개최되었을 때 그에게 아예 세션 하나를 할당할 정도로 학술적 관심도 컸다. 가장 최근 전시는 2013년 뉴욕의 데이비드 즈워너(David Zwirner) 갤러리에서 열렸다. 미술관 전시로 말하자면 2007년 휘트니 전시보다 20년이나 앞선 1985년 시카고 현대미술관에서 열렸고, 이는 세계 여러 나라를 4년 동안이나 순회한 더 큰 규모의 전시였다. 그의 작업은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었는데, 역시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고 드로잉, 사진, 영상들이다.

지 않는 빅토리아식 테라스 주택을 콘크리트로 주조한 작업이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과 대비된 '쓸모없는' 작업이란 점, 그리고 대중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방이 막혀 '들어갈 수 없는 집'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이 작업은 지역주민의 격심한 반발로 철거되었지만, 화이트리드는 이 작품으로 터너 상(Turner Prize)을 수상하였다.

세라의 〈기울어진 호〉나 화이트리드의 〈집〉은 작품의 소멸에도 불구,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가들이 작업의 철거를 의도했거나 예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마타 클락의 경우는 다르다. 작업의 철거는 예상된 것이었고, 소멸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따라서 마타 클락과 같이 작업의 물적 지속성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덧없이 소멸하는 작품을 시종일관 끌고 간 작가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건축에 가한 미적 개입은 처음부터 시한부였고, 잘려지고 구멍 뚫린 그의 건축물 중엔 남아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다만 기록 사진과 동영상, 영화 그리고 일화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작가는 작품의 소멸을 의도한 것이다.

집의 절단 : 신체적 안전, 심리적 안정을 포기하라.

마타 클락이 건물-자르기 작업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창고, 연립 주택 등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 건물이다. 그가 이런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고, 본격적인 것은 1970년대 초부터다. 〈쪼개기 *Splitting*〉(1974)**(도 4)**는 그를 세계적으로 주목하게 만든 초기 대표작이다.

뉴욕 교외지역 중 한 곳인 잉글우드(Englewood) 지역의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집을 동력톱으로 중반까지 절단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한 작업이다. 가옥의 처마 네 귀퉁이를 잘라내어 이것을 '네 개의 모서리(Four Corners)'라는 조각으로 전시하기도 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파격적 행위를 했을까?

이 작품이 지닌 사회적 함의는 지역과 직결돼 있다. 이러한 미국 교외지역의 사생활, 집이 주는 안정감은 사실 그 배면에 있는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함을 감추는 것이다. 이렇듯 도심을 벗어난 교외의 집은 중산층 미국인들의 '꿈'이 투사된 것으로, 저소득층과 백인 아닌 다른 인종들을 배제한 장소를 의미했다. 집이 제공하는 사적 공간은 공적 공간 과 대조를 이룬다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도4) 고든 마타 클락,〈쪼개기 Splitting〉, 1974, 잉글우드 험프리 가 322번지, 뉴저지, 미국(322 Humphrey Street, Englewood, New Jersey, USA)

특히 교외지역에 위치한 집들은 그 도심과의 거리로 인해 공적인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사생활을 보장하는, 아늑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쪼개기〉에 대해 다수의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1970년대 미국인들의 삶의 단절된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를 모성의 공간에 대한 폭력적 공격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타 클락이 이러한 장소의 집을 대상화하고 건물의 한중간을 절단함으로써 '집(가정)'이 의미하는 개인적 안락함, 보장된 안전함에 대한 환상을 깼다는 점이다.

〈오피스 바로크 *Office Baroque*〉(1977)**(도 5)** 또한 마타 클락이 집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깬 작업이다. 여기서 그가 개입하여 깨는 개념은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공간적, 구조적 인식이다.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 해안가의 5층짜리 건물을 절단한 작품으로, 이 작품 역시 사진으로 남아있다. 건물 내부의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물방울 모양의 구멍을 뚫었다. 구멍들은 건물 내부의 공간구조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었다. 구멍을 통해 보이는 고풍스런 건물이 현재의 시간과 교차되며 시간의 단층을 한꺼번에 보여준다. 일상의 건물, 도시의 풍경은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데, 〈오피스 바로크〉는 앤트워프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목격케 한다.



도5) 고든 마타 클락, 〈오피스 바로크 Office Baroque〉, 1977, 앤트워프, 벨기에(Antwerp, Belgium)

건물 내부를 절단하여 내부의 구조적 요소들을 파격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을 상대화하여 바라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장소에 대한 혼란스런 감각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사물의 구조를 인지하는 지각 능력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마타 클락은 언제나 관람자들이 자신이 자르거나 뚫어놓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실제로 체험하도록 의도했다. 이는 196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당시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리차드 세라에서 보듯 미니멀리즘이 보통 단일한 형태를 제시한 것과 달리, 그의 경우는 잘려진 건축물의 구획을 통해 완전히 다른 미적 경험을 유도한다.

그것은 작업물에 진입하는 관람자들이 건물 안의 절단과 분리의 구조를 통해 지각적 분산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람자가 받는 충격은 그것이 일상생활의 건축물이기에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파괴적 건축, 무질서의 구조는 스스로 명명했듯 '아나키텍쳐(Anarchitecture)'나 '노뉴먼트(Nonument)' 등의 용어로 함축되는데, 일상 공간으로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가 크다.

파괴로 인한 창조, 해체를 통한 구축 : 뚫어라, 그러면 달리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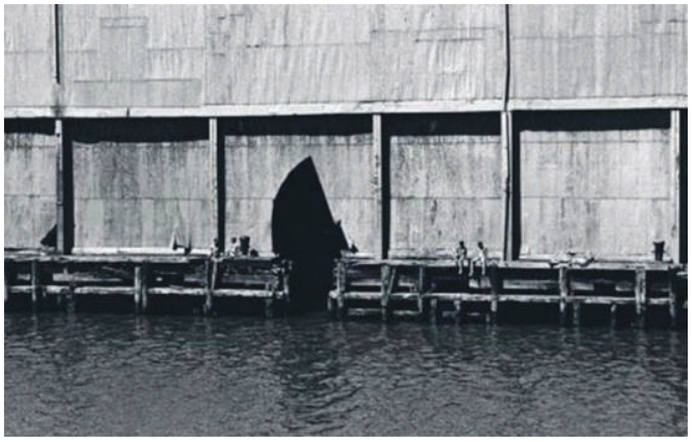
마타 클락의 〈하루의 끝 *Day's End*〉(1975)**(도 6)**은 뉴욕의



도6) 고든 마타 클락, 〈하루의 끝 Day's End〉(부두 52 Pier 52), 1975, 뉴욕, 미국(New York, USA)



도6) 고든 마타 클락, 〈하루의 끝 Day's End〉 (부두 52 Pier 52), 1975, 뉴욕, 미국(New York, USA), 내부 디테일



도6) 고든 마타 클락, 〈하루의 끝 Day's End〉 (부두 52 Pier 52), 1975, 뉴욕, 미국(New York, USA), 남쪽 벽면 외부

부두에 오래된 19세기 양식의 철제 건물을 잘라 구멍을 낸 작업이다. 조각가 조엘 샤피로(Joel Shapiro)는 "크고 굉장한 스케일이었으며 관람자들에게 위험했다"고 회고한다. 컬렉터이자 아트딜러인 홀리 솔로몬(Holly Solomon) 또한 이를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하며, 이 작업을 처음 접했을 때 바닥을 가로지르는 구멍과 그 높이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건물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강물을 봤을 때 관람자가 받은 충격과 혼란을 짐작할 수 있다. 수면이 바닥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건물의 많은 구조들이 들춰지면서 관람자는 건물과 공간을 비교하며 인식할 고정지점을 잃었다. 따라서 그 장소를 찾아 온 많은 사람들의 공포증은 실제로 그 높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닥이 없는 곳에 서 있는 기분, 즉 위치 상의 '탈구(dislocation)'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험한 실험을 했을까?

현대미술에서는 완성된 작품의 관조가 아닌 작업과정에 대한 개입, 그리고 공간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미니멀리즘의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타 클락의 작업처럼 관람자가 체험하는 지각의 중요성이 작업의 내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작가가 또 있을까 싶다. 앞에서 언급한 휘트니 미술관 회고전의 부제가 "You Are the Measure"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작업은 우리의 지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공간과 조형의 관계를 '측정하는(measure)' 것이 핵심이란 뜻이다.

여기서 예술작품을 통해 느끼는 두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람자는 충격적인 작업을 접하며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지각을 체험한다. 이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두려움이므로 신체적 위협을 동반한다. 1960년대 미니멀리즘 이후 미술이 추구해온 것은 시각(눈)이 아닌 공감각적(몸의) 체험이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제한될 필요가 없던 것이다.

미술에서 '미(美)'의 추구란 옛 말이다. 더구나 누가 아름다움을 규정한단 말인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리얼리티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므로, 모더니즘의 환상과 신화를 깬 포스트모던 미술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매일 위협받는 요즈음, 고든 마타 클락의 작업은 삶과 직결돼 있고 그 지각적 혼란이 특히 피부에 와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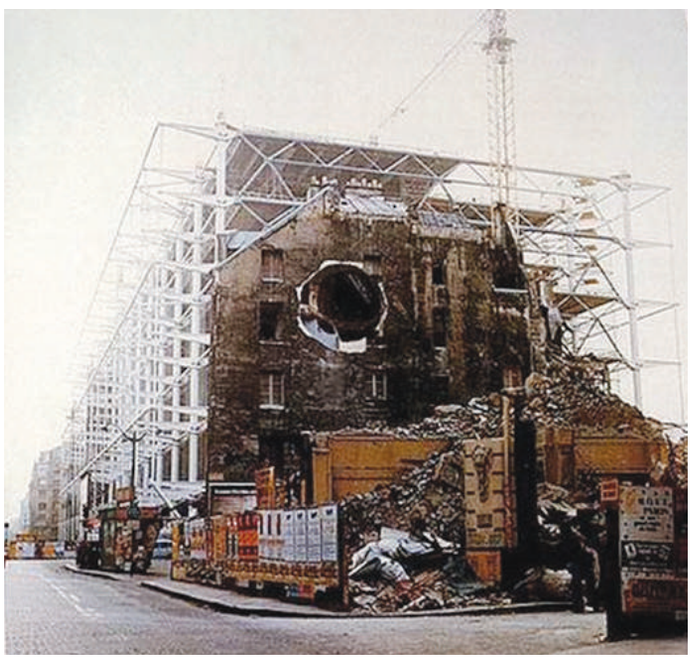
이런 작업을 파괴와 해체로 본다면, 그의 작업을 너무 단순히 이해한 것이리라. 왜냐하면 작가가 자신의 작업이 해체주의라 불리는 것에 분노했고, 건축전공 미술사학자 안소니 비들러(Anthony Vidler)는 마타 클락의 작업이 그다지 파괴적이거나 해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가 건축-자르기를 실행하며 만들어내는 구멍과 절단이 상당히 조형적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 건축의 구조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파괴적 제스처이지만, 파괴는 형태적 관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벽을 잘라 벽의 다층적 구조를 드러내줌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가시적 표면과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 건물 조형의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파괴의 자르기와 뚫기는 고도의 형태주의적 계획을 지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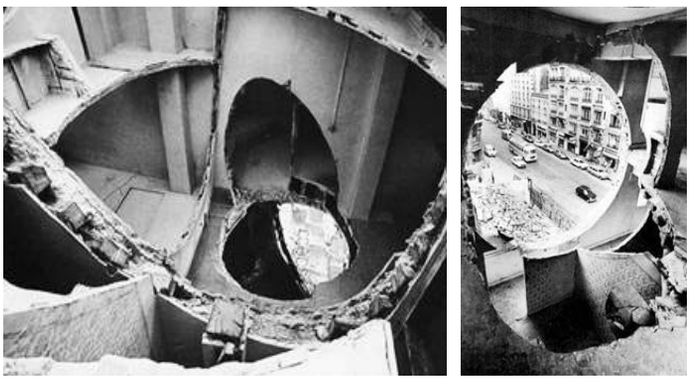
도심을 뚫은 '조형 망원경' : 과거의 폐허를 통해 현재의 진보를 목격하라.

〈하루의 끝〉에서 마타 클락은 허가 없이 건물을 자르는 바람에 경찰에 쫓겨 뉴욕을 떠나 파리에 왔다. 그런데 그가 파리에서 작업한 〈원뿔형으로 가로지르기 *Conical Intersect*〉(1975)(도 7)는 〈하루의 끝〉에서 시도한 건축 실험을 더 과감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추진한 결과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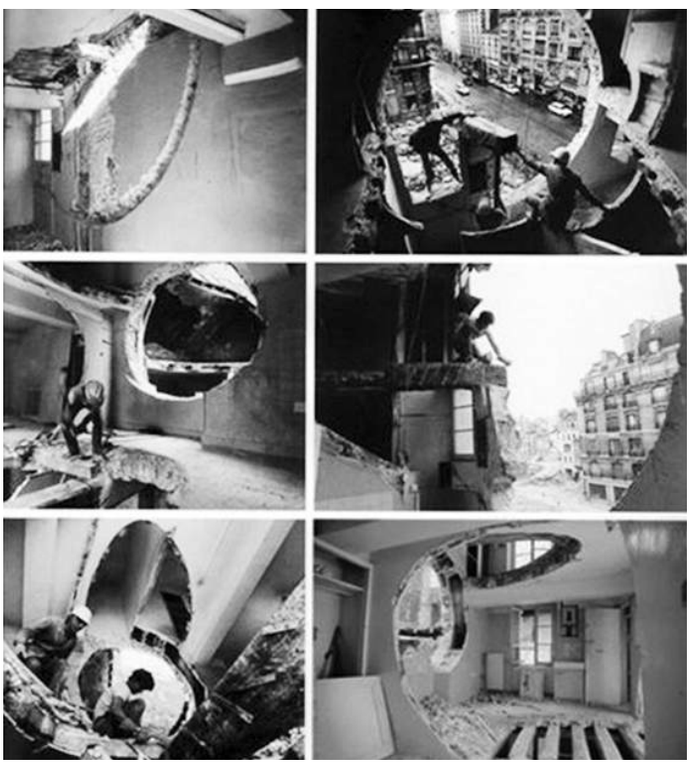
이는 마타 클락의 작업 중에서 그 사회 · 문화적 의미가 가장 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작업 모두 낡은 폐허 건물을 자르고 뚫은 작업이다. 그러나 뉴욕 작업이 부두에 위치한 버려진 물류 창고였다면, 파리에서는 대상으로 삼은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시민거주 건물이었다. 그리고 보부르(Beaubourg)라는 지역 자체가 파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축적한 장소였던 점을 들 수 있다.[2)]



도7) 고든 마타 클락, 〈원뿔형으로 가로지르기 Conical Intersect〉, 1975, 보부르 가 27–29번지, 파리, 프랑스(27–29, rue Beaubourg, Paris, France)



도7) 고든 마타 클락, 〈원뿔형으로 가로지르기 Conical Intersect〉, 1975, 보부르 가 27–29번지, 파리, 프랑스, 내부 디테일(27~29, rue Beaubourg, Paris, France)



도7) 고든 마타 클락, 〈원뿔형으로 가로지르기 Conical Intersect〉, 1975, 보부르 가 27–29번지, 파리, 프랑스(27–29, rue Beaubourg, Paris, France)

2) 파리 제1구인 레알(Les Hall)의 보부르 지역은 주차공간으로 만든 동네였고, 이 오래된 주차장에는 곧 퐁피두 센터(Pompidou Center)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했으므로 많은 옛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1975년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고, 마타 클락의 〈원뿔형으로 가로지르기〉는 이 재건축으로 철거될 예정인 17세기의 두 건물을 작업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의 작업은 보부르 지역에 쌍둥이처럼 나란히 위치한 연립주택 건물에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원형 구멍을 뚫은 일이었다. 이 구멍은 12m의 지름으로 시작되어 4m의 지름으로 마감되었다. 건물의 내부에 들어선 관람자는 수직면과 수평면을 구분하기 힘들어 현기증을 일으키고 극도의 지각적 혼란을 겪었다. 도심 한가운데 총알을 쏜 듯, 폐허 건물에 뚫린 엄청난 구멍은 조형적이고 공간적인 파괴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역사적 투과와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레알 지역 재개발을 위한 옛 시장의 철거는 커뮤니티의 붕괴와 관련이 있었기에 퐁피두센터가 세워지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마타 클락은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의 논란에 매료되었던 바, 센터 건립이 상징하는 역사적 진보라는 수사와 오래된 옛 건물의 철거 사이의 갈등과 긴장에 주목했던 것이다.

〈원뿔형으로 가로지르기〉에 들어간 관람자는 작가가 뚫은 구멍을 쫓아가며 새로 건축되는 퐁피두센터를 보았다. 현대의 최첨단 건물과 철거되기 직전 옛 건물 사이의 대조적 이미지의 조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조형 망원경'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겠는가. 현재의 '진보' 배면에 밀착된 과거의 폐허를 목격한 것이다. 그의 작업은 대립적 두 건축물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스러져가는 죽음을 체험하게 했다.

〈원뿔형으로 가로지르기〉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진보가 지닌 환영에 대한 자각과 과거의 폐허 위에 세워진 현재의 발전이라는 아이러니를 각성케 한 작업이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제시한 모더니티의 역설과 그 비판적 역사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셈이다. 마타 클락의 작업은 현재의 발전된 물질문명이 과거의 파괴와 폐허를 담보로 한다는 벤야민의 변증법적 개념을 눈으로 확인시켰다.

따라서 마타 클락의 작업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건축적 행위지만, 그것이 이끄는 효과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며 또 지극히 개념적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을 그의 작업이 오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라 생각한다. 작가 자신도 이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내 작업은 물론 무척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에 대한 호기심이나 분석보다 정신적인 개조(alteration)와 더욱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업노트에서 자신의 작업이 "공간을 마음의 상태로 변환시킨다"고 강조하였다.

건축적 설치작업 : 건축인가, 조각인가, 아니면 미니멀리즘 오브제인가?

그의 건축-자르기 작업을 어떤 범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를 조각도, 건축도, 풍경도 아닌, "건축이자 동시에 풍경"이라고 규명한 경우도 있고, 건축을 조각적으로 변형한 작업이라 본 이론가도 있다. 작가 자신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이 건축에 조각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조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의 작업은 조각보다는 역시 건축에 보다 가깝고 엄밀히 말해, '건축적 설치작업'이라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렇듯 일정한 범주에 잡히지 않는 속성은 미니멀리즘의 작업과 유사한 면이다. 그리고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작품이란 점에서도 그러하다. 때문에 마타 클락의 작업은 앞서 언급한 세라를 위시한 미니멀리스트와 묶여 이야기된다. 특히나 세라가 활용한 얇은 철판을 공유하고 스케일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타 클락은 세라와 연관된다. 미술품을 제작이나 구성의 견지가 아니라 '해체(dismantling)'의 견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 또한 미니멀리즘과 공통적이다. 즉, 마타 클락의 건축-자르기에서 보이는 건물의 해체와 세라의 작업에서 보이는 원초적 재료로의 회귀가 그러하다.

그러나 마타 클락이 갖는 독자성은 미니멀리즘을 벗어난다. 후자의 경우, 단일한 형태를 추구했기에 구조를 조각내는 것을 거부했지만, 마타 클락은 반대였다. 그는 자르기를 통해 구조를 조각내고자 했고, 자신의 작업에 대해 "단일한 전면적 조망을 허락하지 않는 내부의 복잡성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조각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려니 건축물을 잘라 복잡한 내적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도를 해체주의라 부른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미니멀리즘의 작업들이 대부분 갤러리나 미술관의 전시공간에 한정된 반면, 마타 클락의 작업은 도시의 생활공간에 개입하고, 압도적 스케일로 진행된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세라의 작업이 공간과의 관계가 직결된다고 해도 장소와 작품이 일치하는 마타 클락의 작업과는 다르다. 그가 장소를 작업에 전격 도입한

것은 당시 부상된 대지미술에 기인한다. 그에게 작업은 장소이고, 장소는 곧 작품이었던 것이다.

마타 클락 작업의 미적 배경

마타 클락이 코넬대학 건축학과 재학시절, 모더니즘 건축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탈피한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부친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칠레 출신인 로베르토 마타(Roberto Matta)는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건축사였다. 그는 1930년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모더니즘 미학에 반하는 건축을 제작하였다. 코르뷔지에의 스튜디오에서 2년간 작업했지만, 그는 모더니즘 건축의 기하학적이고 기능적 공간을 거부했던 것이다.

마타 클락 역시, 1960년대 코넬대학의 규범적인 모더니즘 건축교육과 함께 당시 교수진이 경도돼 있던 네오 코르뷔지에 형식주의에 반발하였다. 그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부친이 추구한 자유로운 초현실주의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하겠다.

또한 그의 작업에 직접적 영향을 준 작가로 대지미술가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을 들 수 있다. 〈나선형 방파제 *Spiral Jetty*〉(1970)**(도 8)**로 잘 알려진 스미드슨은 1960년대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에 중요하게 부각된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을 대지미술로 보여준 대표적 작가다. 버려진 폐허를 인위적 행위로 더욱 폐허화한 스미드슨의 작업은 마타 클락에 큰 영감을 주었다. 그의 건축-자르기 작업이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건물을 대상으로 삼은 것도 스미드슨과 관계된 점이다. 스미드슨이 제시한 '탈(脫)건축(De-Architecturization)'의 개념과 마타 클락이 '반(反)기념비성'을 뜻하며 만든 '노뉴멘트(Nonument)'란 용어는 폐허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근원이 같다.



도8) 로버트 스미드슨, 〈나선형 방파제 Spiral Jetty〉, 1970,진흙, 소금 결정, 암석, 물 고리, 1500' x15'(mud, precipitated salt crystals, rocks, water coil 1500' long and 15' wide), 로젤 포인트,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유타주, 미국(Rozel Point, Great Salt Lake, Utah, USA)

나가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건축계와 미술계 양쪽 모두에 충격을 주었던 마타 클락의 '건축-자르기(building cuts)' 작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격적이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을까'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엄청난 스케일의 작업에 대한 추진력과 자신감 또한 존경스럽다. 그런데 그런 창작의 역발상은 개인적 창의력뿐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사회,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활발히 작업하던 1960년대 후반은 베트남전으로 인한 반전운동(反戰運動), 그리고 성적(性的) 자유와 마약을 통한 반(反)문화 운동이 거리를 휩쓸던 격변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에 반응한 미술계는 포스트모던 미술을 발현시켰다. 회화와 조각의 제한된 전통 매체에서 벗어나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대지미술, 퍼포먼스가 성행했다. 마타 클락의 과감한 미적 실험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발원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타 클락의 작업은 버려진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구멍을 내어 파격적으로 달라진 공간과 구조, 그리고 배경 사이의 관계를 체험하게 한다. 그의 건축-자르기 작업이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미술관에서 보는 관조적 대상이 아니라 실제 건물이란 점에 있다. 과거의 특정 시기와 문화에서 구체적 삶의 역사를 담았던 건물은 오늘날의 미끈한 익명적 빌딩 이전에 폐허로 남았던 기억 속 현장이었다. 그러기에 그 충격이 역설적 감동을 주는가 보다.

연재.

글. **천장환**_ Cheon, Jang-hwan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라이트 vs. 미스

Frank Lloyd Wright vs. Mies Van der Rohe

이디스 판스워스(Edith Farnsworth)

시카고의 명문 집안 출신인 이디스 판스워스(Edith Farnsworth)는 1945년 친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미스를 만났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바이올린을 사랑했고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뒤 시카고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신장병 분야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당시 40대의 미혼이었던 이디스 판스워스의 주말휴식 별장으로 계획된 판스워스 하우스(Farnsworth House)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75km쯤 떨어진 일리노이 주의 플래이노(Plano)에 있는 폭스(Fox) 강과 맞닿은 39,000㎡의 넓은 땅 위에 놓여 있다.

최소한의 기능적인 요구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건축사에게 이상적인 프로젝트였다. 미스는 재빨리 아이디어를 내고 개략적인 콘셉트를 잡은 뒤에 천천히 일을 진행해 나갔다. 판스워스 또한 별장을 짓는 데 서두르지 않았다. 미스와 판스워스는 대지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정기적으로 집터에 가서 소풍을 즐기고는 했다. 1946년에 전반적인 설계가 끝났지만, 실제 공사는 1949년 9월이 되어서야 시작되어 1951년에야 끝났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둘 사이의 관계는 점차 업무 이상으로 발전했다. 미스와 판스워스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둘 사이가 로맨틱한 관계였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어디까지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판스워스 하우스의 겨울 풍경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M. Arch)를 받았다. 졸업 후 5년간 뉴욕과 보스톤에서 실무를 익힌 후 2009년 가을부터 네브라스카 주립대에서 3년간 조교수로 근무했고, 2012년 9월부터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울러 이머시스(www.emer-sys.com)를 통해 건축과 도시 및 가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넘나들며 리서치 및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건축을 바꾼 두 거장〉 (2013) 이 있다.

연재 목차

1. 라이트_ 제1의 황금기와 상실의 시기_ 로비 하우스와 제국 호텔
Wright_ the 1ST Golden Period and Lost Years_ Robie House and Imperial Hotel
2. 라이트_ 전설이 되다_ 낙수장과 구겐하임
Wright_ The Legend_ Fallingwater and Guggenheim
3. 미스 인 베를린_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빌라 투겐타트
Mies in Berlin_ Barcelona Pavilion and Villa Tugendhat
4. 미스 인 아메리카_ 판스워스 하우스와 시그램 빌딩
Mies in America_ Farnsworth House and Seagram Building

4. 미스 인 아메리카_ 판스워스 하우스와 시그램 빌딩

Mies in America_ Farnsworth House and Seagram Building

이 집은 사방이 완전히 유리로 덮인 직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 슬래브는 지면으로부터 1.5m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옆의 강이 일으킬지도 모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총 3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홍수의 피해를 입었다.) 9m×23m 크기에 유리로 둘러싸인 내부공간은 8개의 철골(H형강 Wide Flange) 기둥에 의해 지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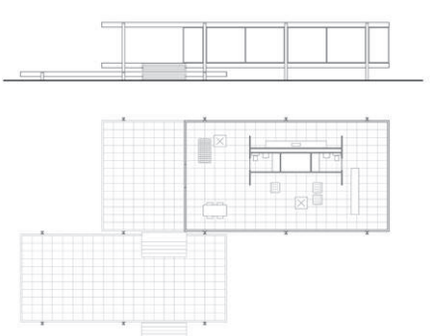
낮은 계단을 올라 집만큼 널찍한 테라스로 올라서자, 또 다른 계단이 방문자를 테라스에서 파티오(Patio)로 이끌었다. 오른쪽으로 90도를 돌아서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보였다. 내부는 한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은 기다랗게 놓여 있는 코어(Core)로 구분되어 있었다. 코어는 부엌과 화장실, 창고, 벽난로 등을 포함했다. 코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유리를 통해 바깥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또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에어컨디셔닝(Airconditioning)은 없었으나 현관과 집의 다른 쪽 끝에 위치한 작은 창문을 열어서 양방향으로 환기(Cross-ventilation)를 할 수 있었다. 지붕은 배수를 위해 안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었는데, 모든 배관과 전력선들(Utility line)이 연결되어 내려갔다.



판스워스 하우스의 테라스와 파티오

자연을 위한 건축, 판스워스 하우스

판스워스 하우스는 미스가 15년 만에 디자인한 주택으로, 구조와 공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비대칭적으로 사방을 향해 뻗어 나가던 1920년대의 주택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직육면체 유리박스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미스는 모든 데크(Deck)와 바닥에 로만 석회석(Roman Limestone)을 사용했고, 스틸 기둥은 표면의 부드러움을 위해 모래로 갈아낸 뒤에 하얀색으로 칠했다. 미스는 재료를 직접 골랐고, 모든 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디테일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집은 집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미학적 완성도가 훨씬 뛰어나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미스의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는 재료적 감성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어 보인다. 네 면을 둘러싼 커다란 유리판들은 추운 겨울에는 내 · 외부의 온도 차에 따른 결로현상으로 물방울이 맺히기 일쑤였고, 여름에는 태양열을 받아 내부를 뜨겁게 달구는 온실효과를 냈다. 환기는 잘 안 되었고, 유리벽을 따라 둘러친 커튼은 내부 열을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 미스는 처음에 파티오에 방충망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는데, 자신이 모기들에게 심하게 물린 뒤에야 방충망을 설치해서 외부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판스워스의 요구에 응했다.



판스워스 하우스의 입면도와 평면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이는 자연은, 특히 빛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점차 내부 공간으로 스며들고, 거주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보내는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한다. 이는 밖에서 바라보는 자연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내부는 정적인 공간을 위한 것이지, 흐르는 공간을 위한 것은 아닌 듯하다. 거주자는 움직이려는 자극을 받기보다는 자리에 앉아 변화하는 자연을 내다보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는 벽들 사이로의 흐름과 재료의 반사를 통해 건물을 느꼈다면, 여기서는 건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연이 차지한다.


뒤쪽에서 바라본 판스워스 하우스


내부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이곳에서는 외부의 자연이 내부공간으로 고스란히 스며든다.

법정 다툼

판스워스 하우스의 완공이 가까워 올수록 미스와 판스워스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비용은 올라만 갔다. 원래 예산은 4만 달러로 책정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될 쯤에는 50%가 올라 6만 달러가 되었다. 미스는 그것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최고의 재료와 장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스워스는 미스가 자신의 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판스워스의 불만은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쳤다. 미스는 자신이 디자인한 가구와 커튼을 판스워스가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둘 다 거절했다. 결국 미스는 판스워스의 어머니에게 커튼을 선물하여 판스워스가 어쩔 수 없이 그 커텐을 걸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

물론 이러한 취향과 비용에 대한 다툼은 심각했지만, 그들의 법정 싸움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1946~1949년에는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판스워스는 미스가 어떤 건물을 설계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판스워스가 미스에게 건축주의 입장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커다란 다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엄청나게 초과된 건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자존심 싸움이었다.

미스와 판스워스의 지루한 법정 싸움은 1953년 봄과 여름 사이에 일리노이의 요크빌(Yorkville)에서 벌어졌다. 미스가 집을 짓는 데 개인적으로 지출한 28,173달러는 판스워스가 빚진 돈이니 갚으라고 주장했다. 판스워스는 오히려 미스가 처음 예산보다 훨씬 많이 썼다며 33,872달러를 미스에게 요구했고, 미스와 그의 직원들을 무능하다고 고발했다. 변호사에게서 미스의 증언을 전해들은 판스워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당신은 그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철의 특성이나 표준 치수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설에 대한 지식이나 고등학교 물리 또는 일반 상식마저도 무지했지요. 그가 아는 것이라곤 자신의 콘셉트에 대한 무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미스는 이날 증언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알려졌고, 나중에 측근들에게 다시는 법정 다툼을 하지 않겠다며 진저리를 쳤다고 한다. 그 소송에서 결국 판스워스는 졌고 미스는 14,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비판과 찬사

대부분의 건축 비평가들은 미스의 설계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완성이 되기도 전에 학생과 일반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에 반한 격렬한 반대도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53년 『하우스 뷰티풀(House Beautiful)』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로, 「미국의 다음 세대에 대한 위협(Menace to the New America)」이란 글이었다. 이 글은 미스뿐 아니라 국제양식 전반에 걸쳐 비평한 것이며, 특히 바우하우스 스타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글의 필자는 르 코르뷔지에, 그로피우스, 미스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미스의 건축은 차갑고 황량하며 미스의 가구들은 메마르고 불편하다고 썼다.

이디스 판스워스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집은 옷걸이 하나를 사더라도 밖에서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해야 하고, 가구 배치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집이 X-레이같이 너무도 투명하기 때문이죠."*라고 폭로했다.(빌라 투겐타트에서 미스 디자인을 옹호하던 그레테 투겐타트의 태도와는 180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재판 뒤의 판스워스 하우스

1972년에 판스워스에게서 그 집을 사들인 런던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터 팔럼보(Peter Palumbo)는 미스를 매우 존경하여 대가

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 그는 미스의 사무실을 이어받은 그의 손자 더크 로한(Dirk Lohan)을 고용하여 그 집을 원래대로 복원했다. 방충망을 없애고 뜨거운 여름날에는 창문과 문을 열어 놓은 채 무지막지하게 덤벼드는 벌레들을 참아 냈다. 내부의 나무 벽에 어떤 그림도 걸지 말라던 미스의 뜻에 따라 팔럼보는 조각을 놓았다. 그는 그 집의 이상적인 주인이었는데, 집에 엄청난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을 만큼 부자였으며, 거기서 기껏해야 1년에 얼마간만 지냈고 그것도 낮에만 지낸 뒤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10여 분 거리의 마을에 있는 빌라로 갔다.

이 집은 폭스 강의 홍수에 대비해서 지상에서 1.5m 높이로 들어 올렸지만, 1951년 이후로 3번에 걸쳐(1952년, 1996년, 2008년) 홍수의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세심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1996년의 홍수 피해는 너무도 심하여,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내부의 가구가 모두 떠내려가면서 팔럼보가 매우 아끼던 피카소의 그림마저 유실되었다고 한다. 팔럼보는 이때의 홍수 피해로 너무도 낙담하여 그 집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가, 2003년에 팔기로 결심하고 경매에 내놓았다. 이에 판스워스 하우스의 장래를 걱정하던 전 세계의 보존가와 자원봉사자들이 그 집을 원래대로 보존하기 위한 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마침내 사적 보존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에서 가까스로 750만 달러를 마련해서 그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후 수년간의 보수 공사 끝에 일반에 공개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아들이고 있다.(내가 방문했던 2012년 5월에도 파티오의 타일을 보수 공사하고 있었다.)



폭스강 건너에서 바라본 판스워스 하우스. 강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세 번에 걸친 홍수 피해를 입었다.



판스워스 하우스의 이상적인 주인이었던 피터 팔럼보.

판스워스 하우스는 미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 디자인이었다. 미국에서 이처럼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은 팔리기 어려웠다. 미스는 커튼이 벽보다 사생활 보장에 더 유리하고, 직접 디자인한 캐비닛은 여기저기 옮겨져서 공간을 구획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유럽 시절의 대표작이듯이, 판스워스 하우스는 미국 시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주택 건축에서 자유롭게 예술성을 추구하던 초기의 성향에서 좀 더 엄격하고 궁극의 공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건축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작품이 바로 판스워스 하우스라 할 수 있다.

필생의 역작, 시그램 빌딩

1950년대 초반, 뉴욕에서는 빌딩 붐이 일어났다. 경제 공황과 전쟁으로 인해 20여 년간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자 사무실 공간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맨해튼 여기저기에서 고층 건물이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몰려 있던 파크 애비뉴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4년에 주류회사인 시그램 앤드 선스 社(Joseph E. Seagram & Sons Corporation)는 1958년까지 회사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파크 애비뉴에 기념비적인 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사장의 딸이었던 필리스 램버트(Phyllis Lambert)는 당시 모마(뉴욕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의 건축담당 디렉터로 일하고 있던 필립 존슨과 함께 전 세계 건축사들의 작업을 자세히 연구했고, 두 달에 걸친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미스를 선택했다.(필립 존슨의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이로써 미스는 68세의 나이에 자신의 건축 인생에서 최고 정점을 이룰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다. 시그램 社는 아낌없는 예산(최종 비용 4,100만 달러)과 함께 설계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미스에게 주었고, 미스는 최고의 건물로 보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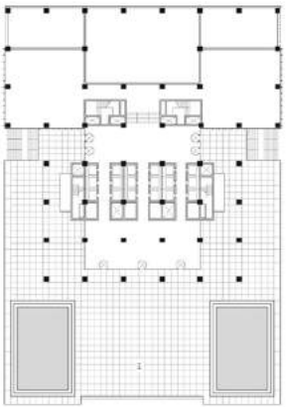
미스는 필립 존슨과 공동 작업을 했는데, 이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필립 존슨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미스를 위해 힘을 쏟았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미스의 방식에 충실한 건축사였다. 게다가 미국 건축사협회의 뉴욕 지부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없었던 미스에게 건축사 면허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에, 1955년부터 1957년까지 필립 존슨이 법적으로 이 건물의 유일한 건축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둘은 시그램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결별하게 되고, 다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시그램 빌딩 모형 앞에 선 미스와 그 뒤의 필립 존슨

시그램 빌딩의 광장,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다

1916년에 공표된 뉴욕 건축법규에 따르면, 건물이 보행자를 압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가로에서 뒤로 물러나서 지어져야 했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타워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의 25%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되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웨딩 케이크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시그램 社에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52가와 53가 사이의 파크 애비뉴 땅에 이 법규대로 설계를 한다면 원하는 면적에서 턱없이 부족했기에, 시그램 社에서는 추가로 땅을 구입하여 52가와 53가 사이의 한 블록 전체를 대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미스는 이제껏 설계를 하면서 주변 환경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그램 빌딩만은 예외였다. 미스는 수많은 설계용 모형 (Study Model)을 만들면서 단순한 형태가 주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최종적으로 평면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대5에, 파크 애비뉴와 나란히 면하고, 거리에서 27m 뒤로 물러선 직사각형 타워를 결정했다. 이러한 형태는 법규가 허용한 임대 가능한 면적을 꽤 많이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시그램 社는 나중에 이 빌딩의 유명세 덕분에 주변 건물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 결정이 꼭 금전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시그램 빌딩의 평면도



시그램 빌딩–광장–도로–라켓 앤드 테니스 클럽 빌딩의 단면 다이어그램. 시그램 빌딩과 라켓 앤드 테니스 클럽 빌딩의 조화로운 배치에 광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미스의 결정이 뉴욕 시민들에게 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빌딩 앞에 널찍한 광장이 생긴 것이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뉴욕 중심가에는 록펠러 센터를 제외하고는 열린 도시 공간이 거의 없었다. 유명한 건축역사가였던 루이스 멈퍼드(Louis Mumford)는 나중에 이 공간을 가리켜 "거대한 빌딩군으로 이루어진 록펠러 센터가 제공했던 공공공간을, 시그램 빌딩은 혼자서 제공했다."고 극찬했다. 시그램 빌딩의 바로 길 건너에는 1918년 당시에 유명 건축사사무소였던 매킴 미드 앤드 화이트(Mckim, Mead and White)에서 설계한 유서 깊은 '라켓 앤드 테니스 클럽(Racquet and Tennis Club)'의 건물(이하 '라켓 클럽')이 있는데, 미스는 주변 고층 건물들에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던 이 건물과의 사이에 널찍한 광장을 놓음으로써 숨통을 터주었다. 라켓 클럽은 도로에 면하여 지은 4층의 벽돌 건물이었고, 시그램 빌딩은 도로에서 물러나 유리와 철로 지은 39층 건물이었다. 이 두 건물은 좌우 대칭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도 덩어리(Mass), 공간(Volume), 높이 등의 차이가 너무 크지만, 둘 사이에 놓인 널찍한 광장 덕택에 조화를 이룬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거리에 바로 면한 건물은 보행자들이 그 크기나 형태를 한눈에 알아채기 힘들지만, 파크 애비뉴를 따라 걷다가 만나는 시그램 빌딩은 널찍한 공간을 두고 있어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스는 광장을 포디움으로 높여서 3개의 계단을 통해 접근하도록 했다. 화강암으로 덮인 광장은 널찍이 열려 있고, 양쪽으로 두 개의 분수가 대칭으로 놓여 있다. 잔잔한 두 개의 분수와 포디움은 광장과 빌딩을 그 주변과 어울리게 만들면서도, 전혀 다른 곳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 점심시간에 그곳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풀 주변에 모여 앉아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전혀 공원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맨해튼의 빌딩 숲 사이에서는 일에 지친 직장인들의 훌륭한 안식처가 된다.



시그램 빌딩의 광장에서 바라본 라켓 앤드 테니스 클럽 빌딩

시그램 빌딩의 디테일

시그램 빌딩의 1층은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커튼 월은 그 위부터 기둥의 앞쪽까지 이어져 있다.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 거대한 철골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하고, 저층부에서는 포디움에 사용된 대리석이 로비 안까지 이어져 광장이 빌딩 안까지 연장된 느낌을 받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덧붙여진 철골빔은 위로 쭉 뻗는 듯한 입체적인 느낌을 한층 더해 주는데, 어두운 색의 유리와 청동(Bronze)으로 된 커튼 월은 전체의 표면을 오래된 동전처럼 보이게 하여 시간이 지났음에도(또는 지날수록) 우아한 느낌을 준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3,200만 파운드의 청동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역시 값비싼 자재였던 화강암, 대리석과 함께 이 건물에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간 가장 큰 이유였다. 청동 가격이 상승하고 대규모의 청동 제조공장이 사라진 뒤로, 이처럼 청동이 많이 사용된 건물은 다시는 지어지지 못했다.

건물은 앞에서 보면 단순한 직육면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에서 보면(또는 위에서 보면) T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튀어나온 코어 부분의 뒤쪽으로 10층 높이가 덧붙여졌고, 그 양쪽으로 4층 높이의 날개가 있다.〈이 부분은 부출입구로 쓰이는데, 한쪽에는 필립 존슨이 디자인한 포 시즌스(Four Seasons)란 레스토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뉴욕의 유명 건축사인 딜러 스코피디오+렌프로 (Diller Scofidio+Renfro)가 디자인한 브라스리(Brasserie)란 레스토랑이 있다. 포 시즌스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내부 변경 때 엄격한 제제가 따른다.〉

이러한 점을 트집 잡으며 건물이 '순수한 입방체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파크 애비뉴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시그램 빌딩을 찍은 어떤 사진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게다가 T자 형태의 부분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그램 빌딩의 시각적 순수성을 해치지 않고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해 주었다. 높고 가는 형태의 시그램 빌딩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풍력에 대비해서 양쪽 끝에 콘크리트벽이 필요했는데, 미스는 이 벽을 대리석으로 감싸고 다시 멀리온으로 둘러쌌다. 이 디테일들은 매우 세심하게 처리되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지만, 미스가 말하는 논리와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건물 이미지에 통일성을 준 것은 사실이다.


시그램 빌딩의 뒷부분. T자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다.


시그램 빌딩의 구조체를 둘러싸고 있는 멀리온. 이것 덕분에 건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미스는 시그램 빌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콘셉트와 시그램 빌딩에 대한 접근 방식은 내가 설계했던 다른 빌딩과 다르지 않다. 내 생각, 아니 더 적합한 말로 '방향'은 '깨끗한 구조와 건설(Clear structure and Construction)'이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의 건축 전반에 해당된다. 나는 각각의 빌딩이 그 나름의 캐릭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건축이 풀어야 할 일반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그램 빌딩은 내가 처음으로 뉴욕에 짓게 될 건물이었기에, 나는 평면을 연구하면서 오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조언을 구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의 관점에서 임대를 주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무엇인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뉴욕 시의 빌딩 법규였다. 내 방향이 결정된 뒤에는 이 조언들과 함께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아 있었다.


전면에서 바라본 시그램 빌딩


미스가 런던의 맨션 하우스 광장에 계획했던 20층 타워의 모형

시그램 빌딩의 판박이들 중에는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스가 유럽에 지은 최초의 고층 타워가 될 수 있었던 프로젝트도 있었다. 이때의 인연으로 나중에 판스워스 하우스를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 개발업자 피터 팔럼보와 함께 추진했던 계획으로, 런던의 중심가와 주변에 걸쳐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았던 맨션 하우스 광장 (Mansion House Square)에 20층짜리 타워를 짓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이 발표되자 격렬한 반대가 일었고, 미스가 죽고 나서도 15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결국 팔럼보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던 찰스 왕세자는 미스의 계획안을 보고 "시카고에나 어울릴 유리 기둥뿌리(Glass Stump)" 라고 비난했고, 팔럼보는 한때 친구였던 찰스 왕세자와 영원히 갈라서게 된다. 전통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찰스 왕세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던 건축을 반대하고 전통 건축을 옹호하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앞장서며 많은 현대 건축사들과 대립했다.

"더 적을수록 지루하다"

1960년대에 이르러 미스의 작업은 타워(Tower)와 파빌리온(Pavilion)이라는 2개의 기본 타입이 반복되어 나타났는데, 사실 건물만 뚝 떼어 놓고 보면 어느 도시에 있는 건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건축 비평가들은 빌딩에 대한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이 모더니즘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스에게는 모더니즘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었고, 건축이란 '혼돈을 질서로 정돈하는 논리의 집대성'이었기에 이런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1960년대의 미국 대도시에는 유리와 철로 만든 비슷비슷한 형태의 건물이 여기저기서 올라갔지만, 이러한 개발이 통합된 도시 경관을 만들지는 못했다. 미스는 자신의 건축이 반복적이라는 비난에 대하여, *"건축에서 해결 방법들은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더 잘 다듬어지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기능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하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조로움은 통합이 아니었고, 현대 도시의 복잡함 또한 나쁜 현상만은 아니었다. 로버트 벤츄리는 그의 저서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1966)에서 혼돈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주장하며, 미스가 한 유명한 말인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Less is more)'를 '더 적을수록 지루하다(Less is bore)'라는 말로 비틀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모더니즘이 도시에게서 다양성의 풍부함과 변화의 생동감, 장식이 형태에 제공할 수 있는 깊은 의미들을 빼앗아 갔다.'고 역설했다.

말년의 미스

미스가 미국으로 왔을 때는 거의 빈 몸이었다. 그가 베를린에서 활동할 당시에 남겼던 수많은 드로잉과 사진들은 커다란 몇 개의 박스에 담긴 채 그의 제자였던 에드바르트 루트비히(Edward Ludwig)의 고향인 튀링겐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나마 이것도 릴리 라이히(Lilly Reich)가 있었기에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59년, 바우하우스 기록보관소의 직원이 이곳에 있던 자료들을 발굴함으로써 이 자료들을 미스에게 돌려보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 동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 사이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1963년에 결국 두 나라 사이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미스는 데사우(Dessau)의 바우하우스 시절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모마 측에서는 1947년에 열었던 미스의 단독 전시회 자료들을 기증해 줄 것을 미스 측과 협상하는 중이었는데, 미스는 이 자료들과 더불어 독일에서 온 자료 모두를 기증했다. 이에 모마는 '미스 반 데어 로에 아카이브(Mies van der Rohe Archive)'를 설립하고, 2만 점이 넘는 방대한 미스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말년의 미스는 허리 근육이 당겨지는 증상으로 고통이 심해져서 신경 근육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지만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시력도 급속히 나빠져서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었다. 1966년, 80세 생일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도암마저 발견되었다. 1969년, 미스는 그로피우스가 죽은 지 1주일 뒤에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였고, 다음날 아침에 호흡 곤란과 함께 식은땀을 잔뜩 흘렸다. 병원에 입원한 미스는 2주간 의식을 찾았다 잃었다가를 반복하다 1969년 8월 19일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 장례식은 가까운 친지들만 참석한 채



미스의 건물을 본뜬 현대 도시의 모습들

간단히 진행되었지만, 같은 해 10월 25일에 친구들과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미스의 숭배자들이 일리노이 공과대학교의 크라운 홀에 모여 그를 추모하기 위한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미스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만, 모더니즘에 대한 비난은 그의 무덤 위로 몰아쳤다. 1960년대의 모더니즘은 자본주의와 결탁하



미스가 설계한 마지막 건물인 마틴 루터 킹 도서관. 저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고층에서 보이던 디테일이 거의 그대로 쓰였다. 마치 시그램 빌딩의 윗부분이 싹둑 잘려나간 것같이 느껴진다.

여 자본주의의 번영에만 기여했고, 여러 도시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등한시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입맛에 맞는 모더니즘만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도시 재개발의 실패, 인구 폭발 및 도심 공동화 현상, 무미건조한 고층 박스들이 모더니즘 실패의 증거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논리만을 내세운 디자인이 도심 경관에 황량함만을 더했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현대건축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들을 모두 미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건축사들이 만든 현대 도시의 모습이 그를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만들었다. 같은 건물 요소를 계속 반복하던 미스의 작업은 비평가들에게 가장 피해야 할 정통 모더니즘의 형태를 대표했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대표적 인물이자 그 폐해의 장본인으로 미스를 꼽는 것은 미스 건축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의 건축이 가진 수많은 장점을 덮어버리는, 결코 옳은 방식으로 그의 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스가 건물 설계를 할 때 보였던 반복적인 접근 방식은 고층 타워뿐 아니라 저층 건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기술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저층 건물에는 굳이 필요 없는 수직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은 점은 사실 실망스럽다. 하지만 이는 디테일을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다듬는 데 에너지를 다 소모했기에 그 밖의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미스는 종종 독일 속담인 "악마는 세밀한 데 깃들어 있다.(Devil is in the detail)"를 인용하고는 했는데,(이는 세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는 이 속담을 살짝 바꿔서 *"신은 세밀한 데 깃들어 있다.(God is in the detail)"*라고 말하고는 했다. 모마에 소장된 수만 장의 스케치와 모형 사진을 보면, 그가 말년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던 부분은 디테일이었음이 명확해진다.

1920년대에 열린 평면에서 구현한 역동적으로 흐르는 공간, 1950~1960년대에 좌우 대칭과 사각형에서 추구한 장대한 무주공간(無柱空間)과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까지, 미스는 한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건축에서는 최고의 거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인 것이 만능이었던 시대에 이성을 통해 이처럼 미학적으로 완성도 높은 설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었다. 이제껏 보아 왔듯이, 미스의 건물처럼 구조적으로 명확하고 건설 재료와 방법이 하나로 통합된 설계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재료의 느낌과 표현의 힘이 그의 디자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료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차갑고 깔끔한 구조와 조화시킨 것이 미스 디자인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다.

콘크리트, 돌, 철, 유리 등…. 이 모든 것들은 미스에게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그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정신적인 도구이기도 했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다. 단지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자신이 디자인한 MR의자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는 미스

기고.

글. **안창모**_ An, Chang-mo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주임교수
2014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한국관 큐레이터

2014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와 한국관 그리고 황금사자상 수상의 건축사적 의미

2014 Venice Architectural Biennale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Golden Lion Award of the Korean Pavilion

지난 6월 7일 개막된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서울과 평양의 도시와 건축'을 다룬 '한반도, 오감도'라는 제목의 전시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관의 커미셔너는 조민석이었고, 큐레이터는 배형민(서울시립대) 교수와 안창모(경기대) 교수였다.



6월 5일 한국관 개막식 직후 풍경, © 김용관

황금사자상 수상은 1986년에 처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장소를 빌려 한국이 참여하고,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을 갖게 된 이후 건축과 미술부문에서 거둔 첫 성과였다. 미술부문에는 이미 3번에 걸친 특별상(Special Mention) 수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황금사자상이나 은사자상은 한 번도 수상한 바가 없었고, 건축부문에서는 특별상조차 수상한 적이 없었기에, 건축과 미술계 모두에 있어 첫 번째 황금사자상의 수상이 갖는 그 의미는 각별했다.



2011년 4월 한국건축역사회 월례학술대회 포스터



2014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포스터

베니스 비엔날레는 문화 · 예술계에서는 분명 세계적인 행사고, 건축비엔날레 역시 건축계에서는 주목받는 행사였다. 누가 커미셔너로 선정되어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건축계의 관심이 컸지만, 그뿐이었다. 즉, 전시 개막과 함께 잊히는 행사였다. 2011년 건축역사학회에서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건축과 건축가들'이라는 주제로 월례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지만, 베니스 건축비엔날레가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우리 건축계의 관심은 항상 일회적이었다. 이 땅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상'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일까? 그것도 아니면 의욕적으로 내놓은 우리의 전시가 우리 건축계에서 판단하기에 자랑스럽지 않았던 것일까?

올해 개막된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의 황금사자상 수상은 매우 놀랄만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의 반응은 매우 조용한 듯하다. 지난 20년에 걸친 건축비엔날레의 성과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관성이 이어지고 있는 탓일까? 아니면 세월호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후보자 자격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탓이었을까? '한국관'이 건축비엔날레에서 거둔 놀라

운 성과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정도로 일회성 기사로 취급되고 말았다. 물론 수상 덕에 여진이 약간 이어지기는 했지만 건축계의 관심에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이전과 다른 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신문기사에서 수상이 갖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전시주제에 담긴 심층적 내용은 물론 한국관 전시를 구성하는 작가들의 작업 내용과 수상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일반 언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전문 잡지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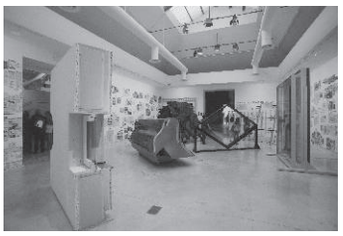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특별했다. 한국관이 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건축사'를 위한 비엔날레가 아니라 '건축'을 위한 비엔날레였기 때문이다. 올해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은 렘 콜하스(Rem Koolhaas)였는데, 그는 'Fundamentals(근본 또는 기본)'라는 주제 하에 세계 각국에게 '근대성의 흡수Absorbing Modernity, 1914~2014'를 주제로 한 전시를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탈리아관에서 '건축의 요소Elements of Architecture'를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다.



본관, 건축의 요소 전시장

건축사들의 잔치였던 비엔날레에서 건축사가 아닌 건축, 게다가 현재의 건축보다는 지난 건축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주제의 선택은, 건축사학을 업으로 하는 필자에게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었다. 작가로서의 건축사임을 맘껏 드러낼 수 있는 '건축사의 잔치'라고 생각했었을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다분히 도발적이고 못 마땅한 주제였을 것이다. 현지에서 전시 설치를 하고, 주변 국가관들의 전시를 틈틈이 돌아보면서, 렘 콜하스가 그리는 큰 그림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건축의 요소 전시관, 지붕


건축의 요소 전시관, 표피

렘, 건축의 새로운 판을 구상하다.

그는 새로운 건축 판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다. 'Fundamentals'는 기본을 뜻하지만, 이번 전시에는 '근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듯 했다. 렘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반추하는 전시회'를 주문하면서, 자신은 '건축의 근본에 대한 생각'을 전시로 풀고 있었다. 자르디니공원에 위치한 국가관들의 중심에 있는 이탈리아관에서 'Elements of Architecture'를 주제로 한 전시를 직접 준비했다. 이전의 총감독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떠오른 것이 마크 앙투안 로지에M.A. Laugier의 원시오두막이었다. 로지에의 원시오두막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설명되곤 하지만, 원시오두막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의 근본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18세기 중반, 기존의 건축이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건축적 대안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에 로지에는 건축의 근본에 대해 고민하면서 유럽 건축의 문화적 · 유형적 원형인 '그리스 건축'을 다시 생각했고, 그는 건축의 근본은 '기둥', '보' 그리고 '지붕'이라는 생각에 도달했었다. 로지에의 생각이 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로지에가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역사를 생각했고 건축의 근본을 생각했다는 사실과, 렘이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로 지난 20세기의 건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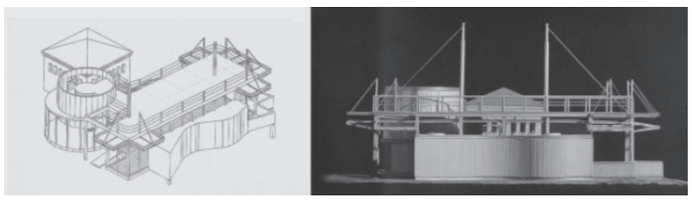

Laugier의 원시오두막

반추하자고 화두를 던지면서 동시에 건축의 근본을 생각하며 20세기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를 집중적 조명했다는 사실이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렘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후의 건축'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일까?

한국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베니스 비엔날레의 전시는 크게 두 곳에서 개최된다. 국가관이 밀집된 자르디니공원과 국가관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옛 조선소의 창고를 이용하여 전시장으로 만든 '아스날레'관이다. 독립적으로 국가관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아스날레관의 일부를 빌려서 전시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1986년 처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을 때 아스날레관의 일부를 빌려서 전시장을 마련한 바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우리는 1995년 마지막으로 자르디니 공원에 국가관을 확보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던 백남준 선생과 김석철 건축사의 노력으로 쟈르디니 공원에서 국가관을 지을 수 있는 숨은 공간을 찾아냈고, 베니스시장과 시의회를 설득한 끝에 한국관을 지을 수 있었다. 어렵게 확보한 땅이었지만 위치가 썩 좋지는 않았다. 반듯하게 자리를 잡은 독일관과 일본관 사이 뒤편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위안이 된다면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지형과 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은 지금의 한국관이 왜 들쭉날쭉하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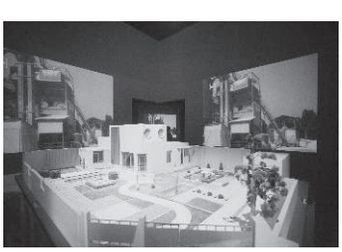
기존 땅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적인 가구식 구법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외부로 열린 구조는 330㎡가량의 작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옥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축전시로서는 처음으로 신축 당시의 공간과 형태가 그대로 이용되었다.

렘의 숙제와 세계 각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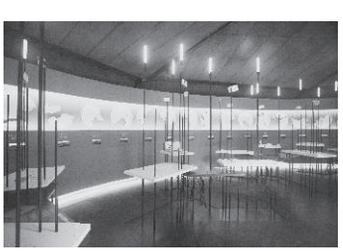
전시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다른 나라의 전시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웃한 일본관과 프랑스관은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떤 국가관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했다. 평가가 진행되기 전까지 비밀로 하고 싶은 듯 했다. 자르디니공원에 위치한 국가관 중에서 베네수엘라관이 자국 사정으로 인해 전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전시에 참가한 독립된 국가관은 25개에 달했다. 그리고 국가관을 가지지 못한 나라의 전시가 아스날레관에 40곳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렘은 전 세계에 동일한 주제의 과제를 던졌고, 각국은 자신들이 지난 100년을 어떻게 지내왔으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른바 선진국과 후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지난 100년의 세계를 주도했다고 자부하는 나라와 선진국을 부지런히 좇았던 나라 그리고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삶을 강요당했던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선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20세기 건축을 주도했던 프랑스다. 프랑스가 내건 주제 'Modernity: Promise or Menace?'는 이번 비엔날레에 임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Modernity: Promise or Menace?' 산업혁명이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결과가 참담했음은 사회주의의 출현으로 입증된 바 있다. 산업혁명의 가시적 성과인 모더니즘 건축이 그들이 구축했던 경제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프랑스관은 보여준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건축계를 주도해왔던 프랑스가 내건 '모더니티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느냐? 아니면 위협이었느냐?'의 화두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반성이 녹아들어 있다. 프랑스관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랑스관



캐나다관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20세기 세상을 주도하지 않았던 캐나다의 경우 자국의 정치적 · 경제적 소수자였

던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지난 100년을 지내왔는지에 주목하는 전시로 특별상을 수상했고,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바뀐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1970년대 일본건축을 소개하며 그 안에서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안도 다다오와 하라 히로시 등의 건축적 성과를 드러내고자 했다. 일본은 비록 오늘날 세계 질서를 구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후발국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전시 내용은 그러한 의지를 잘 담아냈다. 탈아입구(脫亞入歐)에 성공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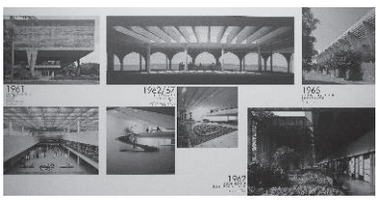


러시아관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관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건축적 구현의 중심에 있었던 러시아구성주의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조 중 하나였다. 하지만 러시아구성주의는 사회주의의 이념적 정체성에 매우 적확하게 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예술의 또 다른 축인 'Social Realism'이 지향하는 대중과의 소통원칙과 충돌하면서 스탈린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러시아관은 바로 이점에 착안했다. '미완의 꿈으로 남은 러시아구성주의의 수많은 꿈들이 열매를 맺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화되었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 러시아구성주의의 건축적 성과가 하나하나 사업체가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각각의 부스를 만들어 박람회장 형식의 전시관에 출품되었다. 얼핏 매우 가볍고 진정성이 부족한 듯 보이는 가벼운 풍경의 러시아관은 '사회주의 건축적 성과가 자본주의의 시장구조에서 새롭게 재무장한다면…'이라는 가볍지 않은 화두를 빼어난 기획력으로 소화해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한편, 렘의 과제를 모범생답게 풀어낸 나라들도 많았다.

처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근대건축을 구성하는 건축재료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100년의 건축을 보여줬고, 한때 선진국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브라질은 1960년대 모더니즘이 화려하게 꽃피웠던 시절을 고스란히 편년체로 담아냈으며, 스베레 펜Sverre Fehn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3개국이 공동 운영하는 Nordic Pavilion은 건축이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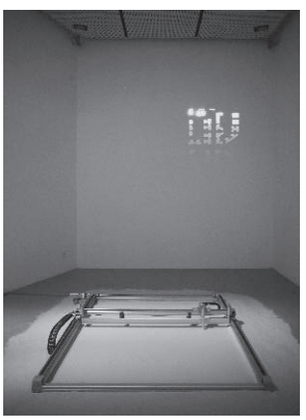


브라질관


노르웨이관

된 시점부터 자신들이 도와준 아프리카에서 모더니즘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밖에도 이스라엘처럼 자국의 건축을 지형학적 특성과 철학적 사유로 묶어 풀어낸 나라가 있는 반면, 베니스 비엔날레의 첫 번째 국가관을 가졌던 강대국도 지난 100년의 세월동안 국가적 위상이 달라지면 전시마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헝가리관의 전시 내용이 잘 보여준다.


이스라엘관

많은 나라를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가관은 전 세계가 지난 10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관은?

그렇다면 우리 전시관은 무엇을 담았는가?

'한반도, 오감도'라는 다소 난해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오감도가 시인 이상의 시 제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주제 해석의 난해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상은 한국 근대의 아이콘이다. 2010년 이상의 탄생 100년이 되던 해, 우리는 많은 문화 · 예술 장르에서 이상을 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건축에서 이상을 가장 경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축에서 이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은 한국의 문화 · 예술 장르 모두가 기리는 대상이 되었을까? 이 질문



이상, 오감도 시 제4호

에 답을 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굳이 답을 한다면 필자는 이상의 작품이 난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상의 작품에는 누구나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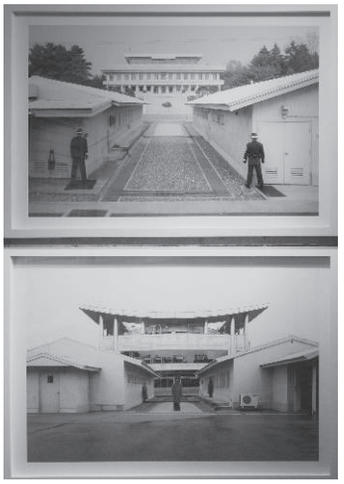
서울과 평양의 건축을 다루면서 커미셔너인 조민석은 오감도만큼 적합한 주제어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도시의 관성 아래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서울에서 초고속 성장을 해온 도시와 건축은 단선적 해석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반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명료한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개념 아래 이루어진 평양은 자신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평양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매우 추상적인 존재다. 분단체제의 결과다. 남과 북은 세계 여느 분단국가보다도 완벽하게 분단되었던 탓에, 매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추상적인 존재다.

이 정도면 '한반도 오감도'가 한국관의 표제어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한국관, 서울과 평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판문각과 자유의 집

'분단의 경계Borders'에서는 세계 유일의 냉전의 현장인 DMZ의 역사와 드러나지 않는 현실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여준다. 155마일을 가로지르는 DMZ의 오늘을 보여주는 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보다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모니터를 통한 메시지는 한눈에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로 전경, © 신경섭



김일성광장 전경



경계, 서예례와 김동세 작가



닉 보너 콜렉션, 유토피안 투어, © 아르코

우리는 한국관에서 남과 북의 도시와 건축을 편향됨 없이 드러내고자 했다. 한국관은 '재건Reconstructing Life', '기념비적 국가Monumental State'. '분단의 경계Borders' 그리고 '유토피아로의 여행Utopian Tours'으로 구성되었다.

'재건Reconstucting Life'에서는 전후 복구에 매진하며 각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재구성하는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담았고, '기념비적 국가Monumental State'에서는 체제 우위경쟁 속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담았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세종로'와 '김일성광장'의 1960년대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두 도시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은 '유토피아로의 여행Utopian Tours'이다. 유토피아는 우리에게 이상향으로 알려져 있어 마치 낙원의 이미지로 비춰지지만, 어원을 따져보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지만, 우리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곳이 평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유토피아로의 여행'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짐작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이곳의 전시는 북경에서 오랫동안 북한여행을 주선하며 '고려여행사'를 운영해온 '닉 보너 Nick Bonner'의 콜렉션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접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전시공간이다. 한국관에서 유일하게 반듯한 공간에 설치된 '유토피아로의 여행'은 지난 21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는 포착되지 않는 평양의 일상이 작은 사진으로 모자이크된 전시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노동현장을 묘사한 그

림들, 북측 젊은 신세대 건축사의 꿈이 남측의 신세대 건축사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 투시도가 이어진다.

전시는 밖에서도 계속된다. 한국관 벽체를 따라 서울과 평양의 다



옥상 전시장

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옥상으로 오르면 한국관의 주제가 천창에 펼쳐져 있으며, 천창 안으로는 한국관 전시의 주제인 서울과 평양의 중심공간이 다시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그 주변으로 전시공간이 다시 펼쳐진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관람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관 수상의 건축사적 의미

한국관은 '한반도, 오감도Crow's Eye View, The Korean Peninsular'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올림픽으로 치면 금메달을 수상한 것에 비견될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금사자상의 수상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한국 스포츠가 일취월장 했었던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건축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는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바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베니스 건축비엔날레가 '건축사'가 아닌 '건축'을 위한 전시회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한국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게 되었는가?

필자는 답변에서 커미셔너의 탁월한 주제 선택과 큐레이터 그리고 많은 스텝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정답 이외에 다음의 말을 더한다. 우리는 지난 100년의 결정체인 오늘날 우리 삶을 표상하는 도시와 건축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분단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도시와 건축을 통해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고, 이데올로기가 도시와 건축을 바꿀 수 있다고 있다'고 믿었던 지난 한 세기의 건축계의 믿음을 서울과 평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분단을 경험했던 동 · 서독이나 남북월남의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도 쉽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남과 북은 반만년 이상 같은 문화를 공유해 왔기에 불과 50여년의 완벽한 분단체제 아래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도시와 건축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순도 높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6.25전쟁으로 완벽하게 파괴되었던 평양의 비극적 현실과 결합된 사회주의 도시계획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상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 결과는 사회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대립구도를 형성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서로의 장점을 취하며 오늘의 유럽세계를 만들어 왔고, 유럽의 도시와 건축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한반도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다. 냉전체제 아래에서 서울과 평양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몰입하면서 체제 우위경쟁에 돌입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서울과 평양이다. 한국관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우리는 모더니즘을 구성하는 다양한 건축적 DNA 중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와 건축이라는 DNA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기에 황금사자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황금사자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황금사자상의 수상이 중요한 것은 세계도시와 건축사(建築史)에서 우리의 도시와 건축의 자리 매김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의 시대는 지역의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그래서 우리는 11건에 달하는 도시와 건축의 세계문화유산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건축사는 지역건축의 합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세계는 달랐다.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지식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세상이 근대 세계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해야 했던 지식의 대부분은 서구세계에 의해 생산된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였다. 따라서 지난 100년의 세상에서 우리의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의 수상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50년 아니 100년의 우리 건축의 물리적 실체가 변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중요한 변화는 우리 것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베니스 건축비엔날에의 수상에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 매김이 가능해진 중심에 지난 반세기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낸 남과 북의 건축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기고.

글. **이종호**_ Lee, Jong-ho
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워크숍 및 건축탐방을
(강원도 고성, 양구 일원)
다녀와서

A Review of Seoul Northern Regio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s Workshop and Observation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 워크숍 및 건축탐방'은 지역 건축사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건축 현안에 대한 토론과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벌써 7년째 계속되고 있다. 금년에는 성북구건축사회 주관 하에 지난 5월 30일~31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금강산 콘도에 숙소를 정하고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을 둘러보았다.

두 건물은 공교롭게도 화진포의 푸른 호수를 사이에 두고 먼발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바닷가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은 전망 좋은 해안 절벽 위에 2층 석조 건물이 제법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송림 속에 자리하고 있다. 독일 건축사 H.Weber의 설계로 1938년에 건립(외국인 선교사 예배당)되어 한국전쟁 이전 김일성 가족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하던 것을 복원하여 2005년 이후 역사 안보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1954년에 신축한 단층 건물로 1999년에 복원하고 2007년에 보수한 것인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의 별장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고 소박하다.

숙소인 금강산 콘도는 오래 전 금강산 육로관광을 갈 때 숙박했던 곳이라 낯설지 않았다. 시설은 낡았지만 해변 풍광은 수려한 곳이다. 대진항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와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건축(설계 및 감리)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 등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이튿날 통일전망대 안보관광을 마치고 양구로 향했다.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양구의 맛집으로 소문난 광치막국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이번 일정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인 박수근 미


단체 사진(앞줄 가운데가 필자)


금강산 콘도 전경

술관(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033-480-2655)으로 향했다.

박수근 미술관을 둘러보고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가운데(금년 들어 가장 더운 날씨) 미술관 입구에 당도했다. 이런 한적한 시골에 우리나라 미술계 최고 화가의 미술관이 있다는 게 우선 놀랍다. 더구나 올해는 박수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국민화가로 불리며 한국의 밀레라는 평을 받고 있는 미석 박수근 화백은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라는 말씀과 함께 진솔하고 담백한 화풍의 작품을 여럿 남기셨다. 이번에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박수근 화백의 전시 작품

선생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선묘를 이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서양화 기법을 통해 우리 민족적 정서를 거친 화강암과 같은 재질감으로 표현해냄으로써 한국적인 미의 전형을 이루어냈다.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그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서민화가이자 20세기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의 미술 작품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미술관 건물 자체가 또한 예사롭지 않게 설계된 작품이다.

2002년 10월 25일 박수근 선생의 생가 터에 건립된 박수근 미술관은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혼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의 대



박수근 미술관 전경

표적인 문화공간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필자와는 동명이인으로 얼마 전 사망한 한국예술종합학교 故이종호 교수의 대표작인 것이다. 건축사자격은 없지만 건축(설계)계에선 꽤 지명도가 있는 분이다. 이름이 같아 전화가 서로 잘못 걸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며, 언젠가 전화 상으로 인사를 나누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먼저 세상을 뜨고야 말았다.

그래서 나로서는 더욱 더 친근함과 호감이 가는 건축물인지라 미술작품과 함께 건물 내외부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여느 일반 건물, 미술관과는 배치방법, 동선부터가 달랐다. 한 채의 큰 건물이 아닌 여러 채의 작은 건물들이 마치 하늘에서 살포시 내려앉은 듯 자연의 품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박 화백의 그림 '나무'처럼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한 건축과 미술이 서로 어울려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했다. 둘 다 이 세상 분이 아니지만 바로 내 옆에서 뭔가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예술은 위대하다.



박수근 동상

소중한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고 박 화백의 묘소에도 혼자 올라가 참배를 했다. 산의 용맥이 힘차게 내려온 좋은 자리에 잠들어 계신다. 그리고 동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제2전시관으로 갔다. 제1전시관과는 서로 언덕을 두고 나뉘어 있는데, 나눔으로써 안과 밖이 생기고, 안과 밖의 관계는 교류를 낳는다. 이렇게 벌려 놓으니 조금은 불편하지만(오히려 기분 좋은 불편함) 길이 생기고 길이 생겨야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 꾸밈 없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의 폭 좁은 복도와 좁은 돌음 계단 등 겸손한 내부 시설 또한 박수근 화백의 단순하고 소박한 그림을 닮았다. 이처럼 건축과 미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뒤로 하고 귀경길에 오르며 건축과 미술(예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2전시관

건축과 미술에 대해 생각해 보다

건축은 예술인가?

예술은 'Art' 이고 건축은 'Architecture' 다. 왜 모두 A로 시작할까? 둘은 뿌리가 같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은 예술, 그것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시와 음악, 그리고 미술이 순수예술인 것은 작가 자신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한 때는 건축도 예술(미술)의 장르에 속했다. 미적 작품성이 주로 강조되었다. 그런데 현대건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건축주(사용자)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내세우고 사회,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설계자인 건축사는 예술성을 추구한다. 건축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예술이나 종합예술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건축과 미술의 관계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회화, 조각, 공예품을 건축을 장식하는 부수적 요소로 간주했다. 건축사는 어느 벽에 그림이 들어가고 어느 자리에 조각이 배치되는지 염두에 두면서 건물을 설계한다. 당연히 건물 착공과 동시에 작가에게 회화와 조각 작품을 주문한다. 이런 그림과 건축의 일체화 현상은 르네상스 시대(16세기 말~18세기 초)에 절정을 이룬다. 화가들은 교회당은 물론 귀족 저택의 천장과 벽을 현실공간과 연결된 것처럼 묘사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벽화 대신 액자로 장식된 그림이 벽화를 대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문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각도 그렇다. 건물 로비나 복도를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는 건물의 유기적 구성요소로 활용되었다. 때로는 조각을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기도 한다.

서양과는 대조적으로 동양에서는 건축과 미술을 별개로 여겼다. 종교 건축물과 궁궐 건축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특히 유가의 건축물은 검소하고 소박한 기풍을 중시했기 때문에 집안 내부를 그림과 조각으로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장식용보다는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벽사용 그림과 글씨를 집 안팎에 계절마다 한시적으로 붙였다.

건물을 치장하지 않다 보니 서양에 비해 미술과 건축의 유기적 상관관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에서 건축과 미술이 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이제는 서구적 삶과 건축이 우리네 일상을 지배한 지 한 세기가 흘렀다. 건축-미술의 '한 몸 문화권'에 편입된 것이다. 삶과 미술의 친화 관계는 갈수록 가속화되서 건축과 미술의 상호 침투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조각 같은 외관을 가진 빌딩, 건축 같은 조각 작품은 너무도 흔해 더 이상 화젯거리도 아니다. 주어진 공간에 맞게 설치 작품을 제작하는 장소 특정적 미술도 그런 현상의 일부다.

이제 미술과 건축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기능성을 띠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뿐이다. 주거용, 사무용, 레저용 등 말이다. 다행인 것은 그런 상호침투현상이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예술적인 삶' 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경제신문 정석범 문화전문기자의 CEO를 위한 미술산책에서 인용)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가면 비즈니스고, 두 걸음 앞서가면 혁명이고, 세 걸음 앞서가면 예술이란 말이 있다. 건축을 예술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대보다 세 걸음 앞서가야 한다.

이사회 개최 현황

제6회 이사회

2014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 협동조합 추진방향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건, 「2014 건축의 날」 포상자 추천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사 협동조합 추진방향의 건

–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부의안건 |

● 제1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검토 수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나머지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회장직선제 연구TF안 대로 승인함.

관련조문	회장직선제 연구 TF안	검토수정안	의결
제3조(선거관리) 제3항	후보자 등이 선거관련 위반으로	후보자 등(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거관련 위반으로	수정안 승인
제9조(후보자 등록)제4항	후보자의 후보등록 마감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	후보자의 후보등록 마감은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30일 이전으로 의결
제13조(현직임원의 등록)	정회원이 후보자 등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수정안 승인
제17조(예비후보자등록)제4항	신설	예비후보자 후보등록 마감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수정안 승인

● 제2호 : 「2014 건축의 날」 포상자 추천의 건

–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자를 추천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 협회장배 골프대회는 9월 22일에 개최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법제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법제위원회 운영 및 추진 방향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의 운영은 건축법, 건축사법, 기타 관련법을 담당하는 3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으로 함. 법 제도 관련 업무에 있어 업무의 집중을 요할 수 있도록 팀별 안건은 위원장과 사무처가 협의하여 배분하기로 함.

구분	1팀 / 건축법	2팀 / 건축사법	3팀 / 기타 관련법
담당위원	부위원장 : 손두호 위원 : 김제경, 배형근, 정광영	부위원장 : 김호준 위원 : 구춘회, 박원근	부위원장 : 배홍렬 위원 : 서용식, 이동우

● 제2호 : 국토 · 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건의사항 발굴에 관한 건

– 지속적인 건의사항 발굴을 위해 팀별 의견 취합 및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안건을 발굴하기로 함.

– 5월 21일 정례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각 위원별 의견을 3개씩 정리하여 5월 12일까지 사무처로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개정 건의 요청 검토의 건

– 사용승인 검사조서 서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함. 그러나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항목의 삭제 또는 변경시 건축사의 총괄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4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 의견조회 검토의 건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에 대한 의견을 김제경 위원이 정리하여 사무처로 전달하기로 함.

● 제5호 : 지자체 건축조례 조사의 건

–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조례, 위임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키로 함.

● 제6호 : 기타의 건

■ 화재포럼 패널 토론자 선정의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14년 5월 1일) 검토에 관한 건

■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의 건

제3회 국제위원회

제3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도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 2014년도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출장자 9인(현재 5월 28일)

–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금 검토 예정

– ARCASIA 이사회 참가 및 위원회별 안건 논의

– 우리협회 및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 부스 추진
– 우정의 밤 행사와 관련된 토의가 있었으며 특색 있는 퍼포먼스 계획 추진 요망

●제2호 : 2014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참가에 관한 건
– 총 참석자 5인
– 프로그램 참가 비용에 관해 조속히 논의할 계획
– AIA 컨벤션 참가시 미국건축사협회, 미국건축사등록원 방문
– President Forum 참석 필요성 제시(이근창 자문위원)
– Discussion Agenda 관련하여 FIKA 입장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함.

| 기타사항 |

– 2014년도 제17차 한 · 중 · 일건축사협의회 개최준비
– 몽골건축사협회(UMA) 교류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해외단체장 초청
– Student Cross Board Training 관련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임대 및 협회 사무공간 이전계획안 검토의 건
– 6층 임대만료 공간은 8층의 건축사공제조합이 확장 이전하고, 8층에 건축사연구원을 확장, 9층의 정책연구실을 8층으로 이동하며, 3층 기획홍보실 및 교육원을 9층으로 이전하고, 3층의 공간은 일반 임대하여 임대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함. 그리고 9층의 자료실은 지하층 및 8층으로 분산 이전함.

●제2호 : 서울건축사회 교육관련 대관료에 관한 건
– 실무교육의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세법을 근거로 판단하고,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소정의 대관임대료가 포함되어 책정된 수강료를 받고 있는 바, 대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회의 주최에 관련된 사항도 당초의 취지에 따라 대관료는 지불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었으므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문제가 있을 시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함.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및 세미나 추진 계획
– 2014년도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하여 '최소의 주택'을 주제로 하여 소형주택의 규제완화 제안 및 발전방향 제시, 공간연구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

●제2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MOU 체결 계획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체결 계획을 진행하며, 접촉 및 업무협의는 위원장이 진행키로 함.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의 건
– 협회 제31대 회장 선거 등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일정 등)은 정관 개정안의 국토교통부 인가와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이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에 차기회의(6월 말~ 7월초)를 개최하여 협의, 마련하기로 함.

●기타사항 : 정관 개정안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에 관한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제2회 사업위원회

제2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4 동시개최 행사의 건
– 사업위원회에서도 녹색건축한마당 동시개최를 최종 협의함.
▷동시개최로 규모가 커지는 만큼 보다 질 높은 행사 방향을 모색해야 함.
▷동시행사로 부족한 인력과 조직구성은 협회 관련 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적극 보완하며 사무처 내부 검토 후 다음에 논의키로 함.

●제2호 : KAFF 2014 참가업체 홍보마케팅에 관한 건
– 온라인상 무료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들의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키로 협의함.
▷지하철 광고가 유동인구도 많으며, 가격대비 광고효과가 큼.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추진에 따른 여러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키로 함.

| 기타사항 |

– 부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요율(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능성을 검토하여 다음에 재논의키로 함.

제2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2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건
– 회원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회원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함.
●제2호 : 설계도서 지적재산권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
– 설계도서 지적재산권 심의 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명칭, 위원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위원 구성 시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선임되는 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에게 협의 요청. 기타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하였음.
●제3호 : 회원 소송(분쟁)지원 범위 및 방법에 관한 건
– 건축문화신문을 통한 사례접수 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지원하되, 자문변호사가 선 지원한 후 소송관련 경비 등은 소송 완료 후 당사자가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건축사'지나 '건축문화신문'에 작품발표 시 설계자의 표시는 최소한 '교수 + 건축사'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홍보위원회 요청)

제2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2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감독건축사의 실무수련자 관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의 건
– 최재필 위원 주관으로 실무수련 담당위원이 협의하여 감독건축사 매뉴얼 마련을 위한 일정, 업무범위, 소용비용 등의 계획을 수립 후 논의하기로 함.
●제2호 : 한–EU, 한–중 MRA 추진에 대한 협의의 건
– 건축사법 개정 등 건축설계 분야 MRA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MRA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제3호 : 건축사실무교육 교육과정 추가 인정심사에 관한 건
– 2014년도 건축사실무교육으로 건축사교육원에서 추가로 인정 요청한 전문교육 2개 과정*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함.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건축사와 기술제안서 작성법
●제4호 :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의 건
– 공식적인 건축관련 공개행사가 아닌 단순 개인관람(김중업 박물관)으로 불인정 처리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건축사교육원에서 장애인(청각)을 위한 건축사실무교육 면제 또는 감면요청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 상에 장애인에 대한 교육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근거도 없고, 실무교육 지침에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교육원 측에서 사이버교육수강 시 강의자료 등을 제공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함.
– 해외건축사의 등록관리 필요성 및 해외면허의 계속교육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MRA와 관련 있고, 법령상 근거와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검토하기로 함.

김영수 회장, 울산시건축사회와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6월 12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울산지역 건축사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정태석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영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리제도 개선,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 전달했다.
특히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서는 정태석 울산회장이 현실성이 없는 제도에 대해 개선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회장은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1년 정도 시행을 한 후 문제점 등을 각 시 · 도건축사회를 통하여 도출한 후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회장, 대한건축학회 신임회장단과 상견례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6월 11일 서초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대한건축학회 신임회장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협회 권병조 상근부회장과 김의중, 심재호, 조충기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학회 측에서는 김광우 신임회장과 이재훈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수 회장은 학회 신임회장단들에게 건축계 발전,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에 대해 당부했다.

충남건축사회, 2014 충남건축사대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회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충남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이병철 서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고봉규 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최종옥 충남건축사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건축사로서 윤리적 책임, 전문가로서의 책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건축사대회 첫째 날에는 충남건축사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공로패 수여와 '사회 안전관리 결의에 따른 건축물 안전 다짐 결의'를 열었다. 또한 박철민 제주대학교 교수의 '스토리가 있는 공공디자인 : 도시이야기', 김보영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의 '건축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세계'로 전문교육을 하였다. 2일차에는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라산 등반, 골프, 바다낚시, 올레길 투어 등의 취미 활동 후 16개 지역회별 단합행사를 가졌다. 3일차에는 골프, 제주도 건축물 답사, 오름 답사로 모든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송파지역건축사회, 장애인시설 쌀 전달식



송파구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15일 송파구 마천동 소재 장애인시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쌀 전달식을 가졌다. 쌀 전달식 후 관내건축사들은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인근 산으로 소풍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시연 원장은 이날 "어려운 건축경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찾아주신 데 대해 원생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회장 '오피니언리더 100인회' 초청 강연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세종로 프레스센터 10층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 100인회 6월 월례회'에서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역할로 본 건축계 주요 현안'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건축사의 정의와 업무,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한건축사협회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건축계 당면 주요현안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남북건축문화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김영수 회장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ARCASIA 이사회 참석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제35차 아카시아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에서 심재호 부회장, 오동휘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베트남건축사협회(VAA)와 MOU체결 ▲라오스건축사협회(ALACE)와 Accord 및 Working Plan에 대한 MOU 갱신 ▲몽고건축사협회(UMA)와의 간담회를 통한 협의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펼쳤다.

'건축사자격시험' 원서 접수,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건축사자격시험과 특별전형의 원서를 접수한다. 시험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 등 3과목을 제도하는 실기로 치러진다.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사사무소에서 3~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이,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5년 이상 건축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9월 20일 치러지며, 시험 장소는 8월 27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공고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부 건축정책과(044-201-375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4)으로 하면 된다.

건축계 소식

6.4지방선거, 자치단체장 2명 포함 '건축사 13명' 당선

지난 6월 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건축사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건축사는 총 13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 의원 4명, 구시군의회 의원 6명, 기초의원(비례대표) 1명이 당선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 12명보다 1명 늘어난 수치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는 현 종로구청장인 김영종 건축사(前김영종건축사사무소)가 재선됐다. 김 건축사는 44,159표(득표율 55.51%)를 얻었으며, 지난 4년간 건축적인 마인드로 구정업무를 추진, 종로 곳곳에 변화를 주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건축사는 "확고한 안전종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0년 구청장 당선으로 30년 가까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를 닫았다.

현 원주시장인 원창묵 건축사(前(주)건축사사무소 예원)도 4년간 원주시를 다시 맡게 됐다. 수도권 전철 연장 국비 확보와 원주천 상류 댐 조성, 캠프롱 시민 공원 조성, 교도소 외곽 이전 국가예산 확정 등 대형 사업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재선됐다.

이밖에 시도의회 의원에는 ▲강성언 건축사(서울/가원 건축사사무소) ▲강무길 건축사(부산/주.경부 건축사사무소) ▲김석곤 건축사(충남/건축사사무소 공간) ▲진병영 건축사(경남/건축사사무소 전원)가 당선됐으며, 구시군의회 의원에는 ▲김연후 건축사(서울 강동구/한울 건축사사무소) ▲김진구 건축사(충남 아산시/김진구 건축사사무소) ▲노경윤(전남 목포시/주.토마 건축사사무소) ▲김성태 건축사(경북 상주시/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천수 건축사(경북 경산시/예공종합 건축사사무소) ▲홍인표 건축사(대구 중구/거화 건축사사무소)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건축사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인화 건축사(도원 건축사사무소)는 새누리당 기초의원비례대표 1순위로 서울 강남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건축사는 "강남지역 건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건축사 당선인〉

구분	이름	지역	건축사사무소	소속정당
지방자치단체장 (구시군의 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	前김영종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원창묵	강원 원주시	前(주)건축사사무소 예원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의회 의원	강성언	서울	가원 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강무길	부산	(주)경부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김석곤	충남	건축사사무소 공간	새누리당
	진병영	경남	건축사사무소 전원	새누리당
구시군의회 의원	김연후	서울 강동구	한울 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홍인표	대구 중구	거화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김진구	충남 아산시	김진구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노경윤	전남 목포시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태	경북 상주시	도시 건축사사무소	무소속
	이천수	경북 경산시	예공종합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이인화	서울 강남구	도원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6.4 지방선거 건축사 당선인


종로구청장 **김영종**


원주시장 **원창묵**


시도의원(서울) **강성언**


시도의원(부산) **강무길**


시도의원(충남) **김석곤**


시도의원(경남) **진병영**


구시군의원(서울 강동) **김연후**


구시군의원(대구 중구) **홍인표**


구시군의원(충남 아산) **김진구**


구시군의원(전남 목포) **노경윤**


구시군의원(경북 상주) **김성태**


구시군의원(경북 경산) **이천수**


기초의원 비례대표 (서울 강남) **이인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 · 시상하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 ·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대전 작품접수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국건위 위원장상 1점(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최우수상, 상금 각300만원), 후원 기관장상 7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원)을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는 녹색건축 기술의 현재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녹색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가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 3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AURI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npbc.or.kr)를 통해 안내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AUR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 '기술사랑 프로젝트 감성봉사' 참여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치과여의사회, 한의사회, 파주시와 함께 '기술사랑 프로젝트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감성봉사'에 참여했다. 파주시 법원읍 곰곡2리의 폐교된 학교운동장에서 90여명이 모여 개회식을 하고 4개팀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5가구 200장씩 연탄배달을 했다. 오후에는 폐교에서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새로이 태어난 건축물 내부에 벽화를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주변에 화단에 풀뽑기, 텃밭 풀뽑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에서 2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 전문연위원장은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더 많은 회원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2014년 상반기등반대회' 성료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는 지난 6월 14일 충남 용봉산에서 '2014년도 상반기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건축사회원 305명과 가족 90명 등 총 395명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조충기 부회장, 김득수 감사, 신우식 감사 등이 산행에 동반했다. 이번 용봉산 등반대회는 구룡대 매표소를 출발해 최고봉 정상을 거친 후 '용도사' 방향 A코스와 '최영장군 활터' 방향 B코스로 나눠 참가자 전원이 완주했다. 행사 시작 전에는 협회 홍보를 위해 등반로 입구에서 일반 등반객에게 홍보기념물을 나눠주었으며, 행사 후에는 대구와 대전 및 제주지역동호회에서 충남도청 신청사를 답사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등반대회는 오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 한라산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건축사 회원들은 각 지역 등산동호회 또는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카페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동호회 사무총장 김경복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010-3697-6645)에게 문의하면 된다.

「MADE」, 한정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메이드 6호에 게재된 1954년 남대문 항공사진

사진을 통한 문화에술잡지를 표방하며 창간한 「MADE」가 이번 9월호를 특별 한정판으로 제작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tumblbug.com/ko/made)을 진행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특집호는 '3대가 바라본 서울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1900년대 중후반 서울의 개발이 한창이었을 때의 모습을 공개하고, 앞으로 미래가 될 2000년대 현재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내고자 기획됐다. 건축사진 3대는 임인식-임정의-임준영을 말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6월중순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363	6,363	76	152	7	21	6,446	6,536	1,838	1,838	233	466	57	171	26	104	16	109	2,170	2,688	8,616	9,224
서울	968	968	22	44	0	0	990	1,012	911	911	123	246	37	111	13	52	11	68	1,095	1,388	2,085	2,400
부산	554	554	9	18	2	6	565	578	112	112	31	62	3	9	2	8	1	7	149	198	714	776
대구	555	555	13	26	4	12	572	593	71	71	12	24	3	9	3	12	0	0	89	116	661	709
인천	300	300	3	6	0	0	303	306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75	387
광주	236	236	1	2	0	0	237	238	51	51	5	10	2	6	2	8	1	5	61	80	298	318
대전	271	271	5	10	0	0	276	281	37	37	9	18	3	9	1	4	1	14	51	82	327	363
울산	205	205	4	8	0	0	209	213	22	22	3	6	0	0	0	0	0	0	25	28	234	241
경기	901	901	2	4	0	0	903	905	276	276	13	26	6	18	1	4	0	0	296	324	1,199	1,229
강원	201	201	2	4	0	0	203	205	29	29	2	4	0	0	1	4	0	0	32	37	235	242
충북	235	235	2	4	0	0	237	239	44	44	4	8	2	6	2	8	1	9	53	75	290	314
충남	312	312	1	2	0	0	313	314	63	63	8	16	0	0	1	4	0	0	72	83	385	397
전북	283	283	4	8	0	0	287	291	31	31	4	8	0	0	0	0	0	0	35	39	322	330
전남	220	220	0	0	0	0	220	220	23	23	1	2	0	0	0	0	1	6	25	31	245	251
경북	450	450	4	8	1	3	455	461	44	44	5	10	0	0	0	0	0	0	49	54	504	515
경남	519	519	4	8	0	0	523	527	41	41	4	8	0	0	0	0	0	0	45	49	568	576
제주	153	153	0	0	0	0	153	153	19	19	2	4	0	0	0	0	0	0	21	23	174	17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9,224	100%
서울	2,400	26.02%
부산	776	8.41%
대구	709	7.69%
인천	387	4.20%
광주	318	3.45%
대전	363	3.94%
울산	241	2.61%
경기	1,229	13.32%
강원	242	2.62%
충북	314	3.40%
충남	397	4.30%
전북	330	3.58%
전남	251	2.72%
경북	515	5.58%
경남	576	6.24%
제주	176	1.91%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6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425	3,117
서울	3,924	2,049
부산	776	128
대구	684	85
인천	386	9
광주	305	67
대전	364	56
울산	237	39
경기	1,451	140
강원	260	25
충북	326	78
충남	383	77
전북	337	35
전남	275	73
경북	492	34
경남	608	68
제주	178	49
기타	1,439	105
비고	회원 : 9,074 / 비회원 : 3,351	대학 : 2,862 / 대학원 : 255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522	2,678	9,200	
비율	70.89%	29.11%	100%	
사무소수	6,431	2,159	8,590	
비율	74.87%	25.13%	100%	